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Cross America (34)

목록열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본사

# 베니의 미국횡단 첫 이야기 Hello, Ohio

글과 사진 / 춤추는베니  
[www.dancingbeny.com](http://www.dancingbeny.com)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아~너무 덥다 더워~

나무그늘을 찾아서 자리잡은 사람들

피터는 이미 도착해서 편하게 쉬고 있네요-

Hi Peter~



친스플린 때문에 스테이지 러너가 된 바바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 덧 4,000KM를 돌파했네요.  
우리가 마셔댄 콜라가 4,000개는 훌쩍 넘을거예요~  
하루에 20캔 이상 마시는 라이너만 생각해도 후덜덜~

피를 콜라로 채워서 달린다고 착각이 들만큼 모두들 콜라만 마셔댔거든요.  
사실 코카콜라가 없었다면... 이 대회는 아비규환?  
그런 의미에서 콜라는 정말 신성한 검은 물이었습니다.

무더운 오하이오 날씨속에서 다들 빨래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휴~바람도 안분다 오늘...

카메라를 들고 등지를 잠시 떠나 봅니다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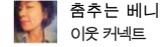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꽃3333



라지엘르



기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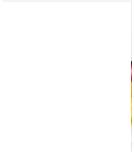
1 / 1317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51

1,353,511

멀리서 보니 파란날개를 곧게 뻗고 땅위에 내려 앉은 경비행기가 보여요

주변을 둘러보니 활공장으로 써도 좋을만큼 넓은 터가 잘 닦여 있어서 속이 땡~뽕리는 기분을 만끽



어?

경비행기 주유소는 셀프인가?

경비행기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멀리서 경비행기 모터소리만 들려도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인지라 두근두근두근!!!



우연히 만난 도나와 그녀의 남편은 피니쉬라인 근처에서 경비행기에 주유중이었다.  
슬금슬금 그들에게 다가가 구경을 했다.  
손을 흔들고 눈인사를 한 뒤에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정.

"저,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요"  
(이미 몇 장 찍었지만..)

"괜찮을까요? @@"  
-> 눈 뚫그랗게 뜨고 물어봐야함. 착하고 귀여운척~

"아, 물론 괜찮아요!"

하, 이 언니 쿨하다~쿨해!



내 비행기가 아닌지라 어색어색 ㅋㅋ

여유있는 두분은 사진을 찍어주신다.  
흔쾌히!!

"한 번 타볼래요?" 라고 물어 보는 도나

(내가 흥분한걸 눈치챘구나?)



척! 하고 엄지 들어올리기!

아우. 파일럿 돌네~ ㅎㅎ



나무데크로 짜여진 계기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요 @@  
근데, 뭘 눌러야 시동이 걸릴까?



오랜기간 사용한 듯한 헤드셋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비행기에 올라타 보니 정말 신나더라고요~  
제 뒷쪽으로는 보조석이 있어요. VIP석이라고 볼수도 있구요.

하지만, 저에게 어디에 앉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운전석에 앉아서 멋지게 비행하고 싶어요~  
영화 청연의 '경원'처럼요!



둘이 가끔씩 드라이브 비행을 하신다는 커플~  
도나는 라디오스테이션도 운영하시더군요.  
비행 경력은 십년이 넘었고, 집에는 차고 옆에 격납고도 있겠지요~+\_+

한국에서는 경비행기를 공동소유로 구매하여 돌려가며 탄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선 개인 소유주들도 꽤 많을 듯해요.

국내에서도 개인소유주 있으시겠지요?  
참말 부럽습니다 @@



2011/08/12 Stage 55 Ohio

올만에 단체샷 ~

피터는 이제 71세가 되셨군요^^  
얼마전에 생일이셨어요. 기념여행으로 와이프와 남아프리카 가신다고 자랑을 ㅎㅎ

세계여행, Canon\_EOS\_500D, 미국여행, LANY

덧글 28 | [익인글](#) | 공감 8

[구독하기](#) | [북마크](#) | [미투](#) | [보내기](#) | [인쇄](#)

**담양항공**

경비행기, 초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취득, 군조종장학생, 항공대학지원자 비행교육.

**G마켓 경비행기**

경비행기, 아기비행기, 뽕뽕이비행기, 자동방향전환, 장난감, 사은품, G스탬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독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바일 추천 (49)
-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1 2 3 4 5 6 7

5줄 보기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쫘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복사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드디어!

미국횡단 마라톤을 위해 LA로 날아갈 시간이 다가왔네요~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떠날 날짜가 되니 실감이 안나요-

미국에 도착해야 좀 실감이 나타나봐요 ^^

미국횡단을 위해 준비해야하는게 많았던 것 같은데, 바쁜일상 속에서 조금씩 준비를 해왔고... 부족한 부분은 미국에가서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ㅋㅋ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아요. 짐만 싸면 되니까 뭐 -- --

늘 떠나기 전날 밤을 새고 새벽에 라디오를 들으며 짐을 싸게 되네요. 거참... 뭐가 그리 바쁜건지~

이번 여행은 3개월정도면 끝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여행이라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정말 기대가 되요.

2009년 유럽종단 마라톤에서 인연을 맺은 라이너와 피터 두 사람이 올해 미국횡단을하기로 했다면서 작년에 연락이 왔었어요. 서포터로 같이 해보지 않겠냐면서~ ^^ 이렇게 좋은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프리랜서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거 아니겠어요 ㅎㅎㅎ

"언제든 원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

제가 싱글이라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거겠죠- 그렇다고 싱글예찬하는 사람은 아니어요 ~ ㅎ

그럼, 베니가 어떤 사람들과 70일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부터 뉴욕까지 4,500km나 되는 거리를 횡단하느냐!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우리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ㅎㅎ

**류준** - 서포터 / 웹디자이너 / 33살(국제나이조 ㅎㅎ)  
경력은 2006년 사하라사막 마라톤 포토그래퍼, 2009년 유럽종단마라톤 서포터  
마라톤경력은 12km 서울마라톤 2006년, 44km 완주~ 2009년에요 ㅎㅎ

**라이너 코흐** - 러너 / 30 / 독일 / 일렉트로니컬 엔지니어

울트라마라톤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라이너~ 2009년 유럽종단 마라톤 우승자예요 ㅎㅎㅎ  
이번에도 우승하면 완전 대박! 이 세계에서 적수가 없을 듯? ㅋㅋ

**피터 바텔** - 러너 / 69 / 독일 / 펜서너..(이게 먼저 잘 모르겠네요 ^^)

피터는 젊을 땐 마라톤을 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달리는 대신 킥바이크(아래 사진참조) 를  
타고 대회에 참가하세요. 2009년에도 무사히 유럽종단을 하셨구 내년에도 또 도전하신다는데...  
올해 미국에서도 무사히 완주하면 좋겠네요!

That's us:

**June Ryu:**  
Function: Supporter  
Age: 33  
Nationality: South Korean  
City: Kyeonggido, Yongin / South Korea  
Profession: Web designer  
Races took place at supporter:  
Marathon de Sable MDS in 2006, TEFR 2009  
[Webside](#)

**Rainer Koch:**  
Function: Runner  
Age: 30  
Nationality: German  
City: Dettelbach / Germany  
Profession: Electrical Engineer  
Running career : Spreelauf 2001, La Transe Gaule 2002, Deutschlandlauf 2005, Trans-Europe Footrace 2009, Spartathlon 2000 & 2008, Nove Colli 2001, Olympian Race 2004, 3 x 100mile, 15 x 100km, more than 100 Ultras, Personal best Marathon 2:39:28, 100km 7:05:24, 24h 220,094 km  
<http://www.ultrako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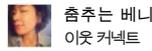
**Peter Bartel:**  
Function: Kickbiker  
Age: 69  
Nationality: German  
City: Berlin / Germany  
Profession: Pensioner  
Running career : Spartathlon , 204,121 km in 24 h, 100 km at 8:52:22 h, Marathon at 2:56:52 h  
Treadmill: 24 h, 7 Tage, 1000 km  
Kickboard: Brunswick-Berlin, Berlin-Baltic Sea, Trans-Europe Footrace 2009  
[Webside](#)

Photo: J.Straub at TEFR

Photo: J.Straub at TEFR

Photo: J.Straub at TEFR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1 / 1318

춤는 ..남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Fans: 116



4,500km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오시져?

그래서 준비했지요~ 구글맵~



Check at Google-Maps

1,318  
1,353,578

미국의 서부도시 LA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계속 전진~ 뉴욕까지 70일간 달리는거예요.  
정말 크레이지한 대회죠?

미국횡단하면서 어떤일이 생길지... 음 ㅎㅎㅎ  
중간에 사막도 건널테고, 혹시 토네이도가 불어올지도 몰라요 @@  
그래도 우리는 잘 견뎌낼 거라고 믿습니다.

라이너가 만든 페이스북 그룹에 정보가 업뎃될거예요 ^^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137956112940931](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137956112940931)

대회홈페이지 <http://www.lanyfootrace.com/>

무튼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라이너와 피터에게 감사하고  
무사히 책을 쓰고 떠날 수 있게 열심히 일했던 제 자신에게 고맙네요. 훗-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 블로그 이웃님들 사랑합니다 ^^



다녀올게요~~ ^^

블로그에 소식 올릴게요~  
계속 응원해주세요 :)

세계여행, iPhone\_4, 미국횡단

덧글 56 | 2인글 공감 10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BC카드 여행서비스 비씨투어**

미국가족여행, 해외여행 11%할인, VIP라운지 이용권 증정, 10% 청구할인.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모두투어온라인여행**

여행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 (49)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 이전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바일 추천 (49)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바일 추천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썸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복사

POWERBLOG  
By NAVER

저 LA도착했어요~

지금 친구네 집에서 샤워하고 저녁먹고 인터넷연결해서 글쓰고 있어요  
전 블로그홀릭이 맞는가봐요 -.- 아니 스마트폰홀릭인가~  
오늘 아이폰 심카드살때까지 인터넷 못해서 무지 상심했거든요 ㅋㅋㅋ

아시아나타고 11시간 동안 날아왔는데, 시간 금방가대요 @@  
기내식은 베지테리안으로 미리 예약해뒀서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전 락토오보로해서 계란이랑 치즈가 나오네요 ^^  
취향 것 골라드시면 될 것같아요~ 표 표 사진촬영하면서 왠지모를 뿌듯함이란. ㅋ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Empty text box]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아시아나 베지테리안 기내식(for 락토오보)

식물성버터에 바게트빵. 버터가 짹짹해서 오히려 맛있었어요 ㅎㅎ  
베지터블라자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크림미했어요~ 치즈가 듬뿍들었더만요~  
두툽한 호박이 들어가구 토마토도 많이들어가서 좋았답니다

아시아나 타시고 여행가는 분들 참고하세요 ^^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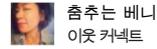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국

1/ 1318

춤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18

1,353,578

공항에 도착해서 연락한 아이폰 심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맘에드는 플랜이 없어서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이 때부터 고생시작 ㅋㅋ

LAX 인터네셔널 공항에서 'C'셔틀버스타고 Bust Transit Center에 도착한 다음에 목적지인 Venice Beach로 가는 3번 버스를 타는 것 까지 좋았죠-

심카드를 안사서 일단 전화가 안되니, 인터넷도 못쓰고 친구한테 연락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 이 때부터 베니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ㅋㅋㅋ

버스를 한 번갈아타야 했는데, 다음에 몇번버스를 타야하나... 또 AT&T심카드는 어디가서 사느냐!!! 우리나라처럼 길가에 핸드폰샵이 줄을 서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야할지 감이 안와서 주유소 미니샵으로 들어갔어요. 외국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상점이나 미니샵같은데가서 길물어보는게 짤 좋더라구요 ^^

주인아저씨가 참엔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듯했으나... 자기 가게에서 심카드 안산다고 하니가 태도가 좀 ㅋㅋ 암튼 끈질기게 질문을 해대다가 친절한 여자분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었어요 ~

처음보는 사람한테 몇 시간씩 들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 전 덕분에 편하게 자동차 타고다니며 일처리했어요-

AT&T에서는 제가 바라던 75\$로 한달간 데이터200MB 사용하는 플랜이 없어졌대요 ㅜㅜ 그리하여. 다시 T모바일로 가서 50\$짜리 로컬콜, 텍스트메세지, 데이터 언리미티드 플랜을 했어요~ 오히려 더 좋음 아이폰으로 인터넷 이제 무제한으로 써요 @@ 한국에서도 못하던거 미국왔다고 막 ㅎㅎ

미국에 장거리여행하시는 분들 심카드는 프리페이드 T 모바일 50\$ Monthly plan 써보세요 ^^

페이스북으로 인사만하고 처음만나는 친구네 집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ㅎㅎㅎ

겨우겨우 동네근처에 오고 심카드까지사서 전화를 했는데, 잘못된 번호 ㅜ\_ㅜ 헐~

심카드끼우고 다시 페이스북 접속! 친구가 보낸 메세지확인했더니, 바뀐 전번호 늦게 찾네요 -\_-;;; 어쨌거나 11시반에 LAX 국제공항에 도착하구 나서 3시 반에 통화성공! 휴~ 하루가 길다 길어 ㅎㅎ

하지만, 이렇게 길을 헤매고나니 절 도와줬던 니키와 제시카랑 너무 가까워진거예요 ^^  
여행이랑 하는 일들 미국횡단마라톤에 대해 수다떨다보니 말도 잘통하고 하고 싶은 일도 비슷한거 있죠~

LA에서 급 시스터결성했어요 @-@ 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 LA에 대한 인상이 격상했어요 ~  
이 두 분에 대한 애긴 나중에 꼭 할 기회가 있을거예요. 우연히 만났지만 참 이렇게 인연이 되는구나 싶은 ~  
아주 익사이팅한 하루를 보냈고 또 지금도 진행중이에여 으아~



Venice Beach에 가까운 곳이 친구네 집이에요. 정말 예쁘죠?  
요기 2층에서 글쓰고 있어요 right now~  
딸 4을 키우는 싱글맘인 소치는 멕시코이고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는 멋진 여성이에요 ^^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통큰여자? @@  
이래서 여행을 하면 할 수록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



LA는 오늘 굉장히 쌀쌀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차갑고 축축했는데, 데이지는 참 잘 뛰어노네요 ~ ㅎㅎ  
우리 하진이랑 동갑이러는데, 얼굴이 너무 작고 이쁘고 ㅎㅎㅎ

하진이 사진을 보여 줬더니 까르르 웃으며 ~ 좋아하더라구요. 막 연결시켜주구 싶어서요 ㅜㅜ

베니를 응원해주세요 ^^

세계여행, LA, 캘리포니아, 미국횡단, 패식기내식, 아이폰심카드, T모바일

덧글 49    엮인글 공감 7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다국적배낭여행 인트레피드

인트레피드 한국사무소, 소규모 다국적 배낭여행, 전세계 최대 50%할인.

소문난곳 감동의 LA천사투어

주 정부승인 la, 서부관광, 가족여행, la 공항픽업

심카드 No.1 심카페

심카드 전문쇼핑몰, 해외여행, 출장, 유학생 필수, 로밍보다 90%이상 저렴!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 (49)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 이전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바일 추천 (49)
-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시간이 황황 잘도 지나가네요~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벌써 LA도착한지 3일째... 어제는 공항으로 라이너를 픽업갔구, 오늘은 피터를 픽업하러 갔었어요.

피터가 도착하기 전에 라이너랑 저는 비버리힐즈로 가서 좀 걸었다녔죠. ㅋㅋ 11km정도 걸었는데, 아우~ 올만에 걸으려니 정말 피곤하네요~ @@ 아마 중간에 커피안마셨음 그냥 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

비버리힐즈 ! 연예인구경할수 있을까 했지만 동네에는 사람구경하기도 힘들었구요. 그냥 청소부나 가드너 등만 볼 수 있더라구요. 마을이 정말 조용하더라구요~

멋지고 크고 으리으리한 집들을 수 없이 봤네요 !! 눈이 높아졌달까 ㅎㅎㅎ 근데, 영화같이 느껴질 뿐 현실감은 전혀 안오더라구요. 내가 살 곳이 아니라 그런가 ^^

비버리힐즈 쇼핑거리는 유명한 브랜드가 많던데, 아는 건 몇개 정도 ? 화려한 손님들도 많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category ^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사진 많이 찍었지만, 몇 장만 올려요 :) 구경하세영~



ajirim Africa (6)

베니스의 일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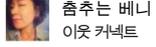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스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1 /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스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Create your badge

베니스의 채식카페 facebook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18

1,353,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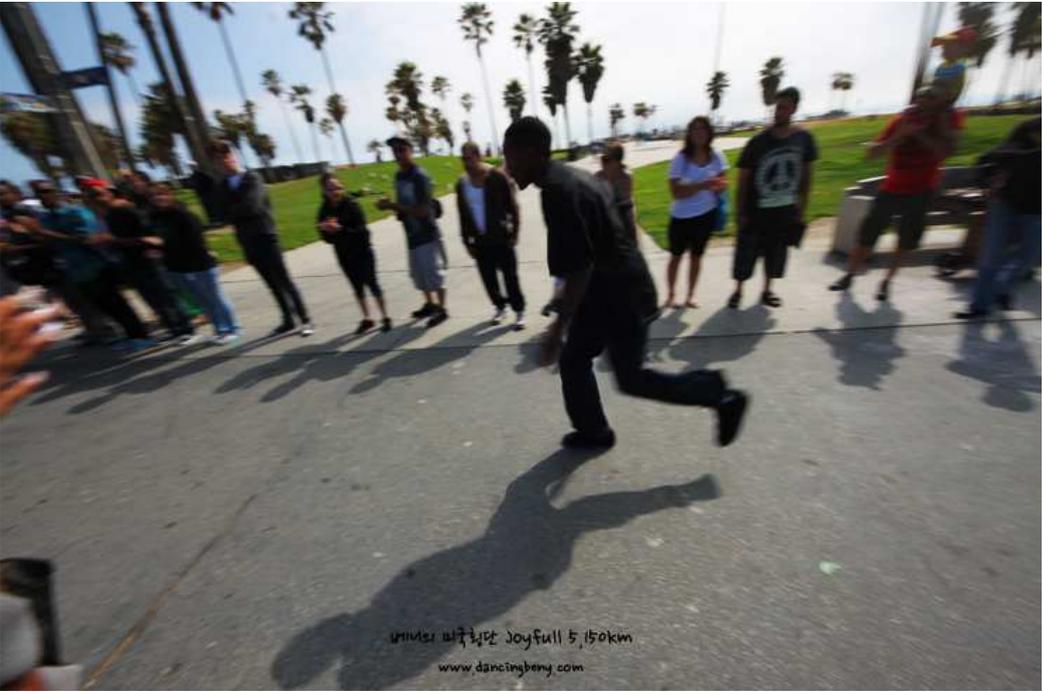




삼일만에 LA에 처음으로 해가 떴어요.

좀 추워서 오들오들거리다가 햇빛이 나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베니스비치를 좀 걸어다녔어요.  
어제는 나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래 못있었는데~ 오늘은 날이 좋으니 관광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전 지금 Huntington Beach에 있습니다 ^^

베니스비치에서 집을 빌려주었던 소치가 헌팅턴비치까지 왔어요. 함께 저녁먹으려구 ~ 그래서 멕시칸레스토랑에 갔답니다. 소치(멕시칸)가 권해주는 메뉴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호차타(Horchata)라는 음료는 쌀을 불렀다가 시나몬가루를 넣고 함께 갈아서 만든 음료예요  
굉장히 달달해요~ 설탕이 좀 들어갔나봐요 음흠 -



그리고 저를 위해 골라준 메뉴는 마늘소스에 흠뻑 젖은 구운 새우요리~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아무래도 외식할 때는 샐러드랑 새우정도로 해결해야 할 것같네요 ㅎㅎㅎ  
 사진속의 멕시칸 라이스는 정말 맛있어요 -.-  
 갈색의 소스는 팔이예요 @@ 위에 치즈가 듬뿍 뿌려져있네요 ~

내일 대회미팅이 있고, 저녁에는 화요일에 잘 많이 도와준 니키와 제시카랑 저녁먹기로 했어요~

여기는 지금 11시가 넘어가요. 얼른 씻고 자야겠어요.

내일도 할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

모두들 굿나잇~

베니를 응원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세계여행,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베니스비치, 멕시칸푸드

덧글 11 역인글 공감 7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베니스비치**

베니스비치, 온라인쇼핑, 매일 초특가 이벤트, 노을선세일, 오늘만 특가상품 추천.

**비버리힐즈직영화 허니문듀**

비버리힐즈현지직영, 조기예약 대박할인, 신부50%할인, 실속있는 사은품.

**베니스추천 마투여행**

마리오만의 이탈리아여행정보, 로마, 바티칸, 남부투어, 맞춤투어, 전문가이드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 (49)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 이전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바일 추천 (49)

[베니의 미국횡단] 70일 행복한4,500km 미국여행 (56)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모든 준비 완료!

먹을 것, 입을 것, 레이스에 필요한 것 등등 다 이 차에 싣고서 우리는 떠날거예요 ^^  
여러분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해주실거죠?



베니의 미국횡단 Joyfull 5,500km  
www.dancingbeni.com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여기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많은 즐거운 경험, 힘들고 다치는 일들, 싸우는 일들 그리고 길을 잃기도 할거구 많은 불협화음이 빚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가장 어린 참가선수 라이너 코흐(Rainer Koch 30, Technical Engineer, Germany)



가장 연장자인 피터 바텔(Peter Bartel, 69, German)

이제 모든 것은 하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무사한 여행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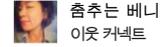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지구를 사랑하고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잊고 모두 함께 달려요.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에브리북  
DONNA LIVING

1,317

1,353,577

많은 응원해주세요! ^^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울트라마라톤

덧글 8 역인글 공감 6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램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미국횡단] 여기는 LA Venice Beach입니다 ^^ / 미국여행 아이폰 심카드 T모.. (49)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까호~ 오늘은 새벽 3시 반에 기상!!!  
 5시 반에 레이스가 시작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_= 완전 비몽사몽  
 한국에서는 3시 넘어서 자던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려다 보니 몸이 말을 잘 안듣네요 ㅋㅋㅋ  
 맨날 라이너가 깨워줘야 일어나요 @.@ ㅎㅎ  
 늦게까지 블로그하다 자서 그런가봐여 -0-;  
 그래도 일기는 써야죠  
 부지런하게도 라이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더라구요... 갠 잠도 없어 --

어쨌든, 드디어 LANY 2011 이 시작되었습니다 ^^  
5:30에 요이~땅! 하면 모두 함께 달리는거예요.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국

1 / 1318

춤추는 ..남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네니의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enj.com

1,317

1,353,577

그 전에 사진촬영 하구~~~ 찰칵 찰칵!

떠나기 몇 일 전에 부랴부랴 만든 플랜카드를 한 장 깔았더니,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ㅋㅋㅋ  
그런데 제가 마일->킬로미터로 바꾸면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구 거리가 확 줄어든거예요.  
다들 농담하는데, 듣는 저는 참 가슴이 아파와요 ㅜ\_ㅜ ㅋ



네니의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enj.com

머 어쨌든 오늘은 첫날이라 평균적인 길이 74KM를 뛰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면 몇 시간이나 걸릴것 같으세요?

우리 라이너는 보통 시속 12km 로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1등 했습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7시간 정도걸렸네요. 호오~  
그리고 바로 피터가 들어왔어요. 킥바이크를 타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오는 편이지만,  
오늘 약간 길을 헤매서가지구 라이너 바로 뒤에 들어왔어요.

6-8 km마다 제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음료를 준비해주는데요.... 오늘 중간에 길을 한 번 헤매는 바람에 완전 ㅜ\_ㅜ 하이웨이에 잘못들어갔다 뱅글뱅글돌구~ 막 동서남북 헛갈려가지고 ...- 땀배질 흘렸습니다 ㅋㅋㅋㅋ

라이너가 자꾸 놀리고 ...- 예허~



네이버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ony.com

어쨌든 제 일과가 궁금하시죠?

서포터가 하는 일은 좀 주관적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은 레이스 도중 음료와 음식을 제공해주고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가 틈틈히 사진찍고,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 요런건 원래 제 일상적인 생활이라 별로 일 같지는 않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들 엄청 배고파 하기 때문에 먹는 걸 챙겨주는 일이에요.



네이버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ony.com

러너들은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해요 ㅎ

셰이크만들어 주려고 블렌더도 생전 처음 사봤습니다 ㅋㅋㅋ 오늘은 딸기바나나셰이크!



큰 컵으로 두 잔 나오고 조금 더 남았어요 @@ 우어~  
다들 잘 먹어서 기분 좋게 고고



매일 외식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밥을 해먹자고 했어요.  
맨날 피자나 타코 같은거 먹고싶지 않아서 ㅜㅜ 현미밥이 넘 그리웠어여



아시아푸드 섹션이 준비 되어 있는 마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월마트에 가서야 겨우 찾아낸 브라운라이스 미디엄사이즈 T T

라이스쿠커가 정말 싸더라구요! 14달러주고 샀어요 ㅎㅎㅎ 2-3인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밥도 아주 잘됩니다 :) 대 만족

문제는... 두 사람이 이걸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건데. ㅋ



집에서 만든 간단하지만 위대한 밥상~ 치킨은 슈퍼에서 사온거구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손질...  
안드는 칼로 자른다고 애썼어요. ㅋㅋ 브로콜리는 라이스쿠커에 데치고.. 낮에는 라면도 끓여줬어요



아.. 드디어 현미밥을 ㅜ\_ㅜ 아 감개무량하여라...

현미없이 여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구요. 물론 없이 여행가능하지만... 맨날 빵만먹기 싫어요 :)

밥그릇 옆에 보이는 발사믹식초!!! 1달러 샵에서 샀어요 ㅋㅋㅋ 아니 이런! 한국에서 먹던 비싼 발사믹식초에 비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막 신나서 샀지 뭐예요 :)

다행히도, 라이너, 피터 모두 현미밥 잘먹어서 고맙고 즐겁게 식사했어요. 우히히



아니 근데, 잘 시간 다 되서 아스크림 먹자고 그러냐고 ㅎㅎㅎ  
셋이서 밥그릇에 초코 아이스크림 가득 담아서 먹었어요.

사실 피터가 초콜릿을 좋아해서가지고... 물론 저도 초코아이스크림 좋아하지만 ^^  
밤에는 안먹으려고 노력중인데, 뭐 여기선 대세에 따르렵니다. :)  
스트레스 없이 즐기려고 왔으니깐여~ 서로 노력하면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피터는 영어를 잘 못해서서.. 저도 잘 못하는데 둘이 가끔 말이 안통해서 서로 탄말해요. 지금도 그런상황? ㅎㅎ  
라이너는 강 웃기만하고~ 뭐 그럼 어떠랴~ 그냥 같이 웃고 떠들면 그만이죠-

이렇게 먹고나서 두 사람은 꿈나라로~ 저는 컴앞으로. 뽕뽕

아.. 나도 내일 5km는 뛰어야 할 것 같은데.. ㅎㅎ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내륙으로 들어갈 수록 그럴텐데~ 벌써 팔다리가 까무잡잡해지고 있어요.

그럼 내일 또 봐요 ^^

세계여행, 미국횡단, 미국여행, 울트라마라톤, LANY2011

덧글 16 역인글 공감 5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탬프.

**G마켓 밥**

밥, 가공식품, 라면, 빵, 과자, 음료수, 통조림, 새로운 장보기 습관.

**모두투어온라인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 [미국횡단] 비버리힐즈 11km 워킹 & 베니스비치 (11)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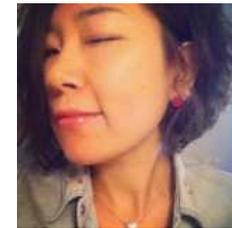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1 2 3 4 5 6 7

5줄 보기



쫄쫄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어제는 그래도 평지를 달려서 다소 쉬운?편이었어요. 오늘은... 계속 고지대로 올라와서 참 힘들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도 8시 되기전부터 폭풍 찌더라구요. 헉헉

운전하며 따라가는 저도 더워서 힘들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러너들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 이 순간에는 그저 so happy that I'm not a runner !!! 이 소리가 막 나오죠 ㅎㅎ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Search input field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선수들이 출발하고 나면 서포터차량은 곧 바로 뒤를 따라갑니다.  
저는... 다른 선수들이나 서포터들과 잡담할 겨를 없이 바로 나가야 해요. 피터, 라이너 두 사람 모두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먼저 앞질러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출발 전에는 항상 로드북을 펼치고 아이폰으로 구글맵을 확인하면서 가요.  
계속 길이 바뀌기 때문에 몇 번씩 체크를 해도 중간에 꼭 길을 잃어버리네요.... 에허

오늘도 고속도로 들어갔다가 또 -- -- -- 빙그르르르--  
로드북이 종종 틀려서 그랬지만, 한 번 길 잘못들고 나면 엄청 스트레스받거든요 ㅋㅋ  
혼자 유랑중이면 길 잘못들어도 불루랄라 하겠지만, 약속한 포인트에서 제 시간에 서포터 차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더운 날 피터, 라이너는 음료, 스낵 등 에너지 충전을 못하고 5~10km를 더 달려야 하기 때문에 선수에게 너무 미안해지거든요.



- 여행(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국

1 /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16

1,353,576



머 어쨌든, 라이너는 자주 멈춰서 콜라랑 올리브를 먹어야 하고, 다행히 피터는 음료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두어 번 채워주기만 하면 되요. 중간중간 잘 가고 있는지 필요하게 있는지 체크해주면 됩니당

그리고 두 사람 다 선두그룹이라, 이동거리가 짧아서 좋아요. 느린 선수의 서포터일 경우 이렇게 더운날 .. 앞으로 사막에 갈텐데 그런데서 하루종일 길위에 있어야 한다면 서포터도 정말 힘들어 질거예요 ~ 그게 아니라 천만 다행.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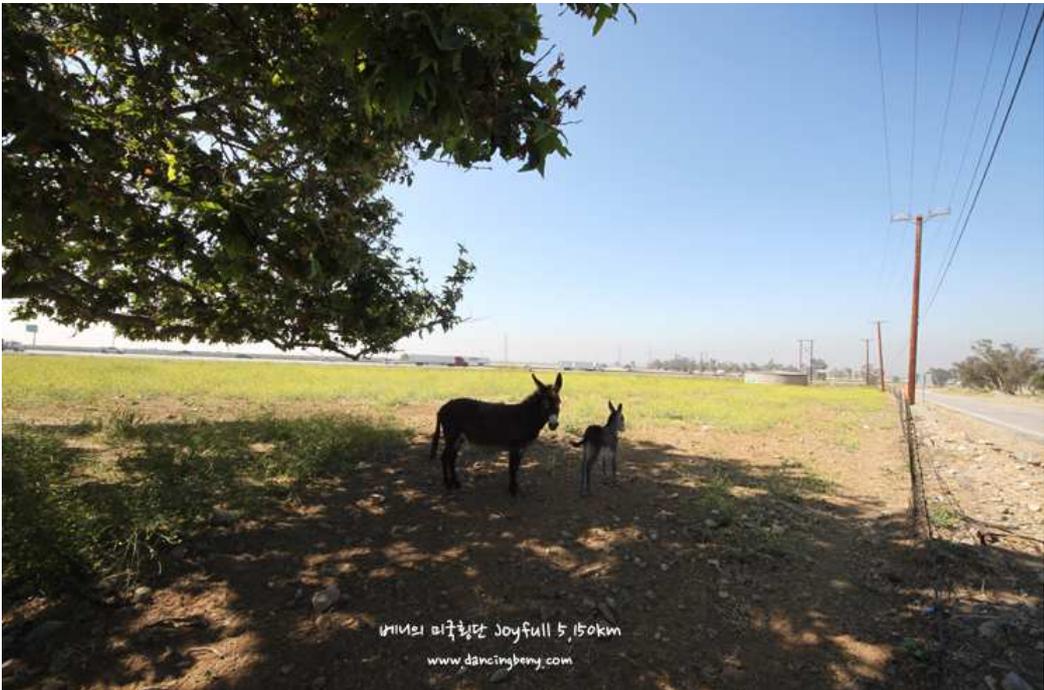
아, 오늘 뱀을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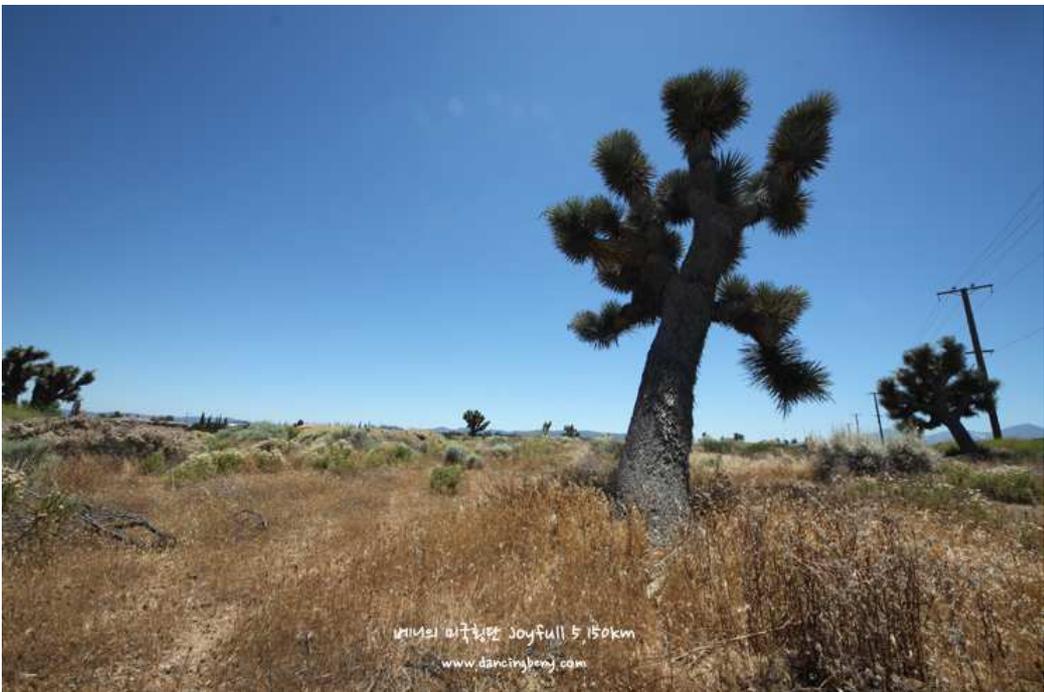
라이너가 뛰어가다 말고 사진을 찍길래 뭔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길~ 쪽한 뱀이 도로 옆에서 허를 날름날름~ 거리고 있네요.

지나가던 주최측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사진찍었어요.

아리조나 가면 뱀이 흔하다는데. 무지기대되요. 아나콘다 급 거물들을 볼 수 있으려나?





오늘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풍경을 맘껏 구경하며 달렸어요.

미국이 크긴 크다는 걸 길에서 자주 리마인드 합니다.

도로도 넓적넓적, 나무들도 길쭉하니 크고. 한국에서 보던 꽃이나 식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해요.



오늘은 차량으로 들어 갈 수 없는 트레일로 선수들이 뛰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들어간 다음 트레일이 끝나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선수들이 언제 오려나 혼자 걸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고요하면서도 소중한 순간들이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되고, 오늘은 무얼 먹어야겠다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매일 속옷, 양말은 빨아입지만, 겉옷은 세탁하기 힘들어서 한 방에 해결해여.  
유럽대회 때는 빨래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모텔에서 자니까 욕조가 있어, 빨래하기 수월해졌어용 ㅋㅋ

한 번에 다 집어 넣고 손으로 북북북~~ 깨끗하게 짱~ 짱 하게 빨아서 물을 주욱~ 짜구요.  
기분 좋은 소리로, 빨래 끝!



햇빛이 강할 때 얼른 널어 빨리 마르겠져~

오늘은 어디 널어 둘 곳이 없어서 뜨끈한 밴 위에 널어 버렸어요.  
저녁먹고 걸으러 가니까 다 ~ 말라 있네요 ㅎㅎㅎ

여행 하실 때 요런 방법으로 빨래 말려보세여 ^^  
사하라 사막에서는 한 시간만에 말라 버리던데, 햇빛이 강한 미국은 그래도 몇 시간 걸리네요 :)

전, 이제 자러갑니다. 지금 11시가 넘었어요 !!  
내일도 3시간에 일어나려면! 헉 넘 늦었네... 잉~~

굿나잇~

세계여행, 미국횡단, 울트라마라톤, 크레이지피플

덧글 10 | 역인글 공감 7

[구독하기](#) [복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G마켓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용품, 스포츠양말, 마라톤배낭, 마라톤복, 무릎보호대, G스탬프.

**옥션 울트라마라톤**

울트라마라톤, 스포츠, 레저용품 특가, 브랜드할인, 누구나100%쿠폰지급.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 [미국횡단] 드디어 LANY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 (8)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1 2 3 4 5 6 7



쑤쑤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으앗~ 너무 반가워요 ㅎㅎㅎ

3일동안 인터넷에 접속을 못해서 병나는 줄 알았습니다 -- 히유~ 한국에서 연락을 것도 있고 책원고 수정할 것도 있는데, 메일도 체크 못하고 전화도 안터지고!!! 아주 답답했어요-

그 동안 모하비 사막을 지나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그야말로 찜통에서 찌지는 것 같았거든요 -- 화씨110도(47도정도 될거예요)까지 막 올라가는 온도계를 보면서, 레이스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 미쳤어!! 소리를 질러댔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생각이 막 들것 같아요.

정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 라이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데, 아는 분 계심 알려주세요!!!

사막을 건너며 저한테도 라이너한테도 힘든일이 많았는데요, 스토리가 길어서 다음기회로 미물계영-

오늘은 짧게 하고 자러가야해요. 2시반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지금 9시가 다되어가는데!!!! 라이너가 빨리자라고 벌써 몇 번이나 재촉하는지.. ㅋㅋ

얌튼. 바그다드 카페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 힘

전 잘 몰랐는데, Route66이 미국횡단 여행루트로 유명한가봐요. Historic Route란 명칭도 있고 Mother of the road란 닉네임도 붙어있더라고요~ 여행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영화 바그다드카페>에 무대였던 Bagdad Cafe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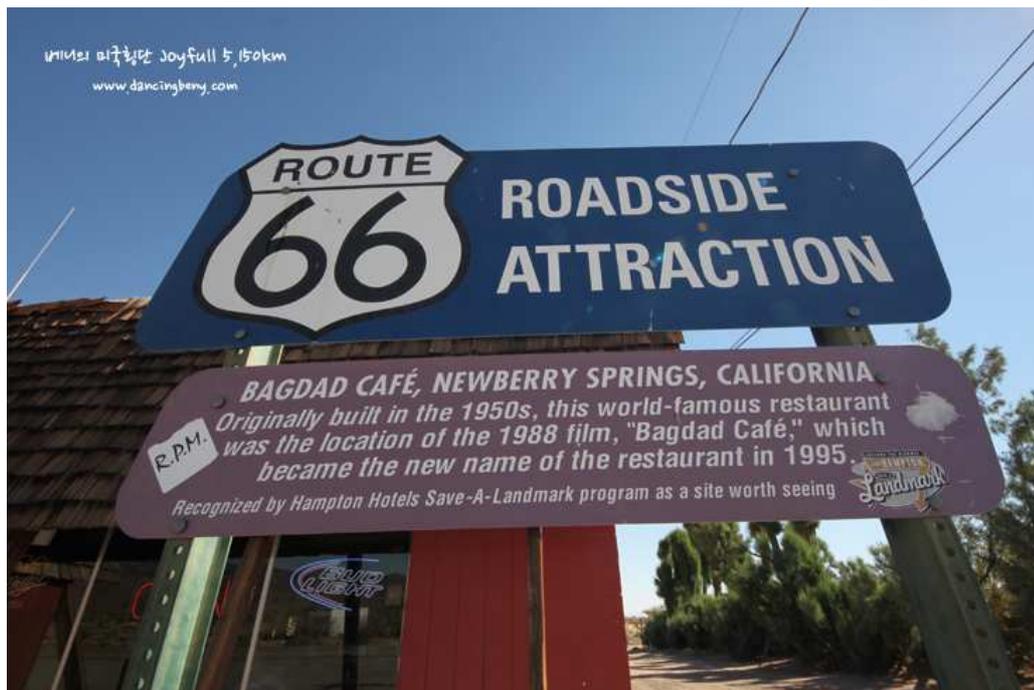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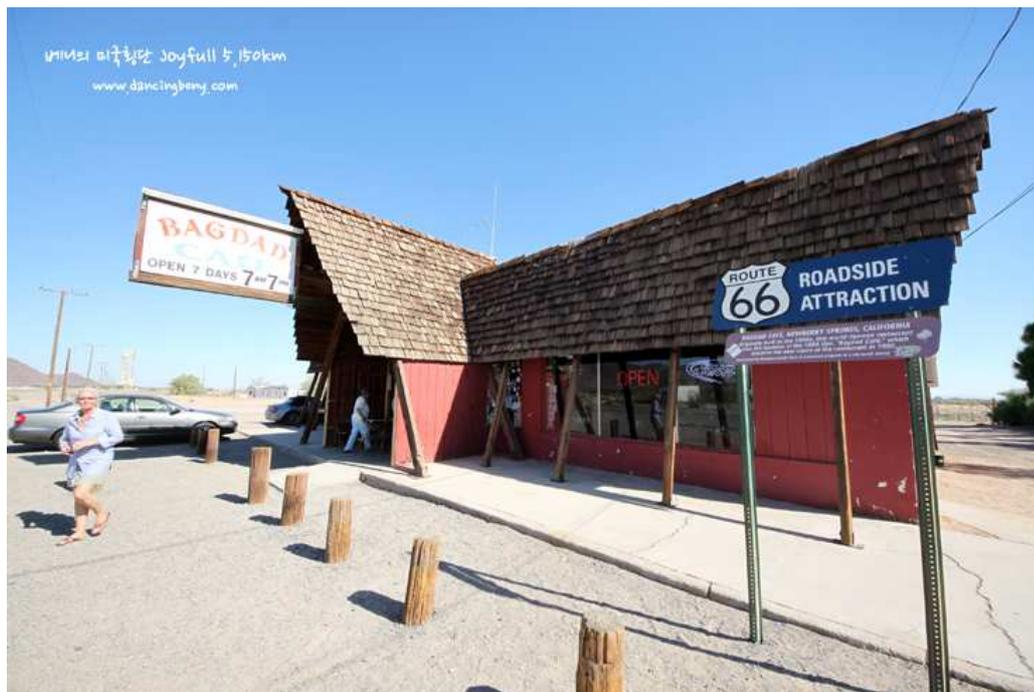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아주 운이 좋았죠 ㅎㅎㅎ



1950년대에 생긴 바그다드카페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1988년에 영화"바그다드카페"의 장소가 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1995년에 카페이름을 아예 바그다드카페로 바꿨다네요~

겨울연가가 인기가 많아져서 남이섬이 더 유명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

이 영화 좋아하는 분들 꽤 있던데, 전 못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검색해보고 싶지만, 이 모델 인터넷이 언제 끊길지 몰라서 그냥 블로그 포스팅만 부지런히 하렵니다.

- agga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  [편아일런](#)
-  [WAKA](#)
-  [건축](#)

1 / 1318

[춤는 베니](#)님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 6 참여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15

1,353,575

LANY 대회 주최자들이예요.  
 왼쪽이 데이빗이고, 오른쪽... 발음이 어려워서 당체 외워지질 않네요 ㅜㅜ

프랑스팀이 주최측인데... 재미있는 건 이 대회에 미국인들이 별로 참가 안한다는 거예요 ㅋㅋ

이번에도 미국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유럽사람들 그리고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은 저 하나예요!  
 아 그러고 보니 여자선수는 딱 한명이네요. 네덜란드의 제니!

그런데 아쉽게도 ㅜㅜ  
 모하비 사막을 건너며 이틀 전에... 탈락했어요 어흑~

날이 너무 더우니까 벌써 6명 탈락하구.. 이제 10명 남았어요. 음...

일본인 서포터들은 두 명이나 달이나서 쓰러졌어요.

전... 아직 살아있어요! 다행히도 :)



바그다드 카페 안은 어떨지 참 궁금했는데, 의외로 평범해서 좀 실망 ㅎㅎㅎ



그런데 벽에는 세계에서 구경 온 관광객들의 메모가 가득가득 !!!

너무 빼곡히 메모지들이 붙어 있어서 전 포스트잇 하나 붙일 엄두도 안나더라고요. ^^  
바빠서 사진만 몇 장 찍고 바로 나왔어요.

가스 충전도 해주고 피터와 라이너 둘 다 서포트 하려니 정신 없이 하루를 보낸답니다.



레이스 도중에는 음식을 먹기 힘들어서 주로 물이나 주스, 과일이나 견과류 등으로 배를 채워요.  
한 낮이 되면.. 온도가 막 40도에서 47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땀 아이스커피가 심하게 땡겨요 ㄱ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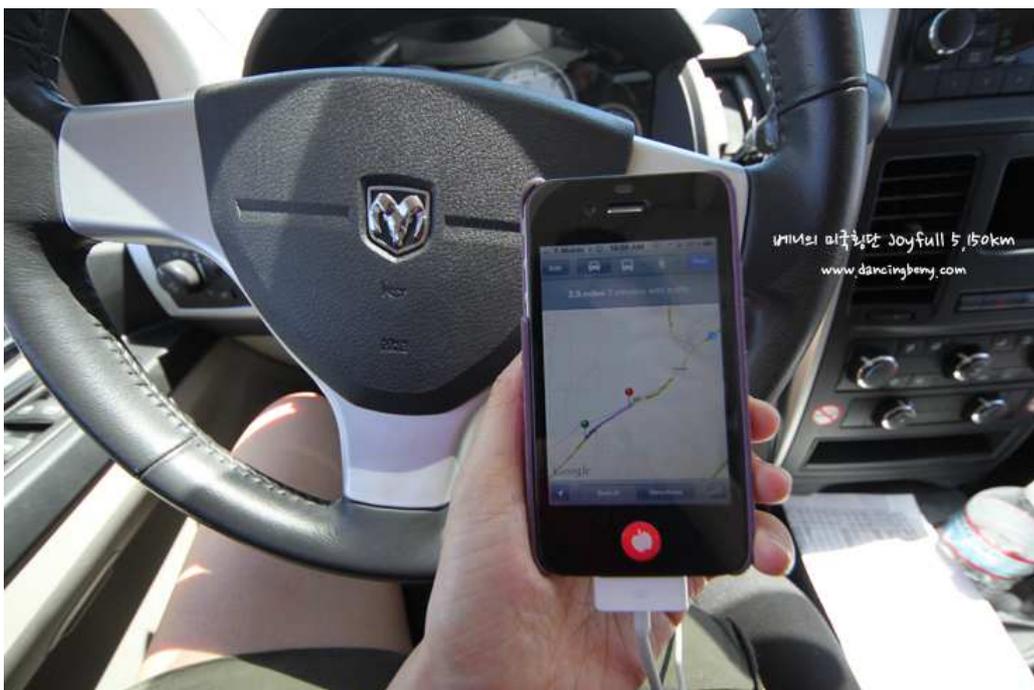
전 스타벅스 팬이 아닌데... 여기선 스타벅스커피가 절 살려주네요. @@  
하워드슬츠(스타벅스 회장 이름 맞죠?) 참 돈 많이 벌었겠어요.  
@@ 한국에서 편의점마다 스타벅스 커피가 깔려있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장난아님 ㅋㅋㅋ 다 마시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포포포



하~ 요건 다른 날 먹은 건데!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로 천국을 오가는 기분!! 아실랑가요? ㅎㅎㅎ



차에 네비게이션(Best Buy에서 TomTom 제품으로 샀어요)을 달아놓긴 했지만, 주로 아이폰으로 구글맵쓰고 있어요.

LA에서도 혼자 길찾아 걸어다닐 때도 유용했는데, 운전하면서도 아주 자~알 쓰구 있습니다.  
아이폰 없었으면...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  
스티브 잡스한테 막 고마워집니다.

아, 차에서 바로 충전해서 쓰고 있어서 배터리 걱정 안해도 되고 좋아요!

렌탈카는 DODGE 미니밴이에요.  
원래 흰색차가 아니었는데, 처음에 빌린 차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LA에서 지금 차로 바꿨어요.

렌탈회사는 National Car입니다. LA공항에서 픽업했고 뉴욕공항에서 반납할거예요.



저 건강해 보이죠?

더위와 싸우며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밥도 너무 잘 먹고 있고, 피부트러블도 없어요 신기하게 ㅋㅋㅋ

감기는 다 나았고, 아프지 않으려고(제가 병나면 안되니까) 멀티비타민까지 샀어요.

몇일 전 사진이라 좀 하해요. ;)

그럼 또 소식전할게요!

See you soon~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덧글 28 역인글 1 공감 16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11번가 route66**

route66, 해외브랜드, 스포츠, 레저용품, OK캐쉬백 적립 혜택.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츄츄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지난 토요일 ㅎㅎ  
 깜빡하고 있다가 누가 생일이래서 기억나씨요!  
 앗튼 케익이랑 샴페인 먹었답니다  
 미역국은 못먹었죠 ㅋ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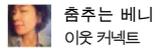


모하비사막을 지나왔는데 어찌나 더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사하라사막보다는 온도가 좀 낮은 편인데, 그늘에 들어가도(찾을 수 있다면) 온도가 떨어지질 않네요. 사하라는 그래도 그늘밀을 찾아들어가면 굉장히 선선했는데... 높을 땀 화씨110까지 올라가니 러너들에겐 정말 불에 달궈지는 지옥에서 달리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저도 그 뜨거운곳을 잘 통과하고 살아있는게 정말 신기해요 ㅎㅎㅎ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국

1/ 1318

춤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13

1,353,573

아이폰으로 볼 땐 몰랐는데, 컴으로 접속해보니 사진퀄리티가 ㅋㅋㅋ  
실내에서 찍은데다가 사이즈 줄인다고 인스타그램 필터썼더니 이모양이네요!



라이너 피터랑은 2009년 유럽종단마라톤때 만났어요.

그 때도 노르웨이에서 핀란드로 넘어가는 날 생일을 맞아서 라이너가 파운드케익을 선물해줬는데 올해엔 정말정말 킹왕짱 단 케익. 거기다 귀여운 풍선까지. 고마워!  
샴페인은 피터가 ^^



레이스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찰칵!!!



지금 그랜드캐년 근처지나고 있어요!

워낙 그랜드 캐년이 크다보니까 ㅎㅎㅎ 지나가는데도 몇일이 걸리네요.  
이틀 후에 직접 가볼 생각이예요 ^^

기대해주세요여! ㅇㅎㅎㅎ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모하비사막, 그랜드캐년

덧글 22 억인글 공감 8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라스베가스참존투어 현지여행사

그랜드캐년 경비행기 버스 헬기 전용차량  
투어. 한인가이드, 3대캐년 세도나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  
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 (38)
-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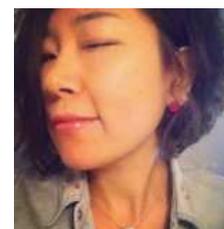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미국횡단] Day2 - 뱀을 만나면 반갑게 헬로우! 미국여행 중 빨래는 이렇게 (10)

[미국횡단] Day1 - 첫날은 가볍게 74km! 일등선수를 둔 서포터의 하루 (16)

1 2 3 4 5 6 7



츄츄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82km를 달리던 날이 있었어요. 몇일 짜인지 이제 카운팅하기 지쳐가요 ㅎㅎ 11시 이전에 자려고 애쓰고 2시반이나 3시반에 일어나요. !!!

한국에서 잠드는 시간에 일어나려니 무지 고생스러웠지만 잘 적응해가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연스럽게 12시전에 졸음이 막 쏟아지는거 있죠 ㅋㅋㅋ

하루에 먹는 양도 장난이 아닌데, 땀으로 쏟고 뛰어다니고 운전하구 서포터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꼬르륵~ 거리는거 있지어 ㅋㅋㅋ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몇 일동안 그 유명하다는 Historic Route 66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 LA부터 시카고 까지 쭉욱~ 이어지네요. 이 도로만 따라서 여행해도 미국횡단하게 되요 ^^

중간중간 선물가게가 많은데, 재미있는 곳이 참 많아요  
사진 진짜 마니 찍었는데, 언제 보여드리나 ㅎㅎㅎㅎ

인터넷이 될때 폭풍 업로드 해야해요! 오늘 같은날.  
영당이 맘날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저녁먹으로 가야해서 빠르게 타자치고 있어요  
오타나도 고치지 않고 패스!

스테이지가 80km가 넘는 날이 몇 일 되는데.. 앞으로 90km넘는 날도 와요 !! 으어..

얌튼 이런 날은 10시간 이상 도로위에 있어야 하죠 @@

라이너나 피터는 일찍오는 편이지만.. 다른 러너들은 하루종일 밖에서 달려야 하죠. 어후.... TT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카레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 편아일런
- WAKA
- 건국

1 /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베니의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eny.com

1,312  
1,353,572

바나나로 영양 보충 중인 피터  
머리엔 항상 시원하게 보관해 둔 물수건을 얹어 드려요.  
모자엔 얼음조각을 꼭 챙겨 넣어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저 ㅎㅎㅎ



베니의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eny.com

라이너가 힘들어 해요  
유러피안들에게 익숙치 않은 무더위... 거기다 사막위를 달린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체감온도는 급상승!!!  
물수건 3개도 모자라서 항상 얼음 주머니를 준비해야해요.  
더우면 콜라만 마시지 다른 음식은 먹지도 못해요. 위가 거부해서...



네이버 미국횡단 Joyfull 5,150km  
www.dancingbony.com

드디어 도착...

라이너는 맥주랑 콜라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ㅋㅋ



무지 행복해보이죠?

대부분 피터가 30분에서 1시간 먼저 들어와요.

킥바이크는 빠른 편이니까요~



자 라이너가 하루종일 마신 콜라가 몇 캔이나 되나 보세요 @@  
세어보니 28캔! 사실 몇 개는 버렸는데, 이 만큼 마셔도 배가 안나와요 헤헤헤!



저녁은 간단하게 누들이랑 샐러드!

쥬스는 오렌지랑 사과를 갈아서 생쥬스 만들었어요 :)  
꿀을 추가해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죠~



매일은 못해주고.. 가끔씩 다리 마사지 해줘요.

장거리(80km이상) 땀날엔.. 다리가 아마 너무 아플거예요.  
그래도 발을 보면 정말 너무 평범해서 놀랐어요 @@  
골은 살도 없고.. 그렇게 달리면 물집이 생기고 그러는데, 라이너는 natural born runner인가봐요.

가족 내력을 보면 절로 이해가 가지만... ㅎㅎ 부모님이 젊으실 때부터 마라톤 하셨고 지금도 가끔씩 하시고...  
라이너는 9살부터 워킹트레일을 시작해서 19살부터 본격적으로 마라톤 시작했으니까 뭐~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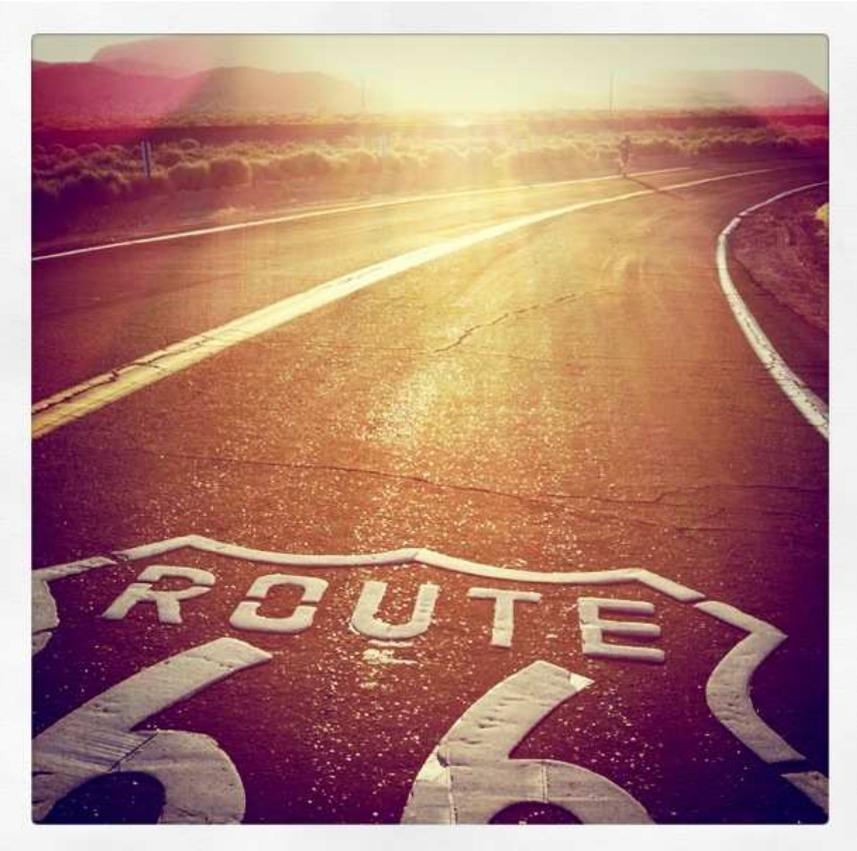
밤이 되서야 마지막 러너가 도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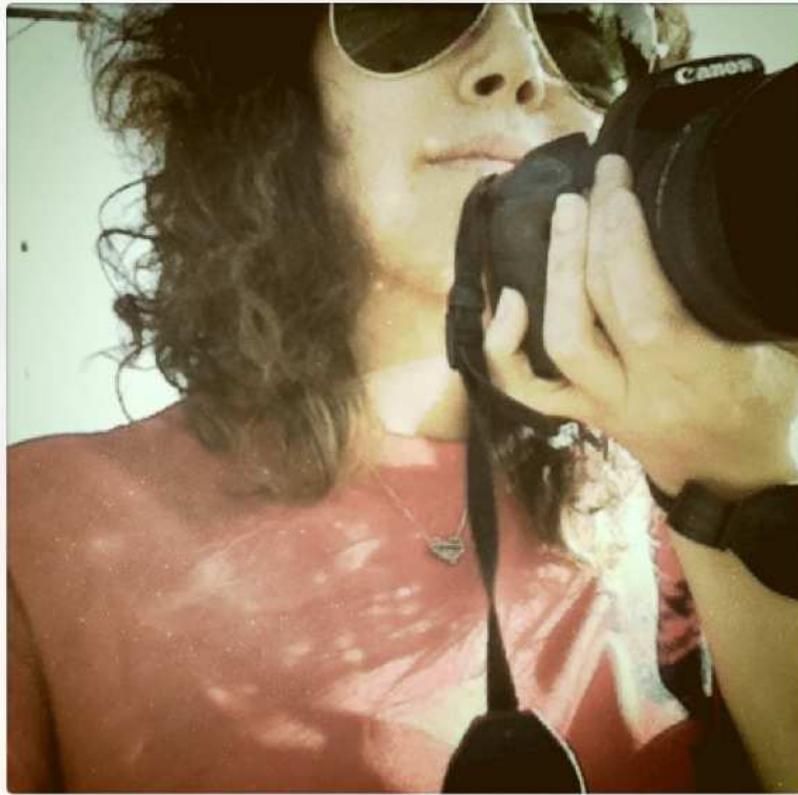
15시간 30분이 넘게 걸린 정말 장거리 레이스 ^^  
제가 44km 했을 때 8시간 반 걸렸으니까 친스플린 때문에 계속 걸어 왔을거예요.  
필 수가 없어요.

친스플린이란 건 장거리 마라톤할 때 자주 생기는 근육통증인데, 몇일 걸어야 없어지는 병?이예요.  
계속 달릴 경우 다리에 큰 무리가 가서 병원신세 지게 되고 급기야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되요.

지금 사진속의 프랑스 러너는 바바토인데, 이를 뒤에 결국 병원신세를 지고 레이스에서 탈락했어요.  
스테이지 러너로 남아서 뉴욕까지 같이 가긴 할거예요. 몇일 쉬고 다시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6월 28일 현재 6명 탈락했어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도 느낌이 괜찮죠? ^^

카메라 두 대로 사진찍느라 바쁘기도 해요 ㅋㅋㅋ

어제는 오른쪽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부분 근육이 너무 아팠어요. 밤새 마사지해서 좀 풀렸는데, 아무래도 사진을 너무 찍고? 콜라 캔을 너무 따서 그런것 같아요 ㅋㅋ

다른 곳은 모두 건강합니다.

어깨가 뭉쳤는데, 잘 풀리지 않아요!  
맨소래담이 최근데 -..-

또 소식 올릴게요!

장마 피해 없이 잘 넘기셨을 좋겠어요. 여름도 즐기시구 ^^

이웃님들 화이팅!

주인이 집을 비웠는데도, 찾아와서 댓글 남겨주고 응원해주셔서 넘 감사해여 ~^^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Route66

댓글 20    역인글    공감 12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11번가 route66**

route66, 해외브랜드, 스포츠, 레저용품, OK캐쉬백 적립 혜택.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 (38)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미국횡단] Route66 도로 위의 바그다드카페를 아시나요? (28)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25)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38)

5줄 보기

1 2 3 4 5 6 7



썸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POWERBLOG By NAVER

북사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for my foreign friends I'll use English sometimes

아... 전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요!  
내가 그랜드캐년을 따라 여행할 거라곤 상상해본적도 없었거든요-

말로만 들던 그 유명한 그랜드캐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사뭇 기대를 했지요.  
스테이지가 짧아서(그래도 50km는 뛰었지만 ㅎㅎㅎ) 라이너가 12시 전에 피니쉬라인에 도착!!  
샤워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글세!!!! 무슨 모텔이 3시부터 체크인인 된다는거예요 헬!!!

그래서 샤워고 점심이고 일단 그랜드캐년 빌리지로 출발했어요.  
아리조나에 Williams란 도시에서 1시간동안 북쪽으로 달려 그랜드캐년 내셔널파크 도착.

내셔널파크 입장료 - 미니벤 25\$

Never dream about traveling cross America and even in Grand Canyon.  
We had a short day about 50km, it is longer than marathon distance though.  
Rainer arrived before 12:00 thanks-fully, so we headed to Grand Canyon right away without shower and lunch.  
Peter couldnt make it with us cause he was so worn out from everyday kicking the earth!!!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카메라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ㅎㅎㅎ  
1시가 지나서 도착했을 때는 태양이 바로 머리위에 있어서  
그랜드캐년이 그림자도 별로 없이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워킹트레일을 따라 걷다 보니(장장 10km!!) 어느 덧 해질무렵이 찾아 오고,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더라고요.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압도적일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앞에서면 왠지 내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 다들 아시죠?"

입이 딱 벌어져서 할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지구에 있다니..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해외여행 한 번 못해본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만 셋업하고 사진 보여드릴게여~ :)

My camera was getting heavier and heavier step by step with thousand of photos!!  
South Rim was just FANTASTIC!  
it's picturesque scenery wasn't let me down!  
Thinking of my parents who never been to abroad in their life...  
and my friends who work so hard in korea.

Anyway, I'll show you some pieces of Grand Canyon.  
No more words!!! :)

외국친구들이 블로그 구경을 와서 가끔 영어쓸게여 ㅋㅋ  
철자들리고 그래도 그러려니~ 해주세요 프프

아시아/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넥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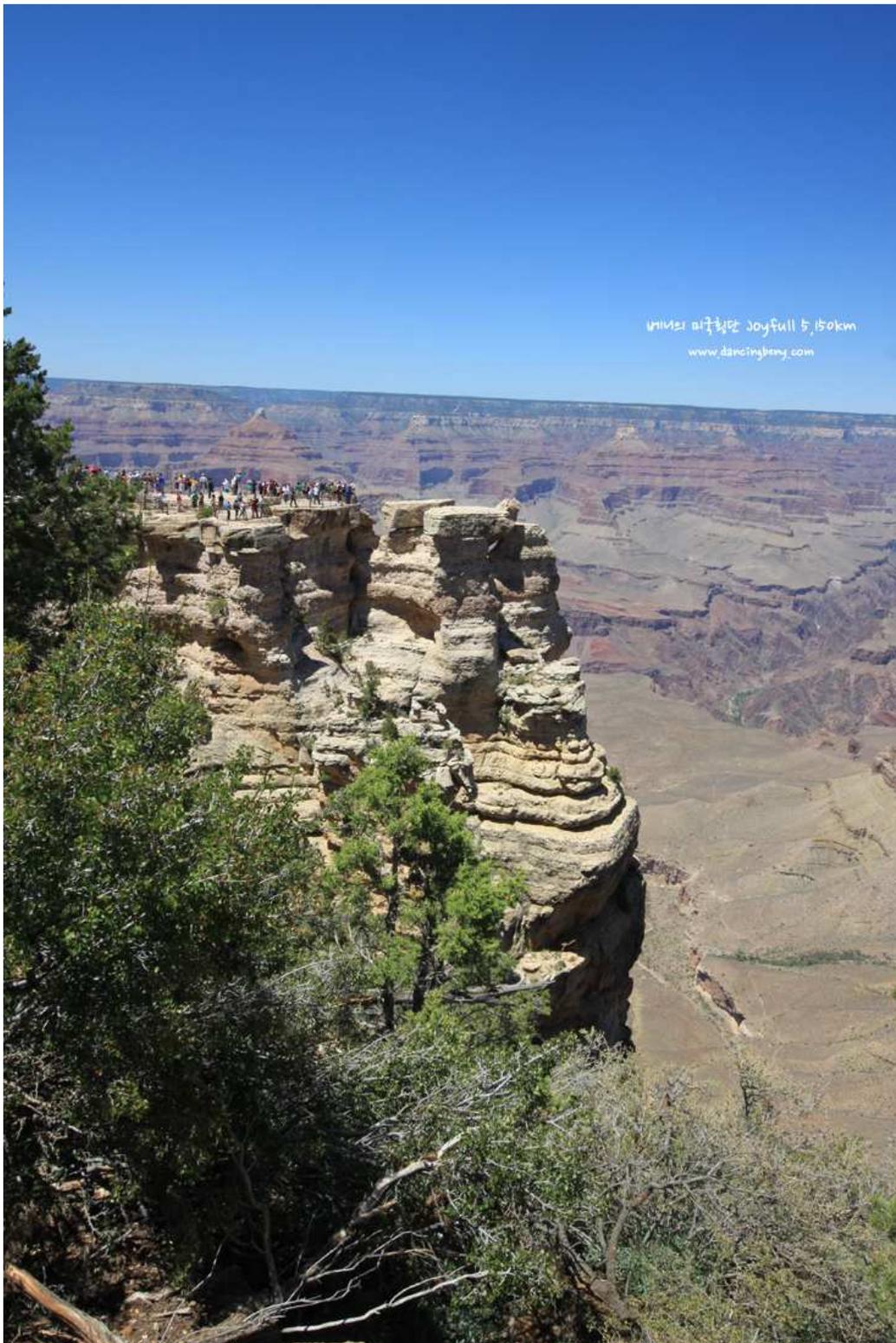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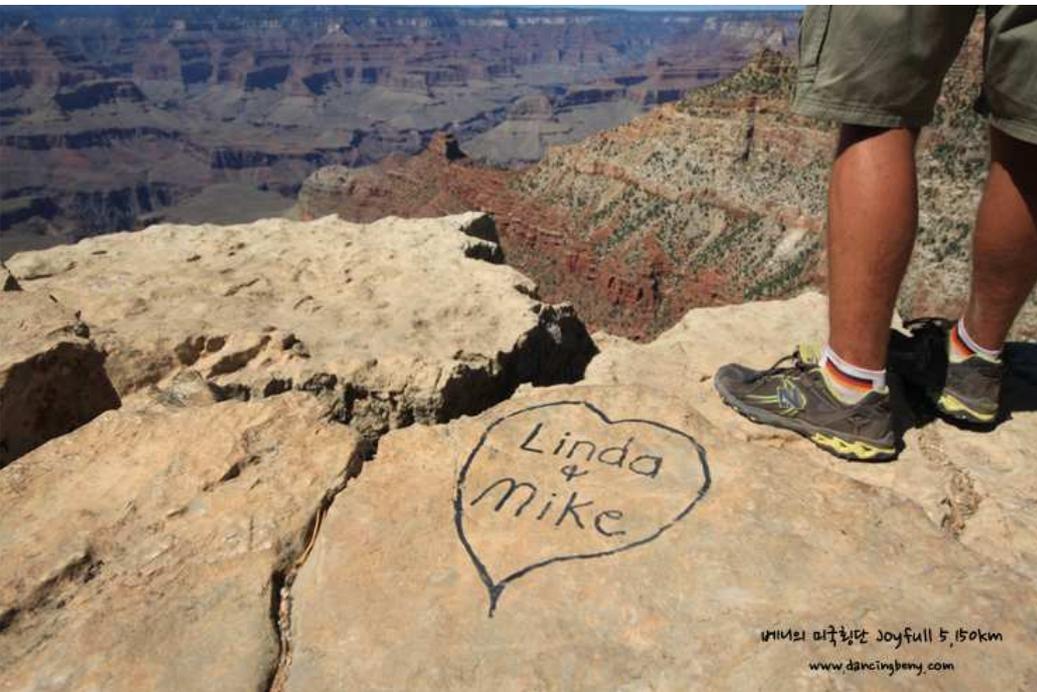
1,307

1,353,567



This is the Grand Canyon beyond the earth thing!





린다와 마이크... still in love?



Wish to go down to the river !

So we did! but only few steps down and down. couldn't go further than I thought.  
I didn't want to get tired for next days supporting ;)



계곡 아래를 내려다 보면... 꼭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어질어질! 갑자기 현기증 나면 그냥! 천국으로 가는거죠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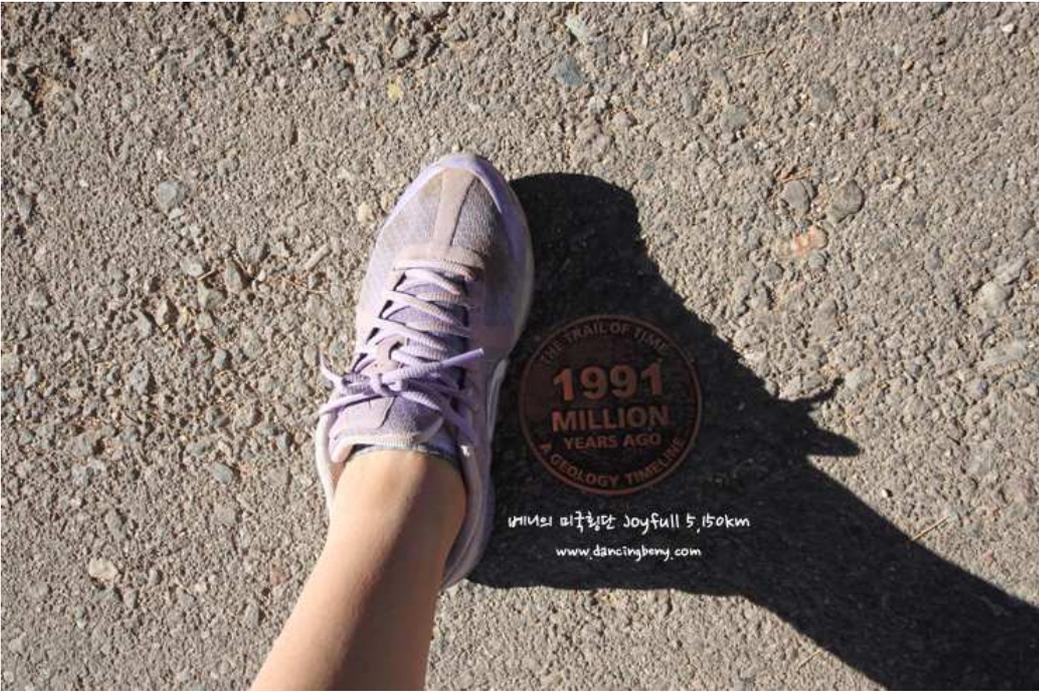


저 ~ 아래에는 강이 흐르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지.  
국립공원에서는 하루만에 South Rim에서 강까지 내려갔다 오는 걸 뚫어 말리고 있어요.  
자칫 탈진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당 @@

정말 죽는 사람이 있대요 !!

딱! 경고팻말 있는 곳까지만 내려갔다 왔어요 ㅎㅎㅎㅎ  
너무 무리하면 서포팅에 지장있잖아요.





여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를 보니까 왠지 정겨워서 말도 걸어보고 사진도 찍었어요.



자, 이런 사진은 꼭 찍어야정 ㅋㅋㅋ  
인증샷 없으면 널 아실지~





안녕안녕!



10km걸는데, 5시간 정도 걸렸어요.

100m가다가 사진찍고 100m가다가 또 찍고 ㅎㅎㅎ

피터 혼자 심심하실 테니 빨리 돌아가야 할텐데, 선셋을 보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찍자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져.

그리고 하나 더!

꼭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서 힘 닿는? 데까지 지구 위를 돌아다닐 거예요.  
언젠가는 지구 밖으로 나갈 날도 오겠죠?

라이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다가, 문득 달위에서 레이스를 하면 정말 재밌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ㅋㅋㅋ  
황당한 소리긴 하지만, 안될 것도 없잖아요? ^^

네덜란드에서 온 아나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 줬어요.

**Live Today!**

**Tomorrow is too late!**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오늘 꼭 해보세요 ^^

휴~ 인터넷이 느려서 포스팅하는데, 두 시간 걸렸어요 ㅜ\_ㅜ  
사실 집에 전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밤 12시 땡! 하면 콜해야죠.  
우리 하람이랑 통화하려고 졸리는 비비며 애쓰고 있습니다.  
1시간 남았네요 ㅋㅋㅋ

한국은 토요일 오후겠네요. ^^

전 조금 있다가 잘거예요 ~ 미리 Sweeeet Dreams~

맛집,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그랜드캐년

덧글 38 역인글 공감 7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맛집창업 한술의식연구소](#)

[우리닷컴 해외여행](#)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  
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맛집창업, 성공창업, 맛집 벤치마킹투어,  
대박집의 성공비결전수, 창업교육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합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 (25)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 (38)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미국횡단] 모하비 사막을 지나며 생일을 맞았어요. (22)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25)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니언을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38)

1 2 3 4 5 6 7

5줄 보기



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POWERBLOG
By NAVER

본사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안녕하세요~

지금 업그레이드 wifi 모델에 와서 인터넷 무지 빨라요!
밥먹으러 가기전에 업데이트 하려고 빨리 타자 치고 있어요.

타임존을 넘어와서(How big is the USA?) 1시간 빨라졌거든요~
노르웨이 백야 다음으로 신기한 경험!

자, 오늘은.

베지테리안 베니가 미국을 횡단하면서 무얼 먹고 살까요?

일단 고기는 다 빼고, 생선하고 샐러드 위주로 먹고 살아요!

혼자 여행하면 Vegan으로 갈 수 도 있겠는데,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주로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거나 가끔씩 제가 요리할 때도 있어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피부트러블 별로 없고. 요즘 피곤해서 뽀루지 큰 거 하나 달고 다녀요 ㅋㅋ

What does June eat all the way to NY as a vegetarian?
Except meat, some fish and salad what I prefer.

If I travel alone, I can get any food whatever I want but here we are the team. so trying to be in!
that means fish is most favorite food :) unlike korea vegetarian life. but it's ok!

So I'm trying everyday to have vegetables and fruits as much as I can have.
and no troubles on my face but a pimple on a chin.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3시반에 일어나는 아침에는 덜 먹기가 ㅎㅎㅎ  
위가 잠에서 덜 깨가지고 잘 안먹어저요.

그래서 주로 차안에서 아침을 빨리 해결하죠.

유슬리나 커피 빵이나 과일 등 간단하게 먹고 서포팅 준비를 해야하니까!

Breakfasts in the van for quick move.  
We usually get up 3:30 AM, not ready to have food- so sleepy @@



- 아시아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  [편아일런](#)
-  [WAKA](#)
-  [건국](#)

1 / 1318

[춤는 베니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에브리북  
DONNA LIVING



1,306

1,353,566





점심 사진이 없네요 ㅎㅎ

차에 있는 음식들 암거나 먹지요. 주로 현미볼러서 먹기도 하고 주유소 같은데서 샌드위치 어쩌다 사먹구. 이것저것 먹는데, 라이너 피터가 12시에서 3시 사이에 레이스를 끝내서 점심은 주로 라면을 많이 먹어요 ㅋㅋㅋ

질리도록 먹구 있는 라면! ㅡㅡ 한국에선 잘 안먹었지만, 미국서 먹는 귀하신 한국라면! 아껴먹고 있어요.



레이스가 끝나면 피터는 단백질파우더를 2컵 마시고- 오른쪽, 왼쪽 다리에 하나씩 쿠 라이너는 바나나 셰이크나 딸기셰이크 좋아하죠. 2컵부터 4-5컵까지 있는대로 막 먹어요.

간식으로 도넛이나 머핀 등 주기도 하고 주로 라면먹어요!

Chocolate flavor Protein Shakes for Peter and a lot of Banana or Strawberry shakes for Rainer :> after shower, the shakes are ready for my runners! and then they mainly have noodles!



sometimes I make some salad ! Looks healthy, isn't it?



also sweets we need!!!  
but I'm afraid of getting fat when having them! ;)

자, 이제 저녁메뉴~~

레스토랑에 가면 꼭 샐러드를 먼저 먹고(양이 많아서 이미 배부르지만) 메인 요리를 먹어요 ㅋ



생선까스라고 보면 되죠 요거 ㅎㅎ

타르타르소스 오렌만에 먹으니 너무맛있는거있죠!



베지테리안 파스타!! 너무 맛있었어요!  
Pasta for vegetarian.



중국 레스토랑에서 먹은 현미밥에 아스파라거스, 양송이덮밥 ㅜ\_ㅜ 폭풍감동  
아스파라거스랑 양송이 볶음은 그냥 그랬는데 ㅎㅎㅎ 현미밥이 나오다니!  
흰밥이랑 같이 나와서 취향껏 골라먹었어요!

I am big fan of brown rice ! so surprised when a china restaurant served brown rice with white one!



역시 올만에 먹는 튜나샐러드!  
완전 푸짐하죠?

Tuna and stuffed tomato salad in super big size!



피쉬앤칩스 ㅋㅋㅋ

Fish and Chips ! luckily they have a corn! :)



피쉬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 안 먹기 시작한지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ㅎㅎㅎ



씨줄러 샐러드! ㅋㅋ

일한다고 밥먹으러 안갔는데, 씨줄러 간거 있죠 ㅜ\_ㅜ 흑  
라이너가 들고 온 샐러드 먹으며 속으로 막 울었답니다



가끔 와인도 마시고 ㅎㅎ

이거 마시고 자서 코 골았나 ...- 잉~

this could make me snore in the night! :o

참,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어제 1,000km를 돌파했어요!!!



완전 더운 도로 위에서(사막기후) 열심히 달린 라이너, 피터에게 박수~ 서포팅 하는 베니도 짹짹!

We hit the 1,000KM yesterday!!! yay~ Give us congratulations!  
Thanks for Rainer, Peter running on the boiling road all the time!  
and June did a good job!!! :)



포즈 함 취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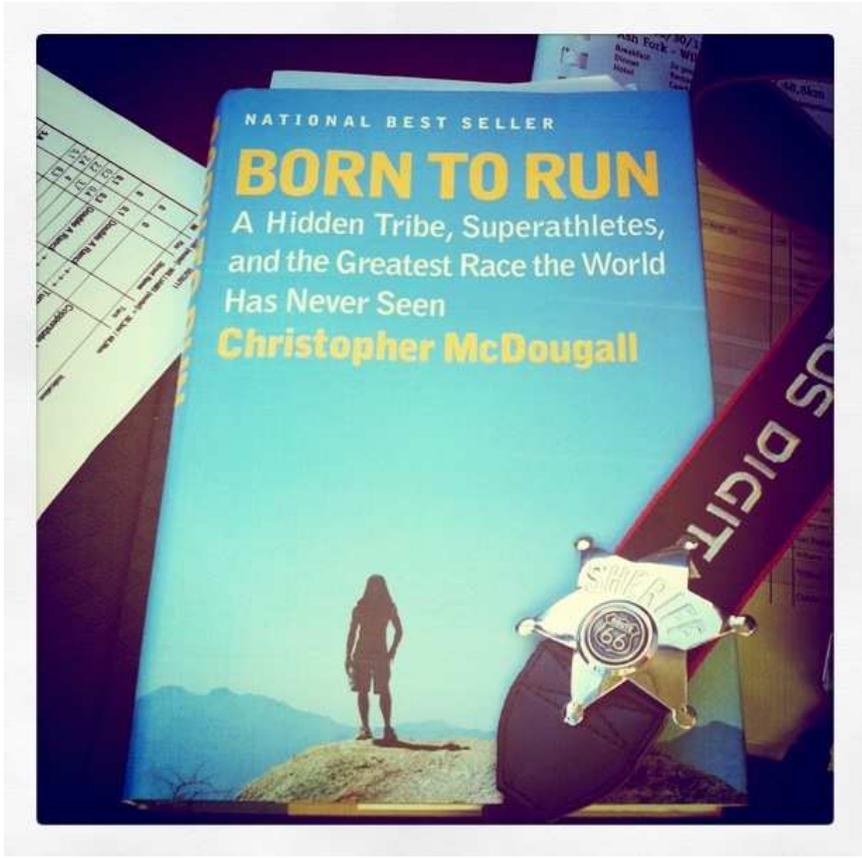
Having a photo shot!



This is a gift !!! :) :)

오늘은 요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녁 먹으러 가기 1분이 남아서. ^^



생일 선물 받은 거 자랑요!  
그리고 웨리프 뱃지 샀어요 ㅋㅋㅋ 다들 멋지다고 좋아함~ 저도 맘에 들구요



요즘 제 다리가 이모양이에요.  
여기저기 긁히고 멍들고 ~ 낮에 서포팅하러 뛰어다닐 땐 아픈지 모르는데, 모텔에 들어와 샤워하려고 보면  
꼭 하나씩 들어 있어요...-

조심성 없는 베니..라서 다리에게 미안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이런 풍경을 마주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합니다.



이런 사진도 잊지 않고 찍고 있어요 ㅋㅋㅋㅋ

그럼 또 만나요 ^^  
see you soon or later!

iPhone\_4,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마라톤, LANY

덧글 40 역인글 공감 7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옥션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 헤어팩, 에센스, 스킨케어 특가, 브랜드샵, 누구나100%쿠폰지급.

**11번가 베지테리안**

매일 할인쿠폰 증정, 위조품 110%보상제, OK캐쉬백 11% 추가적립.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 (25)
-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40)
-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년위를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 (38)
- [미국횡단] Day6 라이너, 하루에 콜라를 몇캔이나 마시는 거야? (20)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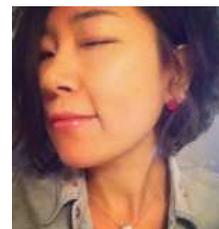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25)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니언을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38)

1 2 3 4 5 6 7

5줄 보기



쫄쫄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POWERBLOG By NAVER

목사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레이스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요. 일어나서 씻고 아침먹고 짐싸고 미팅에 참석하려면 3시에서 3시 30분에는 일어나야해요. 가끔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어요 -.-

제가 아침형인간. 아니 새벽형 인간이 되다니! 오래살고 볼 일입니다 ㅋㅋㅋ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 일찍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해돋이를 매일매일 보게 되요 :) 그게 제일 좋은 점이라까요?

We start the race 5:30 AM usually, so the process is get-up, washing, packing, attending the meeting before the start. Should get up at 3:00-3:30AM even earlier sometimes.

ME? never early bird type. but now I am :@ what a surprise!

The most good thing is watching sun rising everyday. What else? ;)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아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Looks like running into the sun!  
couldn't help it just picture! and record!

Thanks for being with them :)



여행 Africa (6)

베니의 일상 (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국

1 /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22

1,353,582







맘에 드는 사진들만 골라봤어요.

태양으로 달려 가는 선수들의 실루엣만 봐도 전 가슴이 설레요 ㅎㅎ

they are all my favorites from the early morn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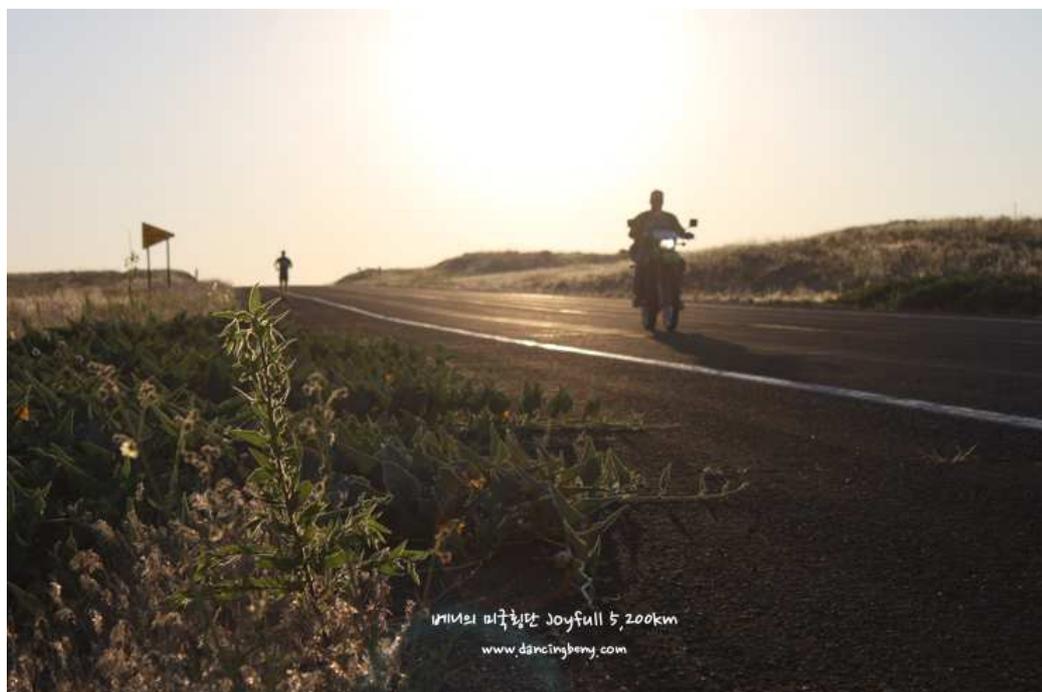
Runner's silhouettes make me just awesome!



숲속 트레일에서 맞는 아침은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뿌연 먼지속에서 달리는 선수들 모습을 바라 볼 때나, 나무 사이로 퍼지는 햇살은 차가운 몸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기분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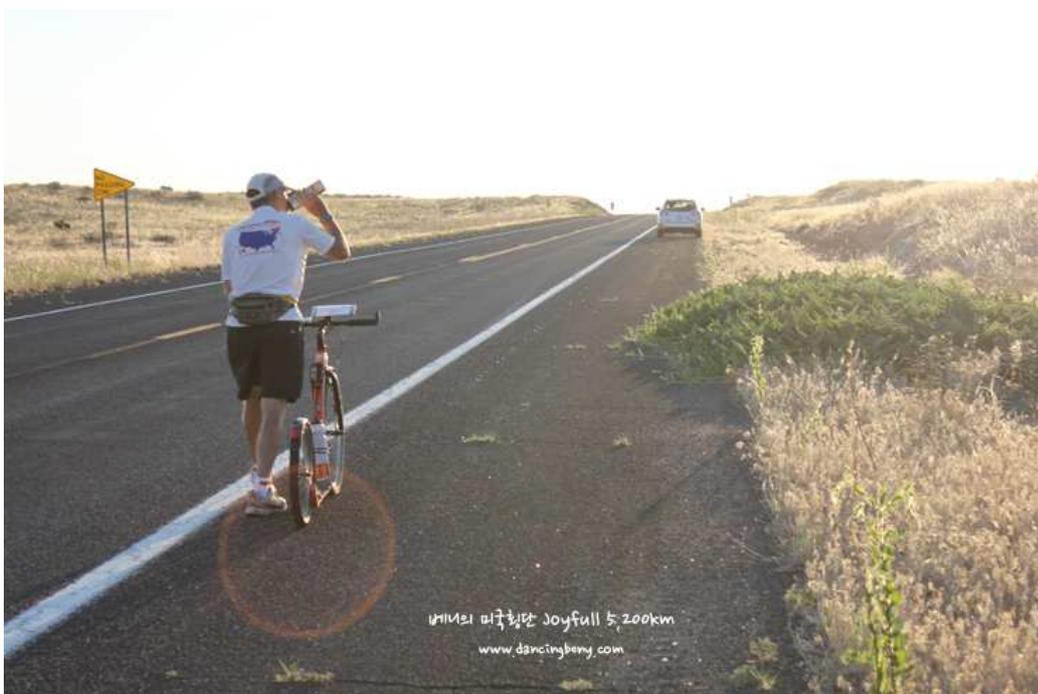
We were running sometimes in woods or trails. it is also brilliant to take time watching suns rising in dust.



on the highway



waiting runners coming



we are all bathed in the morning sunbeam



우리는 주로 앞만 보며 달려가지만

때로 뒤를 돌아 보면 뜻하지 않은 선물을 만나기도 해요.

We just run and run looking ahead. but it needs to look back around sometimes.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미키마우스가 인사합니다! :) 헬로!

You will have a big smile !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단연 말!!!

매일 매일 말을 봐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ㅎㅎ 비록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만.

My favorite animal is of course horses! they are so beautiful creature.  
I was charmed by their elegant figure.

Just Love them so much. couldn't stop taking a lot of pictures!!!



아침엔 혼자만의 시간이 좀 생겨요. 한 삼십분? -\_-;

in the morning (the beginning of the day) I have more time for myself about 30 min.  
then driving all day from Peter to Rainer or Rainer to Peter!



하늘의 구름이 땅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학렌즈로 풍경을 담으면서 이 렌즈가 광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랜드캐년의 풍경을 담을 때나, 끝없이 이어지는 넓은 수평선을 한 앵글로 잡아보려 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재현해 줄 수 있는 기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The clouds from the sky seem to fall down to the earth. Looks heavy and so unreal.  
Thinking if I could make a film with what I see just like that.

이 포스팅은... 임시저장만 4번째입니다 --

인터넷상태가 너무 안좋다보니.. 저장하다가 끊기구 또 끊기구.. 다음날 다른 모텔로 가도 그렇고- 요즘 아이폰으로도 인터넷잡기도 어렵네요 @@

오늘 대회 21일째를 마무리하고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리고 뉴멕시코에 진입했습니다. 산타페와 가까운 곳 호텔에 와있어요.

카지노 구경도하고 부페가서 저녁도 싹컷 먹고 왔더니 너무 좋려요 @@ 낮에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딸릴까봐 밥 두그릇씩 먹고 살아요! 다이어트는 진즉에 포기했고 쿵 아프지만 앉았음 합니다. ^^

여기 뉴멕시코는 미국이면서도 분위기가 참 دل러요. 백인들보다 인디언들을 많이 만나게 되구요 ^^ 길에서 만난 나바호 인디언과 사진도 찍고 그랬답니다 :)

아. 9시 넘었네요! 3시전에 일어나야 해서 전 그만 off하렵니다.

또 만나요 :)

this posting has been saved four times -\_-;;; so bad internet !!!

We are in New Mexico. so different here from USA ! Many Indians have seen and had some chances to have time with them on the road! it was so nice and fun :)

We staying a hotel near Santa fe the capital of NM. Planing to go there for some sightseeing :)

it's already time to sleep! we get up before 3:00am !!!! when I was in Korea, go to bed after 3:00 usually, how changed !!!

anyway, see you then!

> [대회 비디오 보기 / LANY video](#)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뉴멕시코

댓글 25 | [역인글](#) | 공감 11

[구독하기](#) | [복마크](#) | [미투](#) | [보내기](#) | [인쇄](#)

[하나투어 미주여행 예약센터](#)

미국, 캐나다, 중남미, 미주모든상품 등 하나투어 미주여행상품 상담 및 할인예약.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라스베가스참존투어 현지여행사](#)

그랜드캐년 경비행기 버스 헬기 전용차량 투어, 한인가이드, 3대캐년 세도나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미국 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 (25)

[미국 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 (40)

[미국 횡단] Day 12 그랜드캐니언을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 (38)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25)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니언을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38)

1 2 3 4 5 6 7

5줄 보기



쫄쫄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POWERBLOG By NAVER

본사

벌써 대회가 26일째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잘도 갑니다. 미국에 도착한지 한달이 되었어요. @@

LANY Footrace has been 26th day! it makes a month I have been in USA already!

so what I did first for the day is refill my T mobile prepaid plan for unlimited web!! it is so necessary for me all the time otherwise I'm going to die :)

그래서 T mobile 프리페이드부터 refill했어요 :) 미국여행, 유학준비중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일이 답변 못해드린거 여기서 해드립니다.

전 아이폰4를 쓰고 있구요. 한국에서 컨트리락 해제해서 미국으로 들고왔어요. 처음에는 AT&T에서 프리페이드플랜이 있다고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제가 찾던 플랜은 없어졌어요. 뭐 이런일은 자주 있는 일이지 ㅋ

그래서 T mobile로 가서 찾아보니

50\$에 한달동안 무제한으로 전화, 문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서 그걸 샀어요. 거기다 10\$ 더 내면 한국에 전화거는거 무제한! 물론 집전화를 말하는 거구요! 텍스트 가능하다는데.. 올해한테 보낸 문자들 안왔네요 --

Current rate plan: Unlimited Talk, Text, Web Current service: International Unlimited Talk & Text

링크 걸어 들테니 필요하신 분들 체크해 보세요 :) http://prepaid-phones.t-mobile.com/prepaid-plans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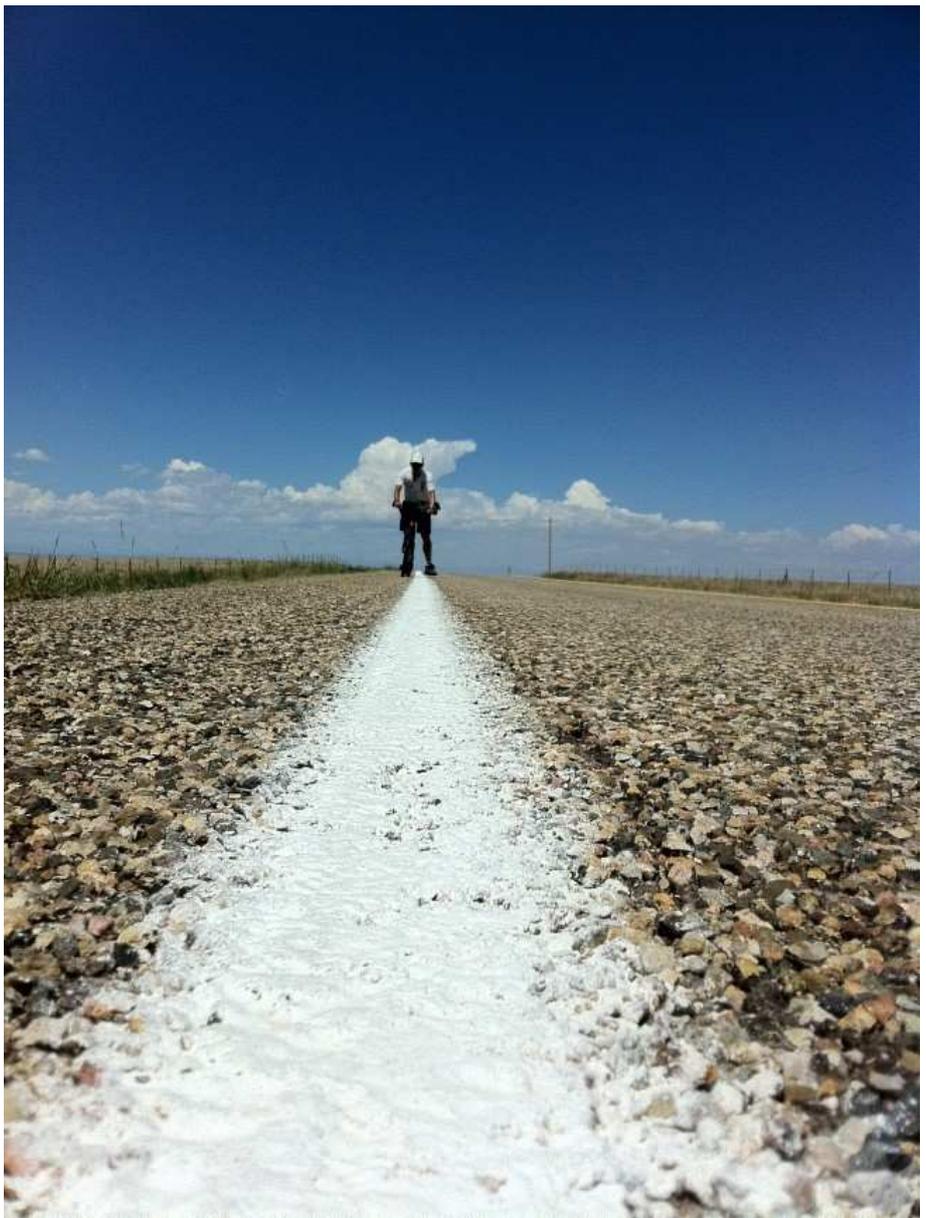
-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그럼 대회이야기!

오늘 스테이지는 88km였어요. 더운 날... 일직선 도로위에서 달리는 맛은 완전 죽을맛이 아닐까요?  
어제는 86km.. 그런데 내일도 모레도.. 79km, 90km가 넘네요 헐~  
다들 어찌 달릴 수 있는지 지켜보는 저도 참 조마조마해요.

Today was over 88km in the heat like killing me :(  
and the road was just simple strait!!! no way else to go!  
yesterday was 86km and tomorrow is over 79 and the next day... over 90km...

How come the people run like this? UNBELIEVABLE !!!!



논스탑으로 달리는 중인 피터!!!

Never stop on the downhill Peter Bartel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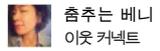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축

1/ 1318

춤추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04

1,353,564



하루에 3-4개의 에너지젤을 먹는 피터.  
그리고 레이스 도중에는 물+콜라가 섞인 음료만 마셔요 . 거기다 설탕, 소금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자주 깜빡깜빡 하시므로~  
안전조끼나 선글라스끼는 타이밍 에너지젤 등등 챙겨드리구 있어요.

He takes 3 or 4 energy gels for a day  
and only during the race he drinks half-coke and half-water drinks. add some sugar and magnesium.. tablets.  
He doesn't like to get effected his stomach by other foods or drinks.

and here he is! in his age, he sometimes forgets several things. so I give him them. :)



킥바이크(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이 달려 있지 않고 발로 차서 앞으로 나가는 시스템)를 타고 가니  
누구보다 제일 먼저 피니쉬 라인에 도착하지만! 나이가 제일 많으시다 보니 또 잠 또한 많이 주무셔요 ㅎㅎㅎ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꾸벅꾸벅 하는 경우가 있죠 ㅎㅎㅎ

Peter needs sleep a lot after the race! cause he is the fastest arrived and oldest as well :)



모 암튼 70세에 미국횡단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보통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실행하는 사람또한 만나기 힘들거구요!

참 대단한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  
아, 율아빠보다 약간 연세가 많으시군요. ㅋㅋ

But you know, he is 5years older than my dad. and it is so incredible thing to cross America in his age!  
You couldn't meet a person like him in your life once.

Amazing man!!!

피터는 지금 은퇴해서 부러운 연금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테니스 선생님이고 또 엔지니어 공부도 하셨다고 해요.  
킥바이크는 한 6년전인가 9년전부터 타기 시작하셨고!

그 전엔 철인삼종경기 3번정도 나가서 대회 우승도 하고 그랬다고 자랑을 ㅎㅎ  
20-30년 전이야기지만~



@ Palo Flechado Pass

드디어 1,000마일 돌파!!!! 대회 1/3을 성공했네요!  
자축하며 사진 찰카!!!

레이스 루트 중 가장 높은 포인트에 올라왔지 모예요! 높이가 2774m네요!  
지리산보다 높고 또... ㅎㅎ 압튼 높다 높아!

We hit the highest point in the LANY! altitude was 2,774M! WOW!  
We three made it :) YAI YE!!!!

트렌스유럽때는 알프스산맥에서 최고봉을 찍었는데, 미국에서는 뉴멕시코에서 찍는군요 :) 헤헤  
기분이 아주 삼삼합니다. 산 꼭대기라 그런지 아주 춥고! 비도 자주오고 거기다 근처에는 엔젤파이어라는 커다란 스키리조트가 있어요.  
겨울에 무지무지 사람들이 몰려올것 같아요. 너무 잘해냈더라구요 ^^ 모텔 호텔들도 통나무로 만들어 너무 아담하고 예뻐요!



@ Abiquiu Lake



@ Abiquiu Lake



@ Eagle Nest Lake Park



피곤한 베니 ㄸㄸ

저러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져요 ㅡ..ㅡ  
인상쓰고 자는 걸 보니 꿈에서도 서포팅중인가~ 어쩔

so so so tired !! She needs a nap sometimes :)  
Let her be in dream !

참!

뉴멕시코의 수도인 산타페!!에 다녀왔어요!  
다음에 사진으로 구경시켜 드릴게여 :)

완전 멋져요 ㅎㅎ

그럼 또 만나요 !

Been to Santa Fe the capital of New Mexico!  
it was beautiful and touristic city and there are lots of art galleries.  
you will see in next posting- cool~

See you then!

세계여행, iPhone4,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덧글 16    역인글    공감 9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G마켓** 킷바이크

킷바이크, 수영복, 헬스장비, 자전거, 스포츠용품, 파워SALE, 오늘만 특가.

**미국핸드폰 PhoneUSA**

T-MOBILE전문, 아이폰4개통, 현지요금, 공짜폰, 최신기종, 방문즉시개통.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 (25)
-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 (40)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eautiful morning and LANY video (25)

[미국횡단] 베지테리안이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How can Vegetarians cross America? (40)

[미국횡단] Day 12 그랜드캐니언을 걷는 기분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 Grand Canyon South Rim Walking Trail (38)

1 2 3 4 5 6 7

5줄 보기



쑤쑤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POWERBLOG By NAVER

복사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헐 ㅌ\_ㅌ

완전 허탈해요! 오늘 하루종일 길위에서 째째히! 더위와 싸워가면서 미친듯이 글을 썼는데 ㅌ\_ㅌ 흑흑 모바일로 포스팅하려고 글을썼는데! 임시저장글 다 날라갔네?

완전 그지같은 naver blog app ㅌ\_ㅌ 맨날 이모양이야!!

포스팅 하려고 10시부터 글썼는데 흑흑흑

완전 기운 빠지네요 어이구야!!!!

이기분은 당해본 사람은 알거예요 ㅌ\_ㅌ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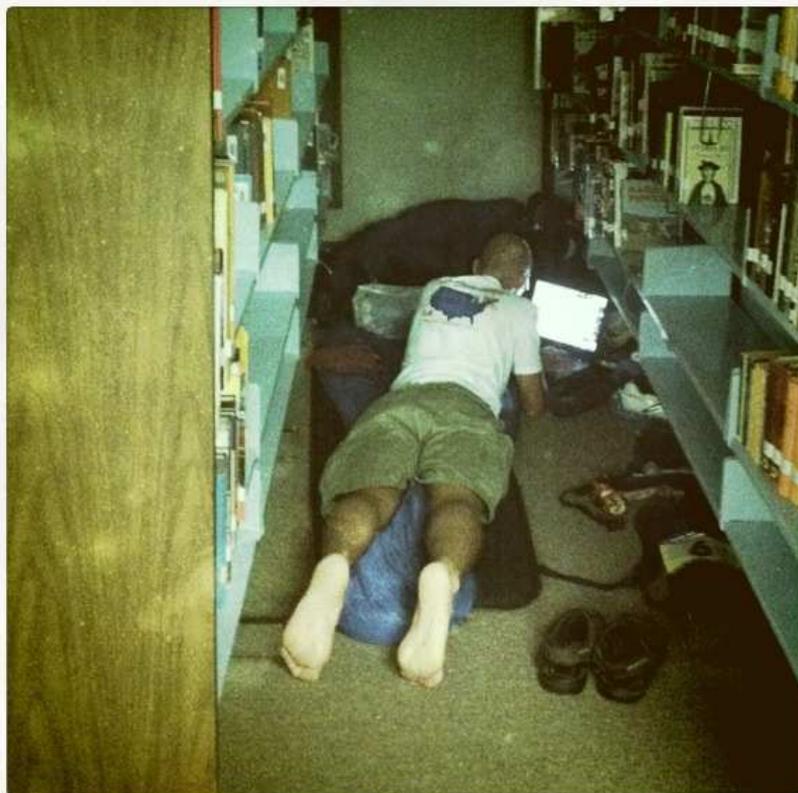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몇 일 전에는 Balko school에서 하루 잤답니다.  
 신기하게도 이 학교는 체육관대신 에어컨이 돌아가 아주 빵빵하게 시원한 도서관을 내주었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도서관에서 자보나옹?  
 책장 사이사이에 침낭을 깔고 책장을 책상, 화장대 삼아 자리를 펴고 느긋하게 오후를 즐겼어요.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03

1,353,563

이 동네 사람들은 어찌나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는 걸 주셨는지 T-T  
완전 두 배로 감동!

전 날 먹은 부페가 완전 최악이었기 때문에. 10달러나 냈는데!!

휴. 암튼 너무 흥분했네요 :)  
날도 더운데, 참자 참어.



휴.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쉬어야지 음하핫



어음식을 준비한 학교사람들 중에서 아시안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국인이냐고 물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알고보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굉장히 밝은 분이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 오신 것 같더라고요. ^^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참 재미있었어요. 특히나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런걸로 또 이야기하고 :)

외국어행하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죠!!  
가끔 북한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



하~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샤워하다가 거울보면서 맨날 웃어요. ㅋㅋ  
어깨부터 목위로 까맣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만 까매서 정말 웃겨요 -\_-;;;

다음엔 다리도 보여드릴까요? ㅋㅋㅋ  
베니의 꿀벅지 -.-



레이스를 시작하지 한 달이 된 지금  
이제는 아침에 약간의 여유시간을 만들어 아침을 먹고 있어요.

피터랑 라이너를 보내고 난 다음에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조용히 식사를 해요 ㅋㅋ

마침 해가 떠오르는 아주 멋진 언덕에 자리를 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하는 아보카도를 통밀식빵위에 퍼 바르고 라이너 딸기쉐이크 만들고 남은 딸기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거기다 커피까지 있으니!! 완전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커다란 캠핑카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된 듯 정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잠깐 라디오도 끄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으니 음악도 필요치 않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야기가 많이 줄었네요.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 적기 싫어서 ㅜ\_ㅜ 휴..

나 젊은데 요럴 땐 꼭 늙는 것 같단말이죠 ㅎ

그럼 또 만나요!

산타페 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점점 게을러지고.. ㅎㅎㅎ

저는 지금 미국 오클라호마 ALVA의 웨스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기속사에 있어요 ^^  
오늘은 대학 졸업 후 11년 만에 대학기속사 방문이네요.

기속사 상태는 .. 엄 ㅋㅋㅋ  
올 학교가 더 낫다!

여기 방은 넓은데, 침대상태랑... 벽장문은 다 뜯겨나가구 거미랑 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화장실은 막혔네요 ㅡ..ㅡ

41도입니다 여기 -.-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덧글 44 역인글 공감 11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 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모두투어온라인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미국횡단] 미국의 아름다운 아침풍경들, LANY동영상 보세요~ / American b.. (25)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1 2 3 4 5 6 7

5줄 보기



쫄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헐~ 어제 메드포드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가 넘었지요. 그런데 이게 머야? 화씨113도???

사진찍고나니 1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차에 내장된 온도계는 107도라 하더니 --

어쨌든. 저거보고 충격 받은답에 더위먹은것 같아여 ㅎㅎ  
45도라니 믿어지세요?

현재 미국전역에서 이상더위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어제 집계로는 23명. 오클라호마에서만 12명 --

전 지금 오클라호마 중앙에 있는데 ~

어제부터 밥맛이 없고 어질~  
머리이프거나 구토는 없어요. 간지 더운데 짝에서 오래 있다보니 그런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 점심도 대충 커피로 때우고  
과일 하나 먹고 있었더니 더 힘든거 있죠.

다행히 오늘 수영장있는 모텔에 와서 몸에 있는열기좀 빼려구요.

어제 소방서에서 잤는데, 불을 꺼주진 않더라고요 ^^



사무실이 참 너저분 ㅎㅎㅎ

동네사람들이 많이 구경와서 선수들이 바빴죠 ㅋㅋㅋ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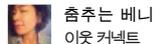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카네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축

1/ 1318

춤는 ..남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303

1,353,563

아이가 와서 진지하게 인터뷰하는건 참봐요 ㅋㅋㅋ



지금 여기는 비가 안와서 난리랍니다.  
도로위에서 힘들게 열기와 싸우고 있는 러너들과 저를위해, 그리고 더 이상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전 지금 월마트에 장보러 왔어요.  
잠깐 앉아서 쉬며 포스팅하고 있지요.

모두들 건강한 여름나시길~ 바래요 ^^

[블로그앱 설치](#)

덧글 19 역인글 공감 5

[구독하기](#) [북마크](#) [보내기](#) [인쇄](#)

[모두투어온라인 위해](#)

여름휴가조기예약특가위해 조기예약 호  
텔업그레이드 노팅, 19만원부터 VIP패키  
지까지

[대교리브로 도착](#)

도착, 스테디셀러 명품도서의 가격반란  
70%할인, 1만원만사도할인!

[11번가 위](#)

위, 겐보이, 닌텐도, PSP, 게임CD, 11가  
지혜택, OK캐쉬백 11%추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미국횡단\] 그냥 주절주절 / Tmobile 무제한인터넷 프리페이드 플랜 \(16\)](#)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1 2 3 4 5 6 7



쫄쫄는 베니 (ajirim)

5줄 보기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태양이 우릴 쓰러트리려고 할지라도 뉴욕을 향해 하루하루 뛰어가고 있어요.

혹시 뉴스에서 미국소식이 들려올때면 미국횡단중인 베니를 떠올려 보세요.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Blank text box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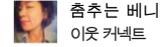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축

1 / 1318

춤는 '넌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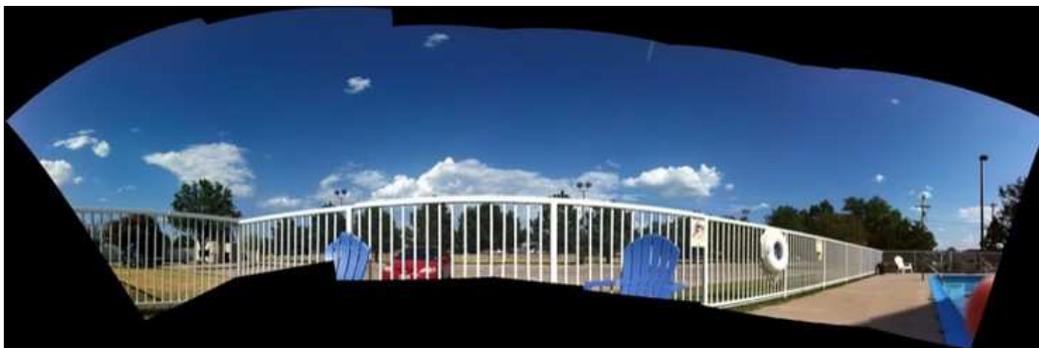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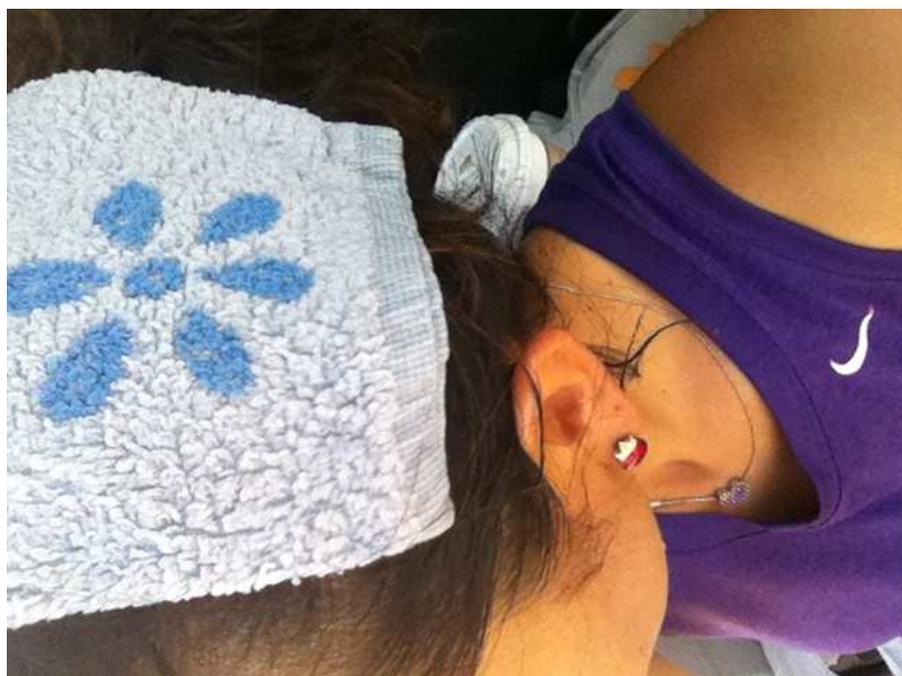
아침 5시부터 오후까지 밖에서 머무는 일이 쉽진 않아요. 혼자 두명을 서포팅하려다보니 이리저리 움직이며 준비하고 체크할게 많지만 이젠 익숙해지고 요령도 생겨 여유가 제법 생겼답니다.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에브리북  
DONNA LIVING

1,301  
1,353,561

캘리포니아 모자브사막만 건너면 괴물같은 더위와 결별할줄알았는데 오클라호마엔 또 다른 괴물이 숨어 있었네요. 높은 습도와 40도를 오르 내리는 거친도로와 그늘도 허락하지 않는 물인정한 허허벌판들.







저도 매일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로드북에서 도망쳐 시원한 카페나 맥주바로 숨어들고 싶은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한다는 게 큰 스트레스와 노프라이버시로 이어지지만 뉴욕타임스퀘어에 도착하는 순간을 생각하며 머리와 심장을 진정시킨답니다.

몇일간 식욕부진으로 식사를 잘 못했는데  
어제 난생 처음으로 어메리칸 로데오 구경을 가서 너무나 사랑하는 말들과 카우보이들 속에서 먼지와 말똥냄새를 실컷 마시고 왔더니 오늘 아침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이탈리안 포토그래퍼 마우로와 함께 다녀왔는데(러너가 주변에 없어서 어찌나 해방감이 느껴지던지! 보안유지를 위해 영어로 옮기지 않을 작정이예요 ㅋ) 둘다 사진찍느라 정신팔려서 시간가는줄도 몰랐어요.

로데오의 거친풍경을 포스팅할 시간이 나면 좋겠네요.  
휴. 사실 한국에서 넘어오는 일 할 짬내기도 벅찬 상황이라 잠자는 시간 줄여서 침대위에서 쪽글 쓰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요런재미 포기 못하겠어요 ㅎㅎㅎ

내일은 3시전에 일어나야 하므로 전 이만 잠자리에 들렵니당

bouna notte!

[블로그앱 설치](#)

댓글 27 역인글 공감 6

[구독하기](#) [북마크](#) [보내기](#) [인쇄](#)

[생각 대교리브로 추천](#)

생각 인기도서, 스테디셀러 할인판매! 좋은서점 대교리브로 추천, 무료배송 진행.

[하루하루 다운로드 소리바다](#)

실시간! 하루하루MP3 다운받기, 미리듣기, 무제한 다운로드 500원, HOT 특가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스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미국횡단] 피부가 아주 자알~ 익고 있어요! (44)

[이전](#) [다음](#)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1 2 3 4 5 6 7



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베니사진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카메라가 제 손에서 떠나질 않다보니 제 사진이 별로 없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셀카를 찍긴 하지만, 주로 아이폰으로 찍죠. 셀카찍기 편하니까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포토그래퍼를 잘 사귀어 두는 게 참 좋아요.

이탈리안 알렉스 발리니의 크루 '마우로'는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랍니다.

한달이 지난 지금, 조금씩 친해져서 요 몇일 선물 받은 사진 올립니다. 품질?이 좋죠?

캐논 7D를 쓰고 렌즈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걸 쓰더라구요 ㅎㅎㅎ

아, 그리고 마우로는 무거워도 꼭 니른 필카까지 챙겨서 다니더라구요.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Empty text box]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로데오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

이 말은 순하고 얌전해서 손으로 어루만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좀 지켜보이긴 했지만, 커다란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출발 할 때 종종 뒤 따라가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돌아와요.  
사진을 보니 어디... 더라 -.- 하하하

더 암튼. 사진이 녀 맘에 들어서 ^^

**Grazie Mauro!**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국

1 / 1318

춤추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덧글 21 역인글 공감 10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온라인 호텔 예약 북킹닷컴

배낭여행부터 출장, 허니문까지. 모든 여행에 알맞은 전세계 21만여개 숙박업체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전체 포스트 보기

1,300

1,353,560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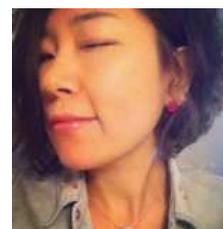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1 2 3 4 5 6 7

5줄 보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나잇! The Rodeo Night in Pawhuska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베니의 미국횡단 Joyfull 5,200km  
www.dancingberry.com

발음도 어려운 Pawhuska에 도착! 그리고 이 타운의 정말 후진..  
그야말로 귀곡산장에 견줄 만한 시골의 한 모텔에 여장을 풀었어요.

차라리 밖에서 야영을 하고 싶을 만큼 방안 분위기가... 기분을 착잡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자살이라도 했나? -\_-;'

이상하게 섬찔한 그런 센스 있죠?

하필 제 침대는 저 시뻘건 커튼 옆이 되고 --  
싫다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두 사람이 자야 할 침대 쪽 공간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며 겨자먹기로 양보. 후아 =3=3



the most horrible motel ever! :)  
creepy feeling comes out from the red wall and the curtain!  
right next to the wall my bed was there.. I should sleep there tonight..  
oh, would better take a sleeping bag and go out!

어쨌든 오늘 "로데오나이트"이라는 매우 귀한 정보를 입수했기에!  
전 참을 수 있었어요!!!  
저녁을 1시간 정도 일찍먹고, 로데오에 가기로 한거죠! 까호!!

사전지식도 없으며, 동네 인포메이션도 없고,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신나서 만세부터 했어요 ~ 이야훗!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로데오라면 어떨까?"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타고 트랙을 돌거나, 약간의 쇼정도?"

흥분을 감출 길이 없던(말에 꼭 빠진 사람들라면.. 제 기분을 좀 이해해 주실지도? ^\_^) 저는 저녁을 먹는 등 마는등~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었는데, 카우보이들이 어찌나 많던지, 분명 오늘 밤 로데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듯 했어요.  
저녁 7시부터 로데오는 시작한다는데, 벌써 7시가 넘어가는거예요 ㅜ\_ㅜ

설상가상이라나? 라이너는 한 접시 더 하겠다고 메뉴판 보고 있고 !!!

머하는거니 너!

아~ 피터는 피곤해서 로데오 생각은 예전에 접은 듯 하고, 라이너는 배부터 채우고 보자는 생각...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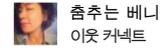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카레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런



WAKA



건축

1 / 1318

춤는 '남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안되겠다. 나 혼자라도 가야지!"

그 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던, 포토그래퍼 마우로에게 문자메시지가 "딩동~"

"Ciao June, I am here at the Rodeo! alone by bike! you told me u were coming!"

"Hey I am coming!"

전 피터를 모델로 바라다 주고, 로데오로 향했어요. 동네가 작으니 금방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웬일이니~ 동네를 빠져나가서 한 참을 갔는데(미리 가는 방향을 물어 봤었죠)

헐~ 아무리 가도 안나와 ㅠㅠ

금방 간다고 했는데, 밤이라 길 물어 볼 동네 사람들도 별로 안보이고 ~

휴, 어찌저찌 말 응가 냄새를 쫓아 열혈운전을 했어요.

"드디어 표지판 발견!"

무슨무슨 로데오~ 블라블라 플랭카드 같은 걸 기대했는데, 쯤만하게 무슨 지역이름 같은 걸 써놔서 정말 긴가민가 고민하면서 턴을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말응가 냄새!

"야! 제대로 찾았구나 ㄹ\_ㄹ 감격 감격"

1,300  
1,353,560



네이버의 미국횡단 Joyfull 5,200km  
www.dancingbenj.com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질 않구..

첫번째 주차장은 이미 꽉차서 다시 되돌아나와서 두 번째 주차장으로 갔는데, 사람, 차, 말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구요.

거기다 그 냄새와 먼지들 ~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미친거죠. 그 장소가 너무 매력적인거예요 :) ㅎㅎ

가 본적도 없는데, 굉장히 그리운 곳을 찾아가간 그런 느낌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마우로를 찾아야 하는데,

"자전거로 이 먼데까지 찾아왔단 말야? ㅏㅏ 미안"

통화를 시작하고 30분만에 만났어요 흑흑

그 넓은 로데오 복판에서 아시아인은 나 혼자. 다들 저를 쳐다보고-

로데오의 기본복장이 있는 듯이 모두들 웨스턴부츠에 (사실 저도 차에 있던 했지만, 그걸 신고 싶진 않았어요. 그 더위에 -.-)

청바지, 카우보이 모자에~ 애나 어른이나 말타고 돌아다니지- 그 사이로 헤집고 돌아다니며 ... 땀을 한바가지 쏟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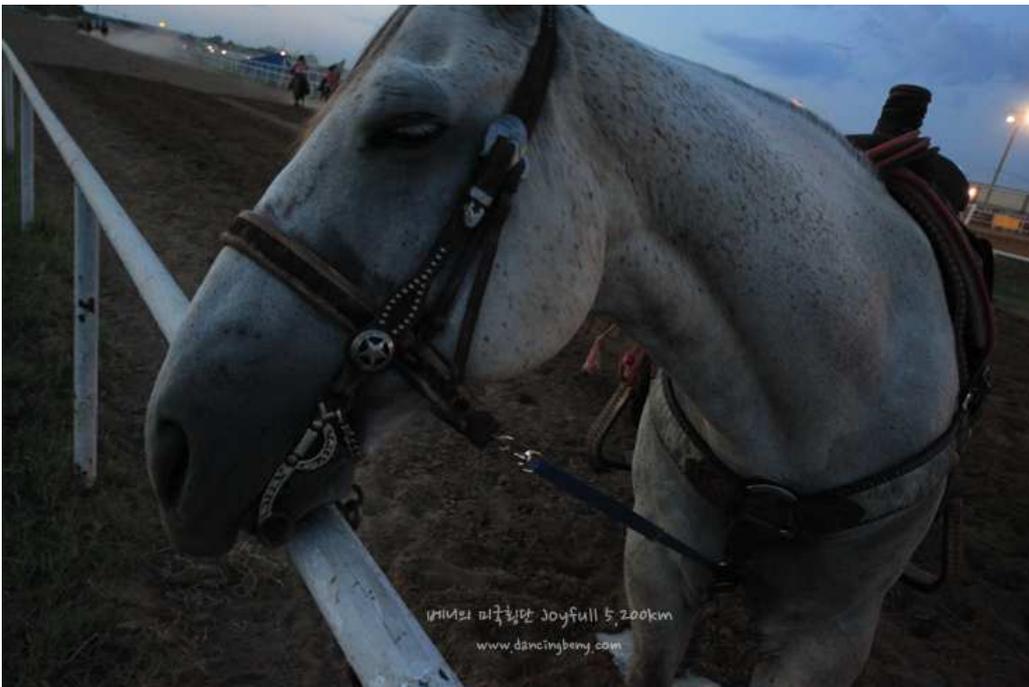
복장도 웃기기도 하지 ㅋㅋ -

해골그려진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에 슬리퍼 짝짝 끌고, 카메라 한대 달랑달랑 .  
아이폰 들고 이탈리아 포토그래퍼를 찾아다니는 제 모습. 미운오리새끼 심정이라니까여 ^^

뭐 어쨌든, 한참을 삼질 한 후에 겨우 상봉 ㅠ\_ㅠ

이산가족 만났니? 완전 감격에 겨워서 와락 훌쩍

"잘있었어?"



마우로는 거의 정신이 반 나가 있더라구요.

멀리 자전거 타고 왔지, 저녁도 안먹었지, 저 찾아다니느라 지쳤지

먼지와 땀이 뒤범벅이 되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웬지 진한 전우애? 같은 걸 느꼈다니깐요 ㅋㅋㅋ

어쨌든 시원한 버드와이저부터 한 잔 들이키고!  
우리는 물만난 고기처럼! 정말 정신없이 구경하고 먼지 들이마시고  
말웅가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나는 곳으로 파고들어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어요.

옆에 말이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몰입했던 2어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커다란 말이 옆으로 지나가도 위협적이긴 커녕 전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말, 웨스턴 컨트리 뮤직이 뒤섞여 들끓는 열기가 가득한 로데오나잇!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 WHAT THE HELL OF THIS!

LET'S GO CRAZY CRAZY CRAZY!

parked my van in the second parking lot.  
there was a fatty bossy woman with a stick to direct cars to right place should be.  
she can say only one sentence! **"Back off!"**

it was incredible, and sweet in some strange way.  
as soon as I stepped into the Rodeo border, right after fell in love with the smells from dust, hoarses,  
cowboys, sweating, beers, cows, old cars and s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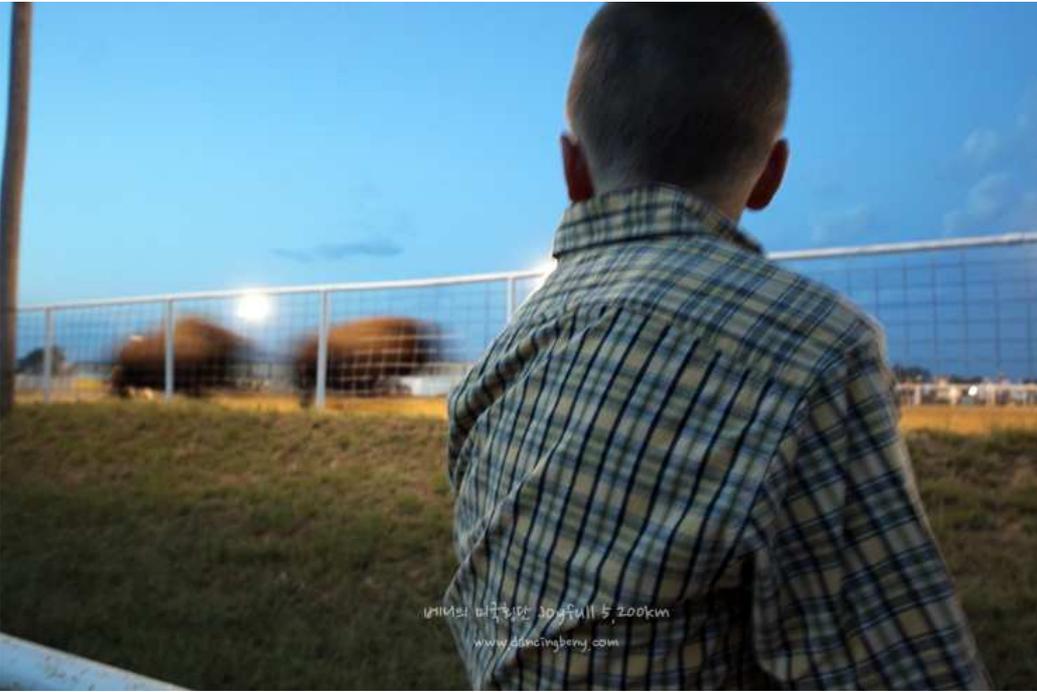
but I should find where this Italian guy Mauro is! has been 30mins passing... so precious time !!!

talked thorough iphone for a while, and then finally finally met him ... it was so mess and and.. relief...  
couldn't miss such a big event!

we were like kids from elemantry school with cameras.  
Budwiser only say we are adults somehow.

took out our camera, sat down on the dusty ground between cowboys on hoarses.  
then shoot! shoot! shoot! endless shooting kept on without words.









been out of mind for 2hrs or more. the time told us **"You should go back"**  
Got angry and sad that it was Friday Night! though we should off ...

we should go back on our job and sleep for the race to be ready! :(

you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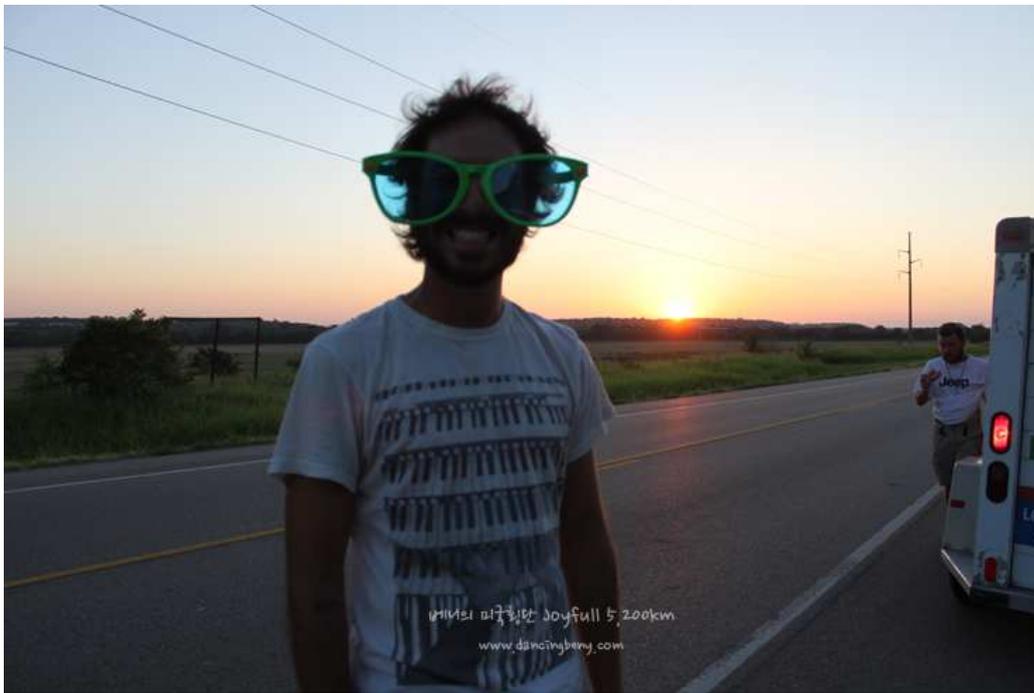
I am in the middle of the great adventure cross such a big continental 3,200miles!  
but time to time miss my lazy free times at home!  
you would understand me.

even sometimes find myself in lonely mood.





we should go back !



Mauro Talamonti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로데오

덧글 11 역인글 공감 4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온라인 호텔 예약 북킹닷컴](#)

배낭여행부터 출장, 허니문까지. 모든 여행에 알맞은 전세계 21만여개 숙박업체

[로데오게임기전문회사 게임조이](#)

로데오게임,대학 지역축제행사 게임기,각종체육행사 인기게임,방송촬영 임대전문

[모두투어온라인 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16)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스사진 (21)

미국횡단. (27)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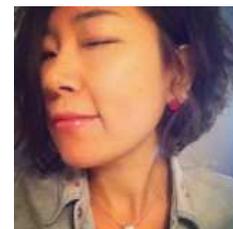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미국횡단. (27)

[미국횡단] D33 45도라구? 너무 더워서 어질어질. (19)

1 2 3 4 5 6 7



츄추는 베니 (ajirim)

5줄 보기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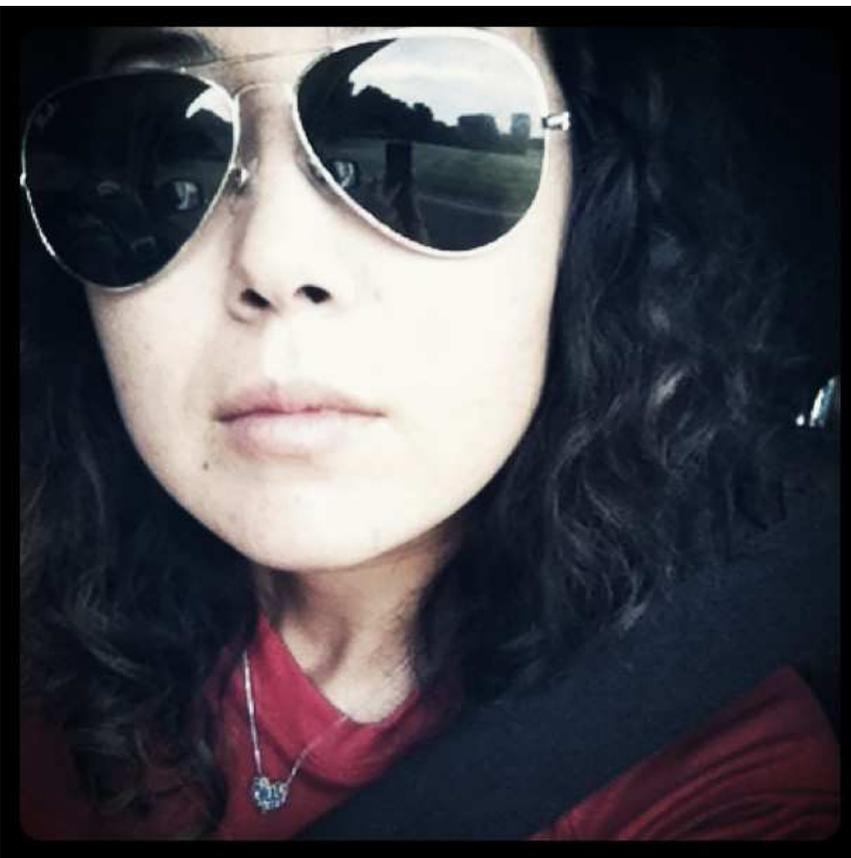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hello hello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편아일린



WAKA



건축

1/ 1318

춤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정말 한국에 있을 때 보다 많이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먹고..  
특히 저녁은 정말 짜짐하게 퍼마시는데, 날이 덥고 휴일도 없이! 매일 3시 반에 일어나 레이스에 매달리다 보니  
절로 살이 빠지네요.. 휴~

살빼고 싶은 분들 서울부터 부산까지 중단 함 해보세요 -\_-;  
여름방학,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곰방 살이 빠질걸요? ㅋㅋ

아~ 더위 먹어서 실없는 소리하고 갑니다.

8월이네요.  
오늘이 몇일인가요? 8월으로 바뀐건 알고 있는데, 몇일이나 지났는지..  
동생 생일이었는데, 전화가 안터져서 생일축하 못했었어요- ㅎㅎ

미안해~

휴~ 오늘은 92KM예요! 92KM !!! 그리고 고속도로위에서 무조건 앞만보고 달리는 날이에요  
턴도 하나도 없어요. -..-

어려분 9월에 만나영 :) 헤헤  
전 뉴욕에서 완전 쪽~ 자다 갈게여!

ps.  
지금 맥도널드에서 사진 업로딩중이에요.  
메일 보내자마자 바로 뛰어가야죠.

핫케익이랑 커피를 아침으로 먹고 있어요 :)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Canon\_EOS\_7D,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덧글 11 역인글 공감 9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온라인 호텔 예약 북킹닷컴

배낭여행부터 출장, 허니문까지. 모든 여행에 알맞은 전세계 21만여개 숙박업체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1,299

1,353,559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16)
-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 [미국횡단] 베니사진 (21)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f LANY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in Joplin Missouri... (16)



썸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in Joplin Missouri...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POWERBLOG By NAVER

복사

Day 39

드디어 길고 길었던 오글라호마주를 벗어났어요.

12일동안 45도를 웃돌던 뜨거운 미국중부 오글라호마...

새벽 5시부터 30도를 찍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아, 이제 드디어 캔사스를 살짝 가로질러 미주리주로 들어가는 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주로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정보 없이 미주리주로 들어가자마자 조플린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무언가에 대한 기부금을 건지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잠도 덜깨고 건성으로 들어서 무슨이야기인지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조플린 시 토네이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이야기 였던거죠....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이렇게 아름다운 해돋이를 바라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글라호마를 떠났는데...

미주리주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 토네이도가 휩쓸고간 조폴린



- agsa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1 /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97

1,353,557







조플린고등학교







산산조각난 마을 그리고 사라진 삶의 흔적들...





누군가의 집이 있던 자리  
흔적만 남아있네요





성조기가 힘없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삶의 흔적조차 사라졌다"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게 먼줄 아세요?

"정적"

그 혼란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짖는 소리, 차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생명체가 다 증발해 버린 황량하고 가슴아픈 무음의 공간에 갇힌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숨도 쉬지 않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몸이 기울길래, 얼른 조플린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이상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장소에 있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사진,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는거더라구요



레이스가 힘들었을 모든 러너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으려 땀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아마 이 기사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링크합니다.

**"미 조플린 시 토네이도 사망자 116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077555>

토네이도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 미국 미주리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1&aid=0003095344>

한국에도 태풍이 지나갔지요?  
자연재해는 정말 자비가 없네요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덧글 16    워인글 공감 6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 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  
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미국여행 현지여행사 드림투어

미국, 캐나다 여행, 항공권, 호텔 전문. 뉴  
욕, 워싱턴, 올랜드, 밴쿠버 관광.

현지여행전문가 베스트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중남미 현지지사, 성수기 좌  
석해결, 정말싼 할인항공권, 미국여행!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16)**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미국횡단] 0723 D35 로데오 나잇 Rodeo night in Pawhuska. (11)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랐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f LANY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in Joplin Missouri... (16)

1 2 3 4 5 6 7



쫄추는 베니 (ajirim)

5줄 보기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웃님들!

저 감방에서 하룻밤 신세졌어요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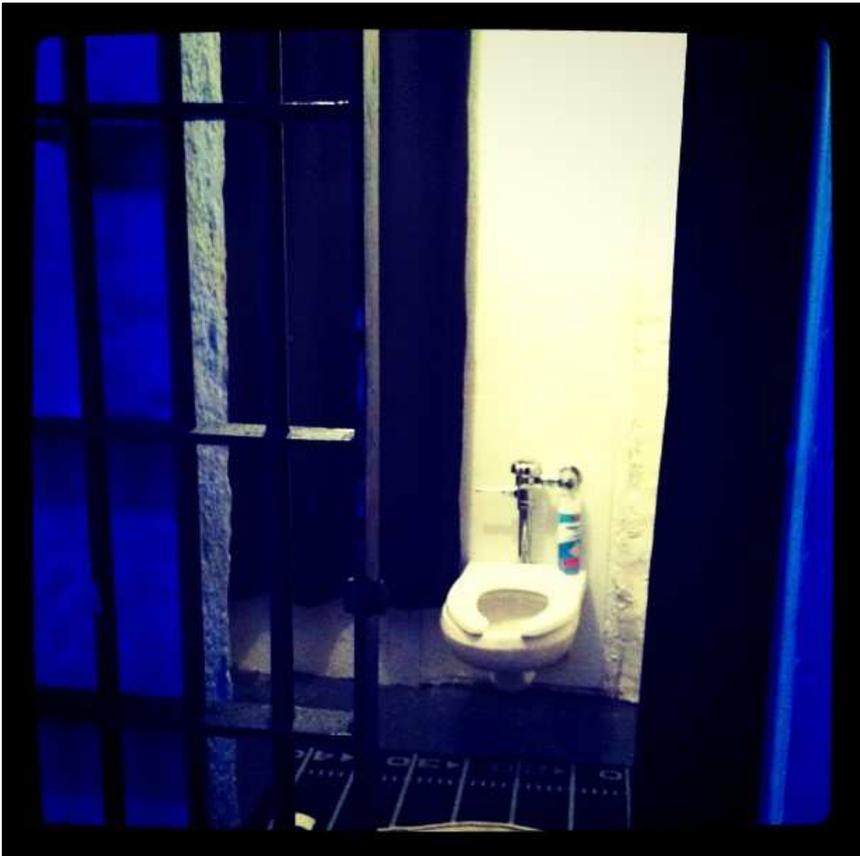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현상 수배자? 혹은...

ㅋㅋ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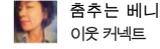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WAKA



건국



쫓3333

1/ 1318

춤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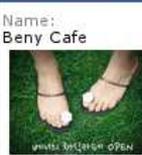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화장실 --

## Rockville, Indiana

[http://en.wikipedia.org/wiki/Rockville,\\_Indiana](http://en.wikipedia.org/wiki/Rockville,_Indiana)

1,291

1,353,551



인디애나주의 락빌

정말 빈티지한 작은 마을이에요! 정말 다시가고 싶은 곳 :)

혹시 인디애나로 여행가실 계획이라면 꼭! 락빌에 들려보세요!!!!

엔티크샵이 정말 많아요. 한 곳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방이 이어져 있어서 2-3시간은 후딱 지나가요 ㅋㅋ 전 1924년 Time 샀어요 :) 5달러주고 ! 으훗!

Debra and Tony :)

## Old Jail Inn Parke County

Hotel · Rockville, Indiana

<http://www.facebook.com/pages/Old-Jail-Inn-Parke-County/103288906405319>



옛날에 감옥이던 곳을 개조해서 만든 모텔입니다 :) 키키키

아~ 정말 이런곳에서 자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신나는 하루였어요

미국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60-70년** 동안 최고 더운 여름!  
하필 그 더운 여름에 미국횡단하는 우리들 ㅜㅜ

45도까지 올라가던 미친 온도계와 90%가 넘나드는 습도에 지쳐  
정말 만신창이가 된 저를 구해준 건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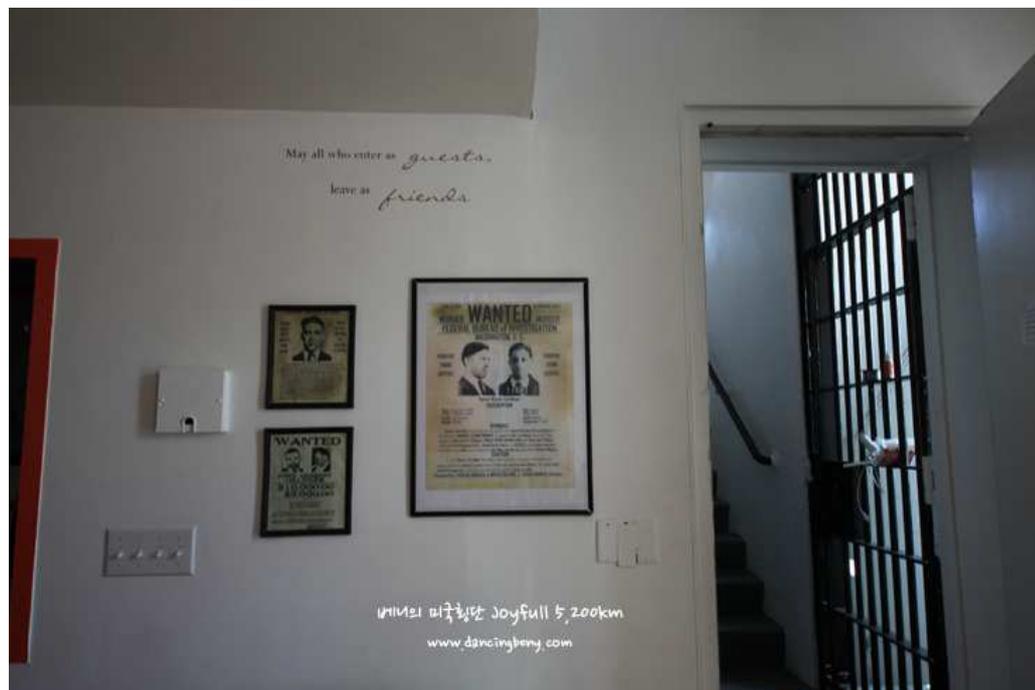
OLD JAIL INN 주인장 토니와 데브라..(사진보기)

저한테 죄수복을 입고, 사진을 찍던 ㅋㅋㅋ 토니!  
수갑도 채워주려하는 걸 열쇠가 없어보여서 거부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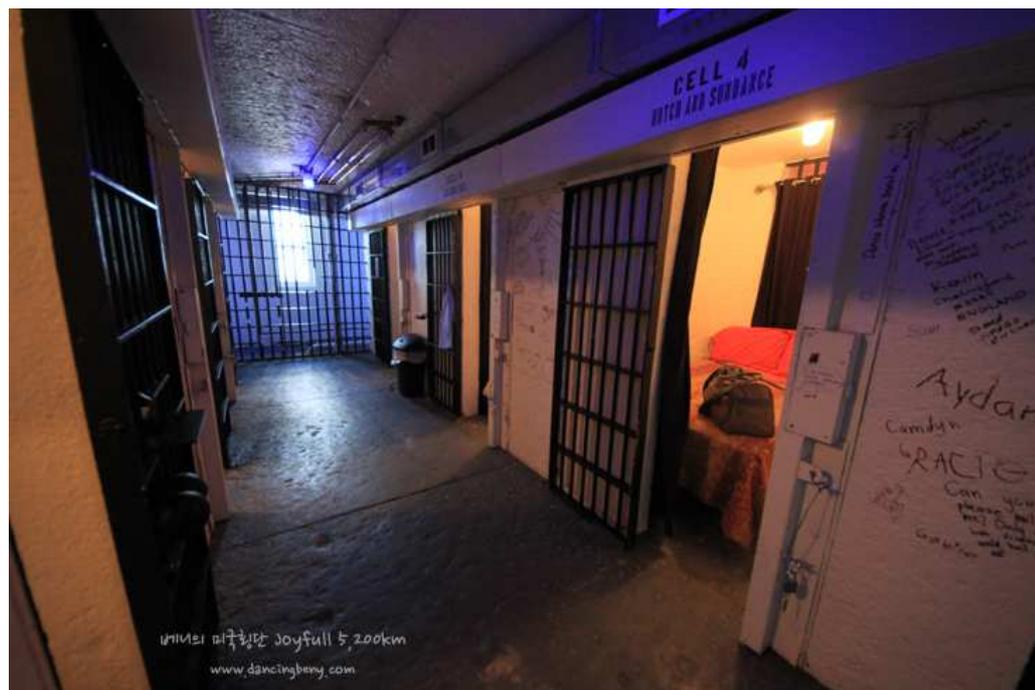
아, 오른쪽 할머니는 사라(라이너 친구로 몇일 동안 서포터하러 오셨죠) 예요! 데브라는 다른 분 ~

저 살 빠졌어요 ㅋㅋ 부피가 좀 줄었고. 음하~  
한국가는게 두렵네요- ㅋㅋ

그럼, 감옥의 흔적을 함 보실까요? ^^



감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보셨죠?  
거기보다는 무지 양호한 감방이에요, 물론~ 독방이니까요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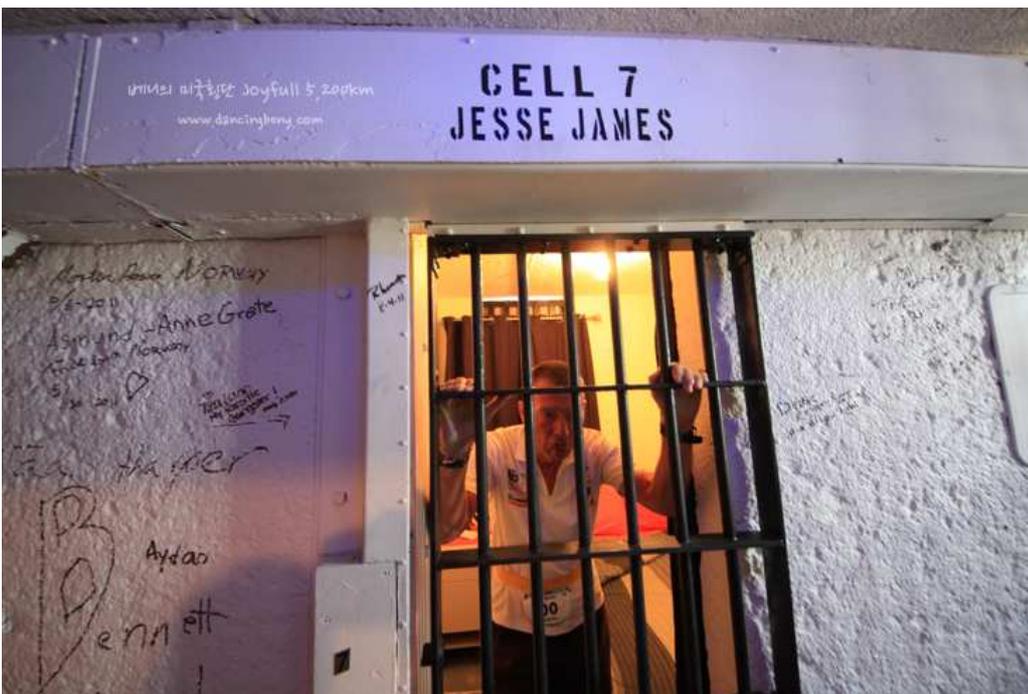


로어.. 거긴 내가 찼한 침대야~

로어는 LANY Footrace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예요!  
남편은 웬만한 대륙을 종단, 횡단 했고(무지 유명한 사람!)

로어는 루트를 기획하고 각 나라 대사관에 연락해서 남편이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아주 힘든 일을 하며 살구 있어요.  
루트짜기, 정보모으기, 각나라마다 연락하기 등등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팀을 짜서 함께 움직이는 여장부랄까요?  
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짝있게 살아요. ~ ㅎㅎ

라이프 자체가 익사이팅한 부부죠 ~ 정말 !



피터는 Cell7에 갇혔습니다.  
너무 빨리 피니쉬라인에 도착한게 죄라면 죄~



라이너도 독방~  
매일 피터랑 한 침대쓰느라고 고생이 많음 :)  
게다가 피터는 심하게 코를 고셔가지구... -.-



네이버의 미국 횡단 Joyfull 5,200km  
www.dancingbeny.com



내부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는 2층인데요~  
한 방에 침대가 여러개 들어가 있는 다인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발랄하네요 ㅋㅋ  
곰돌이가 있다니 ~ 허를 찌르는 인테리어



자, 이제 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남기고 간 벽을 보세요.  
저도 아침에 짧게 메세지 하나 남기고 왔어요.

다시 이 곳을 방문할 기회는 없을 것 같지만, 주인 부부의 무한 친절함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  
여러분도 기회되시면 가보셨으면 해요. 완전 추천합니다~



밤에는 요런 분위기 -.-

자다가 깬데, 완전 놀랐어요 ㅋㅋㅋ  
유령이 나와줘야 분위기가 완전 살것 같지 않아요? 은근 기대했는데 ~

아,  
세상은 참 즐겁고 즐거운일이 가득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답니다.

이 호텔에서 일하던 젊은 아가씨가 글썄 서울로 영어가르치려고 일을 그만 두었대요!  
토니한테 소개받아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9월에 한국에 돌아가면 이미 서울에서 자리잡고 있을 그녀.  
일년간 제가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 키키키  
,

한국에 가면 그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주 생기발랄하고 귀여운 20대 아가씨예요 ~

토니와 데브라가 운영하는 커피하우스 소개 :)

제가 또 홍보는 잘하지 않습니까?  
데브라한테 홍보 잘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 Old Jail Coffee House

Restaurant/Cafe · Rockville, Indiana

<http://www.facebook.com/pages/Old-Jail-Coffee-House/113883225346334>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커피하우스  
호텔 손님들은 아침식사를 여기서 먹어요~







분위기 좋죠?

저녁에는 칵테일, 와인 싸게 제공하는 해피타임이 있더라고요 ^^  
공짜던가~

아, 피곤해서 잘 기억이 안나네요.

전 지금...

캘리포니아-아리조나-뉴멕시코-오克拉호마-미주리-일리노이-오하이오 까지 왔네요.  
몇일 전에 4,000km를 돌파했어요.

내일은 펜실베이니아로 들어갑니다.

이제 11일 후에 뉴욕에 도착해요.

# NEW YORK!

# NEW YORK!

드디어 미국횡단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네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평균 80km가 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후아~

베니의 미국횡단 계속 응원해 주세요 :)

또 봐요~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덧글 55 역인글 공감 9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 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16)

[미국횡단] 힘든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11)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f LANY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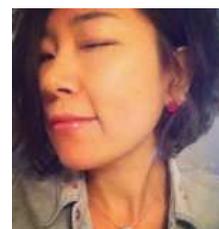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in Joplin Missouri... (16)

1 2 3 4 5 6 7



춤추는 베니 (ajirim)

5줄 보기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짜자자잔^^

오늘은 D65 였어요!

이제 뉴욕이 코앞??? ㅜㅜ  
완전 감격스럽습니다.

모두들 정말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1. 이 기나긴 대회가 끝나간 다는 사실
2. 드디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의무감
3. 뉴욕의 뒷골목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무한한 해방감!!!!

We all LANY people so happy to get to NY in few days..  
Can you believe that?  
we already crossed America more than 4,700km... wow  
Yes, we are crazy!  
but I love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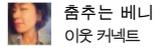
### I have 3 reasons to be crazy for NY

1. this such the longest foottrace ever is about to end!
2. No more duty to wake up in the early morning around 3-4 am
3. Feel so free to disappear into the dark and narrowed street in NY somewhere.



Police asked me "Why do you take picture in the middle of the road!"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I answerd "the clouds in the sky was awesome" @ West Jefferson

경찰이 도로위에서 사진찍었다고 잡더라구요~ @@  
새벽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1-2초 찰칵 했는데, 그걸 어디서 보고 나타나서는! 완전 깜놀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89

1,353,549

Sunshine shower for early birds



Columbus



Do you know the movie "Walking in the clouds"? from 90s maybe.. @ Sherwood Nursery and Greenhouse

구름위의 산책이란 영화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남주는 키아누 리브스 ㅎㅎㅎ



과일맛 담배, 시가를 주유소에서 살수 있는 미국! 씹는 담배 다음으로 컬쳐쇼크 ㅋㅋ 와인맛 시가 공짜로 얻었음 호호  
Banana, apple and more flavored CIGAR.



Given a 'Bracel' from Germany Rainer's mom Briggitte. Thanks mom :) I love it~ @ Days Inn Columbus East  
라이너 엄마께서 독일에서 보내주신 선물 - 팔찌!  
근데, 몇일 차고 다녔더니 색이 바랬어용~



Collections from the road :)

라이너와 피터가 모으고 있는 것들.. ㅎㅎ  
라이너는 벌써 핸드폰 3개 주웠어요. 모토롤라, 삼성, 하나는 어디더라~



Peter met L traveling around America. :) @ Frostburg, MD

어, 길에서 만난 자전거 여행자...  
이 아저씨도 LA에서 출발했다는데..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여행중인데, 몸매가? ;)



We have a new visitor JOY from Stafford VA @ Days Inn Waynesboro

라이너의 친구가 방문해주요 ^^  
조이~ 통이 크신 나머지 하이네켄이랑, 라니피플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커다란 케익을 세판이나 구워오시고!!!

완전 포식하면서 살찌까 걱정하는 여자들 ㅎㅎㅎ  
어딜가나 똑같다니깐요- fat free를 탐하는 젊은 언니들이 저말고도 많다는 걸 :)



Two men fixing my car. What a bug day! @ Americas Best Value Inn

오... 드디어.. 한 건 했어요.

주차장에서 서포팅을 마치고 빠져나오다가 조수석쪽으로 쇠로된 말뚝이 있는 걸 못보고 턴을 하다가 우지직!!!

소리 들자마자 브레이크 밟았지만, 이미 범퍼는 떨어져 나가고 --..--

완전 패닉!

급한대로, 테이프로 범퍼 붙들어 매고 서포팅을 마치고, 저녁에 라이너와 르네아저씨가 단단한 테이프로 범퍼를 차에 동여매는 중이에요

그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암튼 큰일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보험들었으니, 잘 해결 되겠죠?



전 정말 잘지내고 있어요.

한동안 스트레스가 극심했는데, 라이너랑 트러블이 좀..  
이제는 괜찮아요 ^^



힘들때도 있지만, 전 괜찮아요.  
곧 뉴욕을 만날 테니까요!  
으라차차!

곧 소식 전할게요!  
보고싶어요 :)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덧글 8 역인글 공감 4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온라인 호텔 예약 북킹닷컴

배낭여행부터 출장, 허니문까지, 모든 여행에 알맞은 전세계 21만여개 숙박업체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현지여행전문가 베스트아메리카

미국캐나다중남미14개국현지지사 100% 여행, 학회, 신혼, 정말싼미주행, 현지항공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울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16)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f LANY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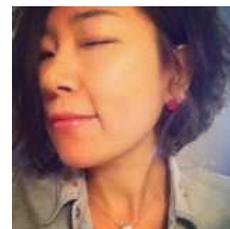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in Joplin Missouri... (16)

1 2 3 4 5 6 7



츄추는 베니 (ajirim)

5줄 보기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오늘...

제 안에 있던 폭탄이 터졌어요

그동안 라이너랑 트러블이 있었다고 ...  
레이스도 끝나가고 해피엔딩을 만들고 싶어서 무던히도 인내를 해왔어요.

인내심은 눈곱만큼도 없는 제가 ...

휴....

뉴욕까지 2일 1300여km 남았을 뿐인데  
더이상 참다가는 화병날 것 같아서 남은 이틀간은 피터만 서포팅하기로 했어요.

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예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거 참...  
이 레이스에서 16명의 선수들 중에

두명을 서포팅하는 사람은 오직 저 혼자입니다.

이거 하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 보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이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싶을 정도로 힘든캐릭터 입니다.  
어쩔 우린 너무 달라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피터랑은 팀웍이 좋아서 그나마 뉴욕까지 가는데 기운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국의 여름장마를 연상시킬만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힘든 결정을 했지요.

이틀전에는 지진이 있었고, 뉴욕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뉴욕센트럴파크에서 레이스가 끝날거예요.

피니쉬라인에서 모두 다 함께 활짝웃고 싶었는데...  
어쩔 빗속에서 크게 울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뉴욕

뉴욕...

레이스 이틀남겨두고 패트릭이 병원에갔답니다. 사실 허벅지안쪽 근육과 혈관에 문제가 생긴지 일주일이지났지만 레이스를 계속해왔거든  
요.... 걷지도 못할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다리로 매일 달려왔어요 ㅠㅠ

왜냐면....

아들이 일주일전에 프랑스에서 날아왔거든요. 거기다 패트릭의 친구와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어제는 혈뇨를 봐서 파비안(패트릭 아내)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도 달리고싶을까?"

전 조금이나마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건국



훗3333



라지엘리

1 / 1318

춤추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지금 시각 9시50분

패트릭은 아직도 레이스를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잠을 자지 않고 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든 날입니다..

사실 처음으로 울었어요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또 너무 피곤해서

그랬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요.

1,285

1,353,545



\

제 기분을 풀어준 Fortune cookie

뉴욕이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만 울었으면..

블로그앱 설치

덧글 16 | 역인글 공감 2

구독하기    북마크    인쇄

유럽여행전문 투어어

유럽배낭여행, 24시간 가이드 SBK단체배낭, 자유여행보다 더 싸고 편한 믹스팩

실속 미국여행 온라인투어

미국 동부, 서부 일주여행, 현지투어, 하와이여행, 무료연장가능, 미국여행.

현지여행전문가 베스트아메리카

미국캐나다중남미14개국현지지사 100% 여행, 학회, 신혼, 정말싼미주행, 현지항공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베니의 미국횡단> 타블렛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울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f LANY**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미국횡단] 감방에서 하룻밤? One night in a Old Jail ;) (55)

[미국횡단] Day 39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 Tornado did this things in Joplin Missouri... (16)

1 2 3 4 5 6 7

5줄 보기



쫄쫄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f LANY**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 A lot of thanks for following my journey ..

Dan, Peter, Xochitl, Connie, Staci, Vivian, Russell, Debbra and Ivana, Brigitte and more friends on FB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전 지금 뉴욕에 있어요.

허리케인 아이레네도 미국회단레이스를 멈추진 못했어요. 무사히 잘 넘기고- 며칠째 레이스 휴유증으로 몸과마음이 거덜난 상태랍니다...

새벽 3시 30분이면 눈이 떠지는 이 습관은 몇일이 지나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구요. 잠을 많이 자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네요.

27일 허리케인 경보로 대피령이 있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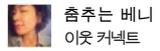
어제는 유니온스퀘어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처에 Whole Mart가 있더라구요. LA에서 가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죠. 우연히 발견해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베지테리안 메뉴들이 가득한 푸드코트랄까요? ^^ 코리아에게 익숙치 않은 베지테리안 메뉴들은 꼼꼼히 사진 찍어줬지요 ㅋㅋ 나중에 한국가서 함 시도해 보려고요~ :)

또 유기농 과일 야채들이 가득가득하고- 정말 사고 싶은게 너무 많았어요 ㅎㅎㅎ



- argyng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건국 쏫3333 라지엘리

1/ 1318

춤는 '님'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81  
1,353,541



휴...

하고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네요.

곧 한국에 돌아가니 그 때 빌게요 ^^

### 그동안 베니의 미국횡단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서 올고 싶을 때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많이 기운을 냈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너무 고마워요..

한국에 돌아가서 번개칠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와주세요!

베니의 블로그 이웃분들만 참석가능합니다 :)

이حت

세계여행, Canon\_EOS\_500D, 미국여행, 미국횡단, LANY

댓글 16    역인글 공감 8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온라인 호텔 예약 북킹닷컴](#)

배낭여행부터 출장, 허니문까지. 모든 여행에 알맞은 전세계 21만여개 숙박업체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모두투어온라인 세계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세계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었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미국횡단\] D65 드디어 뉴욕이 보이기 시작해요! I can see New York! \(8\)](#)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타블렛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1 2 3 4 5 6 7



쭈쭈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밤의 틈, 캘리포니아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Blank box for search or filter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Truxton California 2011.06.27

미국횡단 9일째 밤이 되어서야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피터와 라이너가 곤히 잠든 시각

스러져 가는 오래된 모텔문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여닫는 동작 하나에만  
진땀이 날만큼 심혈을 기울였다.

모텔을 빠져나와 밤의 틈으로 몸을 숨기자 웬지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늘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보니 나에게 쓰는 시간이 없어 술술 답답했다보다.  
이제야. 승룡이. 줌. 트인다-

히유~~~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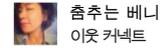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ajirim 베니 이웃 카레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건축 핫3333 라지엘리

1 / 1318

ajirim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한국식으로 생각하자면 강릉 해안가를 따라 다닥다닥 지어진 오래된 민박집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C자형태로 방문을 열면 건너편 방호수가 보이도록 서로 마주보게 지어진 모텔 아리조나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에 풍화될대로 되있는지 낡고 또 낡아 머지않아 바스라질 것만 같다.

그렇다고 내가 모텔방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다. 모텔문에서 겨우 세 발자국 떨어진 곳에 플라스틱 의자를 도로변을 향하게 앉히고 지친 몸뚱아리를 그 위에 다시 앉혔을 뿐이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차가워진 발공기를 계속해서 가득 밀어 넣자, 서서히 마음이 떨리기 시작한다.

가볍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를 뒤로 젖혀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몸을 길게 늘이고 기지개를 펴다 하늘을 올려다 본다.

아!

별들이 있었구나...

복두칠성이라... 사진을 찍어보았으나, 별빛이 아이폰에 담길리 없다. 한참을 별을 바라보았다.

목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개를 바로하고, 몸을 다시 접고 일어나 가볍고 삐걱거리는 하얀 플라스틱 의자를 모텔문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의자가 놀라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낡은 모텔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비틀었다.

일상·생각, iPhone\_4, 세계여행

덧글 9 억인글 공감 4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 모두투어온라인 세계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세계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 특가
- 다국적배낭여행 인터레피드**  
인터레피드 한국사무소, 소규모 다국적 배낭여행, 전세계 최대 50%할인.
-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 <베니의 미국횡단> 타블렛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타블렛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1 2 3 4 5 6 7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베니의 미국횡단 첫 이야기  
New Mexico Cuba!

글과 사진 / 춤추는베니  
www.dancingbeny.com



오늘은 속이 땡땡 풀리는 풍경사진으로 글을 시작할게요 ^^

뭔가 안풀려 속이 답답한 분들, 조금이나마 심리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미국횡단 20일째, 뉴멕시코 쿠바로 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피터를 먼저 보내고, 라이너를 기다리는 중에 심심해 졌어요.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즐추는 베니 이웃 카네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3333 라지엘르 kirin  
 1/ 1317

즐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 모두보기



날은 좋고 하늘은 푸르고 높기만 합니다~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76

1,353,536

하늘에 등실등실 예쁜 구름이 떠다니네요~

조기 나비구름 찾으셨나요? :)





쿠바로 가는 길

오늘은 바람도 없고 덥지도 않고~아주아주 쾌적한 날씨!  
하늘에 구름이 점점 많아 지고 있네요



가다가 멋진 곳을 발견하면 바로 파킹~





여기도 돌산 저기도 돌산~  
하지만, 너무 멋진 풍경들- 업서가 따로 없네요-  
멀리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애들아 안녕"



달리다 보니 먹구름이 또 몰려오네요~  
쿠바에 다왔나봐요! 쿠바쿠바~  
진짜 쿠바에 갈 날이 언젠간 오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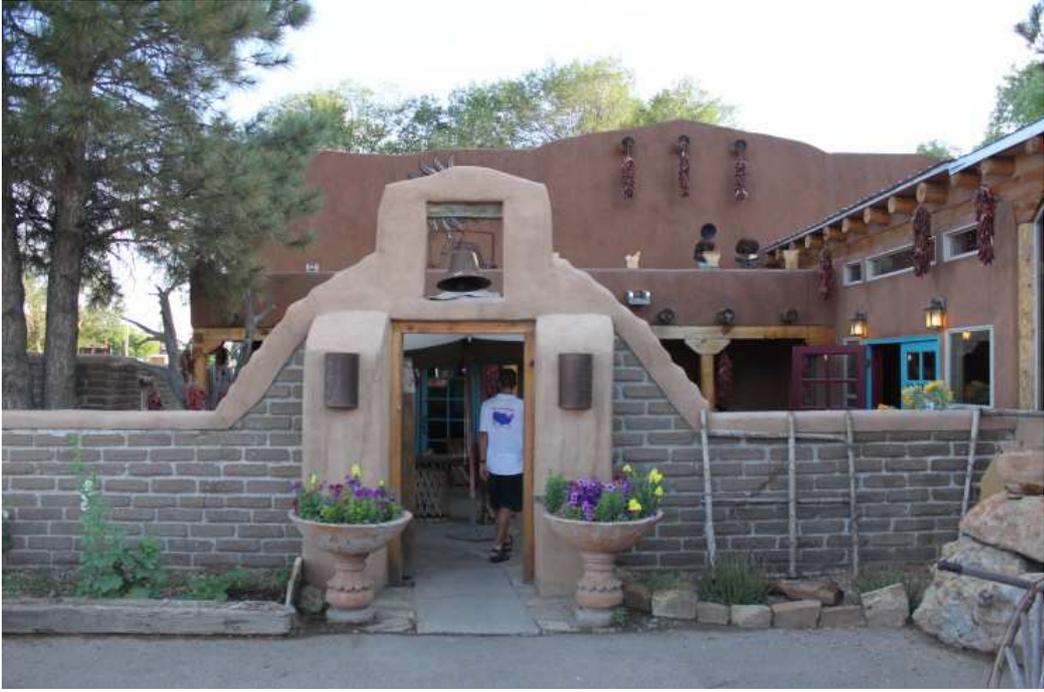


다시 날씨가 화창~

빨래를 다 마치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널어놓고는 저녁먹으러 일찌감치 나서는 길이에요. ㅎㅎ  
쿠바에는 멕시칸 레스토랑이 꽤 있더군요 ~냥냥



여기서 잠깐! 쿠바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베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미국의 쿠바~



레스토랑 입구  
분위기 어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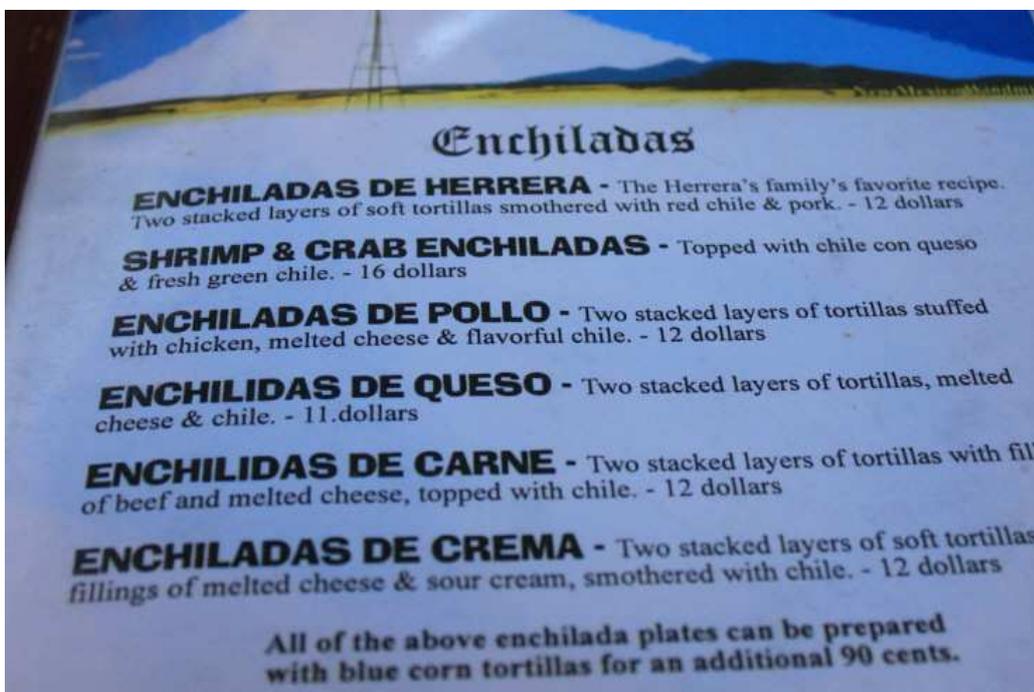
멕시칸들은 고추를 많이 먹는가봐요- 향신료로 많이쓰이는 것 같아요.  
마른 고추를 여기저기 걸어 놓았어요.



자리에 앉으면 서비스로 나초를 바로 내줘요-  
살사소스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전 나초를 좋아하지 않지만, 살사소스는 좋아요 @@  
매콤새콤~



메뉴를 고를 때 피터는 듣보가가 필요하십니다~  
도로위에서는 젊은사람 못지 않은 끈기와 파워를 보여주시지만, 퇴근하고 나면 귀여운 할아버지로 돌아오시죠 ㅎㅎ



이름을 못읽겠어요 ㅜㅜ ㅎㅎ

옆에 찍인 설명보면서 시켰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나네요.



매일 마시는 아이스티~

라이너는 꼭 설탕을 엄청 타서 먹어요. 설탕중독자.



저는 언제나 설탕 없는 아이스티!

미국에서 아이스티를 시키면 꼭 티스폰이 딸려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넣어 먹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기본샐러드~  
컬러나초를 슬라이스 해서 샐러드 위에 얹어 주더라구요+\_+ 호오



피터는 오늘 식욕이 많질 않은듯-  
가벼운 샐러드로 주문-

야구 글러브만큼 커다랗고 바삭바삭 구운 바구니 속에 담긴 샐러드는 정말 먹음직~

아이스크림처럼 두 덩이의 사워크림이 침샘자극~카-



베니 저녁 도착!!  
이름도 기억안나는 ㅜ\_ㅜ 으형 하지만 맛은 끝내주었죠-



꼭 삶은 붉은 콩, 싱싱한 샐러드도 한 움큼  
 질척한 볶음밥 같은 라이스도 한 움큼-  
 또띠아는 넓게 펼쳐진 치즈에 가려서 잘 안보이죠-

그 위에 탐스럽게 올려진 아보카도~해해

시원한 아이스티랑 먹으니 하루의 피로가 사악~



57번 바비큐 소스를 열심히 바르는 라이너-  
 늘 두툼한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

저거 먹고, 좀 이따가 커다란 햄버거 또 먹어요 ㅎㅎㅎ  
 라이너는 대식가~근데, 아무리 먹어도 배는 늘 날씬하다니...  
 미스테리. 블랙홀이 뱃속에 있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식전빵이 아닌 식후빵?

두 사람이 식사하는 중에 전 카메라를 들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내는 좀 어둡지만, 분위기 있죠~

실은 화장실 가는 길인데...



실내에 작은 샵이 있어서 또 구경 ㅎㅎ





독특한 분위기가 좋아서 구석구석 찍어봤어요



커피콩이 들어 있는 작은 주머니들 앙증맞아요~



고추피클같아요. 오른쪽 병에는 짬갈은 것이 들어 있어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드레스. 아우 저 블랙드레스는 입어보고 싶었어요 ~  
여름에 입고 싶다~



화려한 악세사리가 패션샵에 빠질 순 없죠~냉



멕시코스타일의 예수님과 성모마리아인가봐요.  
눈두덩이에 아이셰도우를 칠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 ^^  
속눈썹도 하나하나 그려넣고 말이죠~

미적감각이 뛰어나요. 멕시코에 가보면 알 수 있을 텐데 ~  
혹시 멕시코 여행 다녀온 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좀 알려주세요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서야 해질녘이 되었군요.

처마에도 붉은 고추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네요-



레스토랑 대문에도 아까 본 성모마리아?가 조각되어 있어요~

ㅎㅎ 우린 입구 바로 앞에서 밥먹는 중.

우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과 의자 디자인 독특하지요?



여기저기 많이도 걸려있는 고추들

우리는...

디저트 없이는 잘 일어서질 않아요. -\_-;;



이 두 사람이 먹는대로 같이 먹다가는 살이 엄청 찌겠지만, 디저트로 스페셜한 치즈케이크가 있다는 여직원의 말에 솔깃~ㅎ  
"그럼 한조각씩 먹고 갈까요?"



치즈케익 나왔을 때 완전 깜놀~

높이가! 무려 **15cm**는 될거예요 ㅎㅎ  
거기다 아낌없는 딸기소스가 ~~~



어찌겠어요?

맛있게 먹어야지요 ㅎㅎㅎ  
자세 히 보면 슈가파우더까지 있습니다 ㅎㅎㅎ

혀가 녹아내리는 맛~

너무 녹아 ㅏㅏ

웬만해선 남기지 않습니다 디저트.  
그런데 이걸 좀 너무하더라구요 ㅋㅋ

어쨌든 간접적인 멕시코문화체험 끝~

(그 뒤로 차이니즈 레스토랑만 다녔다는 이야기... ㅎ)

미국여행, 세계여행, Canon\_EOS\_500D, 미국횡단

덧글 42 역인글 공감 10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하나투어 미주여행 예약센터](#)

미국, 캐나다, 중남미, 미주모든상품 등 하나투어 미주여행상품 상담 및 할인예약.

[멕시코문화 레포트월드](#)

멕시코문화, 최신 추천레포트, 멕시코문화, 미리보기제공.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톨,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타블렛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1 2 3 4 5 6 7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베니의 미국횡단 첫 이야기

# Hello, Ohio

글과 사진 / 춤추는베니  
www.dancingbeny.com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카레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꽃3333



라지엘르



kirin

1 / 1317

춤추는 베니의 이웃의 새글보기

아~너무 덥다 더워~

나무그늘을 찾아서 자리잡은 사람들

피터는 이미 도착해서 편하게 쉬고 있네요-

Hi Peter~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친스플린 때문에 스테이지 러너가 된 바바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4,000KM를 돌파했네요.



우리가 마셔던 콜라가 4,000개는 훌쩍 넘을거예요~  
하루에 20캔 이상 마시는 라이너만 생각해도 후덜덜~

피를 콜라로 채워서 달린다고 착각이 들만큼 모두들 콜라만 마셔뒀거든요.  
사실 코카콜라가 없었다면... 이 대회는 아비규환?  
그런 의미에서 콜라는 정말 신성한 검은 물이었습니다.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76

무더운 오하이오 날씨속에서 다들 빨래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1,353,536

휴~바람도 안분다 오늘...

카메라를 들고 등지를 잠시 떠나 봅니다



멀리서 보니 파란날개를 곧게 뻗고 땅위에 내려 앉은 경비행기가 보여요

주변을 둘러보니 활공장으로 써도 좋을만큼 넓은 터가 잘 닦여 있어서 속이 뻥~뚫리는 기분을 만끽



어?

경비행기 주유소는 셀프인가?

경비행기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멀리서 경비행기 모터소리만 들려도 안테나를 세우는 사람인지라 두근두근두근!!!



우연히 만난 도나와 그녀의 남편은 피니쉬라인 근처에서 경비행기에 주유중이었다.

슬금슬금 그들에게 다가가 구경을 했다.

손을 흔들고 눈인사를 한 뒤에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정.

"저,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요"

(이미 몇 장 찍었지만..)

"괜찮을까요? @@"

-> 눈 똥그랗게 뜨고 물어봐야함. 착하고 귀여운척~

"아, 물론 괜찮아요!"

하, 이 언니 콜하다~콜해!



내 비행기가 아닌지라 어색어색 ㅋㅋ

여유있는 두분은 사진을 찍어주신다.  
흔쾌히!!

"한 번 타볼래요?" 라고 물어 보는 도나

(내가 흥분한걸 눈치챘구나?)



척! 하고 엄지 들어올리기!

아우. 파일럿 돌네~ ㅎㅎ



나무데크로 짜여진 계기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요 @@  
근데, 뭘 눌러야 시동이 걸릴까?



오랜기간 사용한 듯한 헤드셋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비행기에 올라타 보니 정말 신나더라고요~  
제 뒷쪽으로는 보조석이 있어요. VIP석이라고 불수도 있구요.

하지만, 저에게 어디에 앉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운전석에 앉아서 멋지게 비행하고 싶어요~  
영화 청년의 '경원'처럼요!



둘이 가끔씩 드라이브 비행을 하신다는 커풀~  
도나는 라디오스테이션도 운영하시더군요.  
비행 경력은 십년이 넘었고, 집에는 차고 옆에 격납고도 있겠지요~+\_+

한국에서는 경비행기를 공동소유로 구매하여 돌려가며 탄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선 개인 소유주들도 꽤 많을 듯해요.

국내에서도 개인소유주 있으시겠지요?  
참말 부럽습니다 @@



2011/08/12 Stage 55 Ohio

올만에 단체샷 ~

피터는 이제 71세가 되셨군요^^  
얼마전에 생일이셨어요. 기념여행으로 와이프와 남아프리카 가신다고 자랑을 ㅎㅎ

세계여행, Canon\_EOS\_500D, 미국여행, LANY

덧글 28 | 역인글 공감 8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달양항공**

경비행기, 초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취득, 군조종장학생, 항공대학지원자 비행교육.

**G마켓 경비행기**

경비행기, 아기비행기, 뽕뽕이비행기, 자동방향전환, 장난감, 사은품, G스탬프.

**온라인 호텔 예약 북킹닷컴**

배낭여행부터 출장, 허니문까지. 모든 여행에 알맞은 전세계 21만여개 숙박업체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코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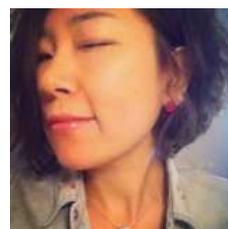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저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오픈했어요 ^^

작년에는 <베니의 미국횡단>을 스마트PC 또는 아이폰으로 보는 태블릿잡지에 연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잡지안에 여행기가 소개 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권의 ebook처럼 아이폰에서(안드로이드도 준비중이에요)  
다운받아 보는 Card Book을 소개합니다.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 카드북은 무엇이지?

<http://www.cardbook.com/guide>

카드 한 장 앞, 뒷면에 사진이나 글, 음악 등을 담아 스마트폰에서 쉽게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랍니다.  
여러장의 카드를 묶으면 카드북이 완성되는 거지요-

ebook과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합쳐 스마트폰용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에  
미국횡단 여행기를 올렸어요 ^^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카드북을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진을 고르고 내용을 짧게 다듬고 또 사진 편집하고 포토샵작업 등등 ㅎㅎ)

어쨌든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ㅠ\_ㅠ

###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 CrossAmerica1(미국횡단레이스1)

카드북 이미지를 몇 장 보여드릴게요 ~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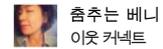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꽃3333 라지엘르 kirin

1/ 1317

춤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ou  
facebook



Name:  
June Ryo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에브리북  
DONNA LIVING



1,271  
1,353,531

# LANY Footrace 2011

LA부터 뉴욕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장거리 레이스  
70일동안 5,200km를 달린다.

참가인원 : 14명의 Runner, 2명의 Biker



- 피터 바텔(70, 독일) Kick Biker**  
최고령 참가자, 2009 유럽중단레이스 완주
- 라이너 코호(30, 독일) Runner**  
최연소 참가자, 2009 유럽중단레이스 우승
- 류준(34, 한국) Writer**  
두 사람의 서포터

당신에게, 미국을 횡단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당장  
여행가방을 꾸리겠습니까?

70일의 시간과 로드북, 1,000개의 콜라와  
10컬레의 운동화를 무료로 드릴게요.

규칙은 단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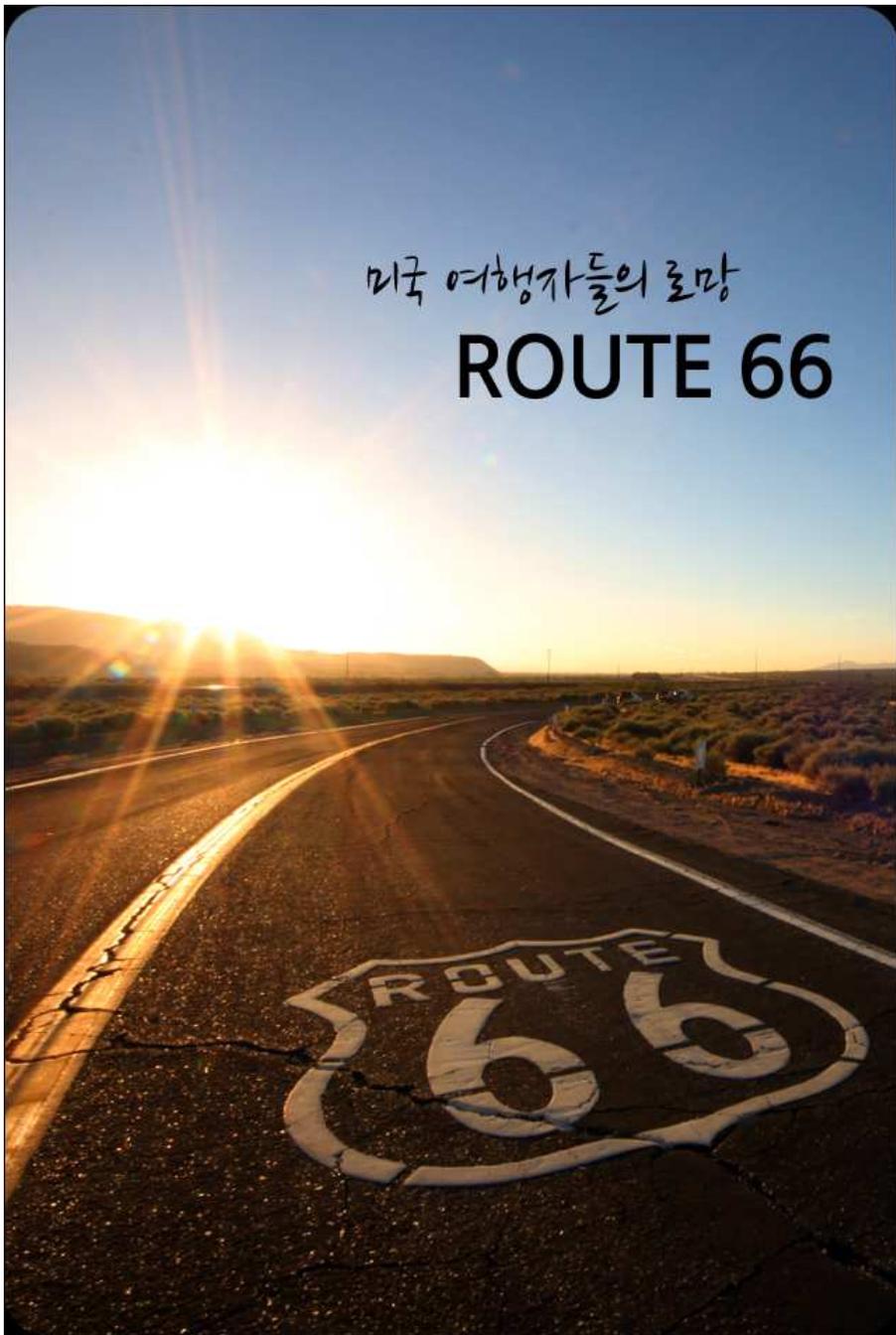
하루도 쉬지 않고 LA에서 뉴욕 센트럴파크까지  
70일 안에 도착하면 됩니다.  
물론, 당신의 두 다리만 이용해서요.

아, 원하신다면 개인 서포터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길 위를 혼자 달리는 것은 지독하게 외롭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테니까요.

# LA 헌팅턴비치의 푸른 새벽





미국 여행자들의 로망  
**ROUTE 66**



2011.06.27 미국횡단 레이스 9일째

철인 3종경기를 일 년 내내 한다 하더라도 매일 같이 1등을 차지할 것 같은 강철 체력 짐승남 '라이너 코흐'

2009년 유럽종단 레이스에서도 4,500km를 64일 동안 달리며 1등을 놓치지 않더니 결국 가볍게 우승한 남자 시간당 12km를 달리는 초인 @@

"언젠간 너를 꺾고 말리라!"

그를 만나 본 전세계 울트라 마라토너들의 피를 끓게 하는 넘사벽

그런데, 언제, 누가, 라이너를 이길 거냐구?  
제발 그런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공짜로 Full Support해 드립니다!!!

• 아리조나 트렁스턴 (Truxton AZ)



뭐 이런식이구요 ^^

<http://www.cardbook.com/category/217/cardbook/361>

위의 링크를 누르면 구매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미국횡단 1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ㅎㅎ

그리고 카드북을 보려면 '카드 뷰어'를 다운 받으셔야 해요 ^^

앱스토어에서 '카드 뷰어' 검색해서 다운~

olleh 5:18 91%

← 검색 정보

 **카드 뷰어**  
TouchN Inc.  
★★★★★ 리뷰 없음 설치됨

포토카드, 메시지카드, 여행카드, 축하카드... 웹에서 만든 카드를 아이폰에서 즐기자!!

Features

- \*아이폰의 선명한 화면에서 touch와 swipe 방식으로 카드를 넘겨 볼 수 있습니다.
-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이 만든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북마크 기능을 통해 맘에 드는 카드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 \*카드박스의 편집 기능을 통해 아이템을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제작중인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카드뷰어 2.0 버전에서는 아이폰에서 직접 포토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 카테고리 인기 25 검색 업데이트

그리고 cardbook.com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기본서재에 다운받은 카드북이 보여요 ^^

아래는 베니의 기본서재-

2부 제작중입니다 ㅇㅎㅎ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경험해보세요 ^^  
안드로이드에서도 곧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쓰다보니 이런 일을 하게되네요 ~

관심있는 분들은 다운받아 보시고 감상평 남겨주시면 2,3부 제작에 큰 도움이 될거예요 ~🙏

휴~일단 아이폰에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동영상도 넣고 재밌게 구성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미숙한 저이기에 ㅎㅎ  
차차 나아지겠죠 ^^

그럼, 복습~

1. 미국횡단 1부 카드북 다운

- 2. 카드뷰어 다운
- 3. 미국횡단 읽고 후기 남기기 ㅎㅎ

미국횡단 1부 다운받기  
<http://www.cardbook.com/category/217/cardbook/361>

카드뷰어 사용안내  
<http://www.cardbook.com/guide/cardviewer>

세계여행, 미국여행, 카드북

덧글 38    역인글    공감 13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3    보내기    인쇄

**G마켓** 카드북

카드북, 온라인쇼핑몰, 매일 초특가 이벤트, 노을선 세일, 오늘만 특가상품 추천.

**11번가** 카드북

카드북, 문구세트, 팬시용품, 사무용품, OK캐쉬백 11% 추가적립.

미국여행 에스플라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츄츄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베니의 미국횡단 첫 이야기  
Endless Corn fields

글과 사진 / 츄츄는베니  
www.dancingbeny.com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댓글 0

category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다이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미국은 정말 거대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확히 말해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미국대륙'은 압도적인 크기이지요. 호주대륙을 자동차로 훑을 때에도 느꼈던 '거대한 행성'을 탐험하는 착각이 들 정도니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 극대화 되는 순간은 일정한 패턴을 하루종일 지나쳐 갈 때입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사탕수수밭, 바나나밭... 아니 밭이란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네요. 필드 또는 초원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작은 베니의 블로그

최대 넓이 740px, 미국의 콘필드를 감상해보세요. ^^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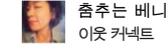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는 베니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꽃3333



라지엘르



kirin

1 / 1317

춤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저자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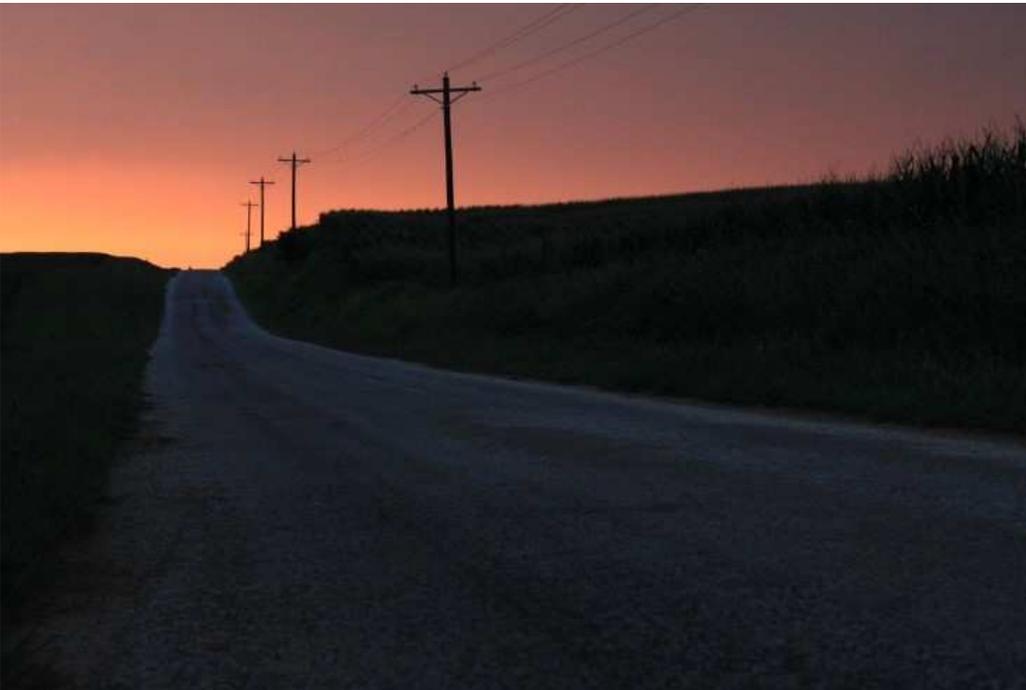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68**

**1,353,528**









밴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내친길에 아침까지 먹었어요.  
미리 준비 한 커피(다 식은 ☹)와 크림치즈 듬뿍 바른 딱딱한 베이글

해는 떴지만, 굉장히 흐린 날이었어요.  
주변에는 농가도 없어서 낮게 깔린 먹구름과 옥수수나라만 바라보며 조용히 보낸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대기의 기운이 러너들의 명량함도 흡수했는지 저를 스쳐가는 사람들 대부분 말없이 손인사만 건넸답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일찍 체력이 바닥나거든요



결국 비가 왔지요



하루종일 이어지는 옥수수밭. 아니 옥수수나라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쳐다 봐도 똑같은 풍경이 절 기다리고 있어요.  
시골길이라 도로이름도 없어 맘만 먹으면 길을 잃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속에 갇힌 기분이 들어 조금 초조해 집니다.  
시계와 지도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최대 30분.  
**\*세상밖으로 사라지기\*** 라도 해볼까?



하~ 하루종일 직진만 하다가 무작정 좌회전!  
그래도 똑같은 풍경이지만, 작은 변화는 늘 흥분이 되기 마련이죠~

하~

크게 심호흡 하고!



벤위로 기어올라가 일단은 눕습니다.

소나기가 한차례 지나간 뒤로, 조금씩 햇빛이 강해지고 있네요.  
요기서 조금 누웠다 가렵니다.

내가 루트에서 벗어난 걸 아무도 모르겠조?

"나는, 자유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아나케와 라이너





남편 패트릭을 기다리는 파비안느



오늘도 멋진 일출을 담고 있는 라이너,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담아내는 나



멋진 아침이지요?

(셀프 안구정화 T.T)



오늘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 옥수수들아~



오늘은 용기를 좀 내볼까해



너희들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이야.

문 좀 열어 줄래?



세계여행, Canon\_EOS\_500D, 미국여행, 미국횡단

덧글 31 | [역인글](#) | [공감](#) 11

[구독하기](#) | [북마크](#) | [미투](#) | [보내기](#) | [인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 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카메라대여업체는 에스엘알렌트](#)

캐논 eos500d 저렴한 카메라대여 1만5천원, 강남점, 합정점, eos500d

[미국여행 현지여행사 드림투어](#)

미국, 캐나다 여행, 항공권, 호텔 전문. 뉴욕, 워싱턴, 올랜도, 밴쿠버 관광.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  
 해주세요 ^^ 원고청  
 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1 2 3 4 5 6 7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뉴멕시코를 지나면서 산타페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라이너와 피터가 일찍 들어는 바람에 레이스가 일찍 끝나서 자유시간을 이용해 산타페로 달려갔지요!  
 산타페~어릴 땐 차 이름인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 뉴멕시코의 주도입니다.

이름도 너무 예쁜 "산타페!"

미국에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뉴욕과 산타페는 꼭 재방문 하고 싶어요~+\_+

어쨌든 산타페여행은 수박겉핥기 식의 관광이 되었지만, 4시간 동안 걷고 또 걷고!!!  
 라이너랑 다닐때는 빨리 빨리 걸으며 워킹트레일미션을 완수해야 하거든요. 10여km 혹은 그 이상이였을지도?  
 얇은 지정 된 트레일을 다 돌고 오면 스탬프를 찍어 주는데, 라이너는 이 스탬프를 콜렉팅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각국에 있는 트레일을 돌며 세계여행을 하는 달리는 사람? 음. 라이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에서 할 생각입니다.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미디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짠~ 산타페 날씨는 끝내주세요.  
하늘색 팔레트위에 구름물감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산타페는 컬러의 도시! 주차장 모서리도 알록달록 ~ 첫인상이 아주 좋네요 :)



여기는 산타페의 Visitor Information Center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카네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33333**  **라지엘르**  **kirin**

1/ 1317

[춤추는 ..남이웃의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66  
1,353,526

간단한 팜플렛을 얻어 돌아다니면 좋겠죠?



하지만, 진짜 방문목적은~ 라이너가 원하는 워킹트레일 확인서를 받으러 왔어요.

트레일을 다 들고 오면 여권사이즈의 작은 수첩에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베버리힐즈, 헌팅턴비치부터 그랜드캐니언까지 트레일을 같이 걸었는데... 점점 체력적 한계가 T\_T  
그래서 산타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라이너를 따라나서지 않았어요 ㅎㅎ

라이너는 보통사람 3배 이상의 체력을 가졌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암튼 간에 ㅎㅎ



트레일은 비지터센터에서 시작해서 산타페를 가로질러 도시 외곽까지 한바퀴 빙~돌고 비지터센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떠나려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에 눈이 달린 것 같아서 찍어봤어요 ^^  
귀요미 자동차 ~

자 그럼, 산타페 풍경 사진으로 감상해 보세요~











로레토 성당



성당 앞에 플라마켓에서 큰조카 하람이 줄 선물을 샀어요.  
사자인형을 사다달라는 선주문이 있어서, 수제인형 사이에 사자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아주 컸답니다 ㅋㅋ





알록달록한 장난감이 많은 장터



그림가격을 흥정하는 아티스트와 손님



인디언 전통악기 였던 것 같은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



커피콩이 들어 있어요 @@



플리마켓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길을 건너고



커피숍보다 레스토랑보다 갤러리가 많은 산타페

귀여운 곰들이들이 안녕안녕~

어딜가나 예술품들이 즐비한 곳이라, 카메라가 실 틈이 없어요 @@



수사슴의 뿔이 멋지죠?



동물앞에만 서면 발길을 떼지못하는 저예요



우아~ 정말 멋진 독수리상이네요!  
금방 날아갈 것 같아. 오른쪽으로 묘한 표정의 곰이 보이세요? ㅎㅎㅎ  
그 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아이들도 동상이구요

시커먼 버팔로, 앞다리를 높이 들어 올린 말도 있고... 아 멋지다 멋져~ 다들 예술이네요





뉴멕시코의 심볼이 레드칠리가 아닐지... 심각하게 고민해봅니다.

매운고추 좋아하는 한국사람들, 뉴멕시코에서는 잘 살 수 있을거라 의심치 않구요 ㅎㅎ



태양신의 모습일까요? 익살스러운 태양의 얼굴이 너무 귀엽죠?



여기는 극장인가 봅니다.  
건물 장식의 디테일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스페인의 문화와 인디언의 문화가 절묘하게 믹스되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된 산타페.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진찍을 거리가 풍성한 곳이에요.

사람 구경보다 더 재미있는 산타페 거리와 건물들 갤러리 구경... 아아 몇날 몇일 머물고 싶은 곳이었어요



인도의 리샤처럼 자전거로 사람들을 관광시키는 남자도 보이네요.  
근데 멋지다 팔근육 @@

팁 막 주고싶다 ~



시원한 산타페의 하늘



날이 굉장히 무더워서 거리에 사람들이 없나 했더니...  
공원에 다 모여있네요

공원안으로 들어가면 엉덩이 다 내놓고 노는 젊은이들이 많고, 길거리 연주하는 예술가들도 많아 볼거리가 풍성해요.





틈틈히 쇼핑아이템을 찾아 보기도 합니다.  
화려한 웨스턴부츠가... 부츠가 너무너무 탐이 났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너무 고가이므로 구경만 실컷했어요.  
사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난한 여행자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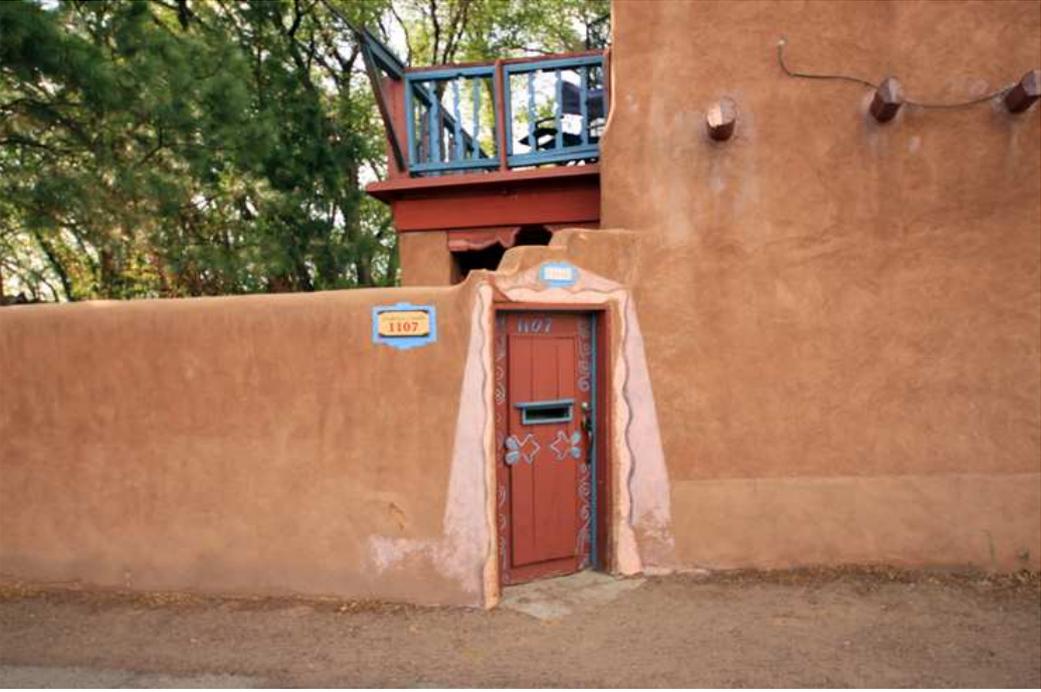
이정도 장신구는 화려한 축도 아닙니다.



휴~ 드디어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 주거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병~ 뽕린 넓고 넓은 앞마당이 마냥 부럽네요 ㅎㅎ





산타페의 큰 특징은 바로 어도비 주택양식이에요.  
토담집을 연상시키는 황토색 집들이 너무 예쁘죠?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것이 모로코 사막지역에서 많이 봤던 집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산타페뿐 아니라 뉴멕시코에서 많이 보이는 요런 디자인의 집들은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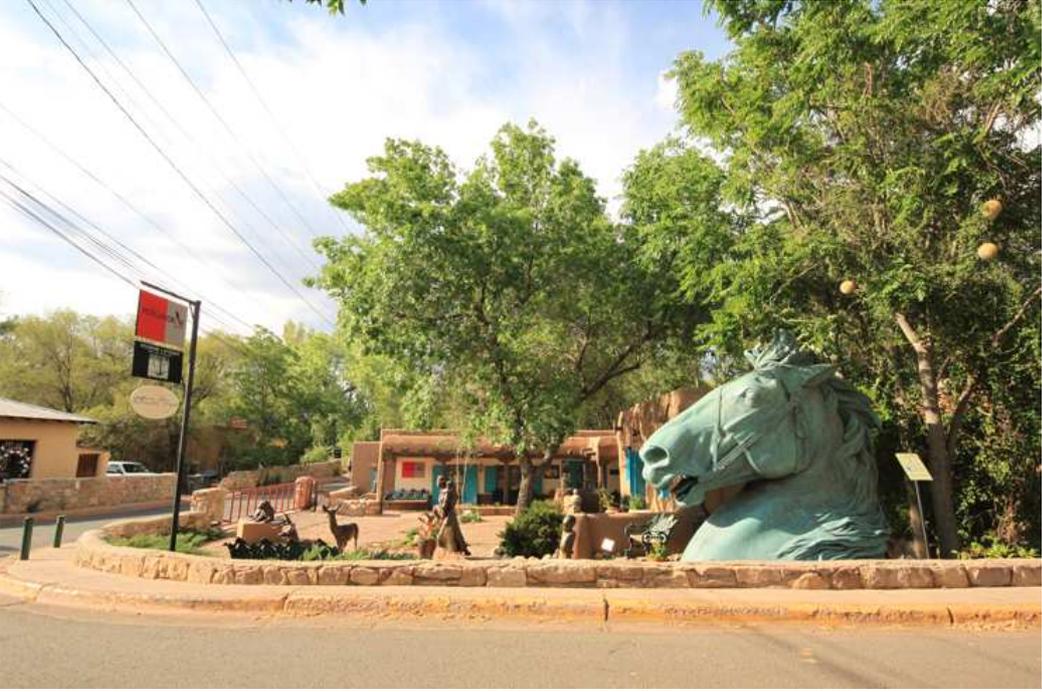


산타페 갤러리들의 집합체! CAYON ROAD!!

파주 헤이리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 예술인이죠?  
사는 집이 갤러리고 갤러리가 그들의 삶의 무대인 헤이리 마을.  
산타페의 헤이리마을은 캐니언 로드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이 곳 주민들은 대부분 예술가들이고 갤러리를 하고 있지요.  
구석구석 돌아 볼 여유가 없어 너무 아쉬웠답니다.





열심히 걷고 또 걷고-

오늘 밤에는 잠이 참 잘오겠습니다 그려.. 허허허~



요거트가게에 왔어요~  
셀프요거트만들기 도전

과자, 초콜릿 과일 등 원하는 토핑도 마구마구 ~ 달달한 소스도 여러개



무게를 달아서 돈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놀라랑 초콜릿을 얹어 먹었던 것 같은데



무지 힘들었던 트레일을 마치면서 프로즌요거트~ 로 충전~

미국횡단하면서 덥고 지칠 때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커피만한 것이 없었는데, 요요요 프로즌 요거트의 상콤달콤한 맛도 정말 잊을 수 없네요 ^^

세계여행, Canon\_EOS\_500D, 산타페, 미국횡단

덧글 27    역인글 공감 14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No.1 산타페DM 동호회**

현대자동차 산타페DM 동호회, 페이스리프트 정보, 튜닝 및 공동구매 정보제공.

**모두투어온라인 세계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세계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특가

**캐논코리아 공식사이트**

김수현 고아라의 canon, DSLR, 익서스, 파워샷, 쏟아지는 선물 이벤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1 2 3 4 5 6 7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베니의 미국횡단 Owensville in Mist

글과 사진 / 춤추는베니

www.dancingbeny.com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미국 미주리주를 떠올리면 습도가 굉장히 높았고 아침마다 안개낀 멋진 일출을 실컷 구경했다는 점이예요. 더운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도시가 아닌 숲속에 있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미주리주는 어딜가나 숲과 나무가 풍성한 곳이었답니다. 산소의 밀도가 더 높고 촉촉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제 착각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웬스빌을 향해 가는 길 아침풍경입니다.

편안히 감상해 주세요 ^^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미디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ajirim  
이웃 캐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꽃3333



라지엘르



kirin

1 / 1317

ajirim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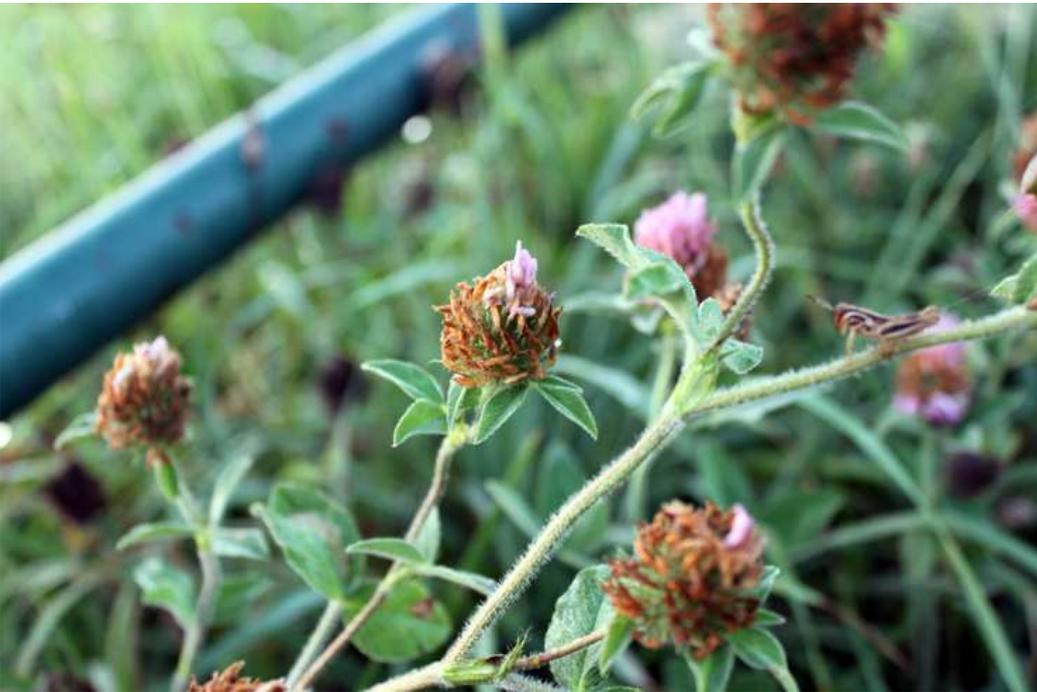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63

1,353,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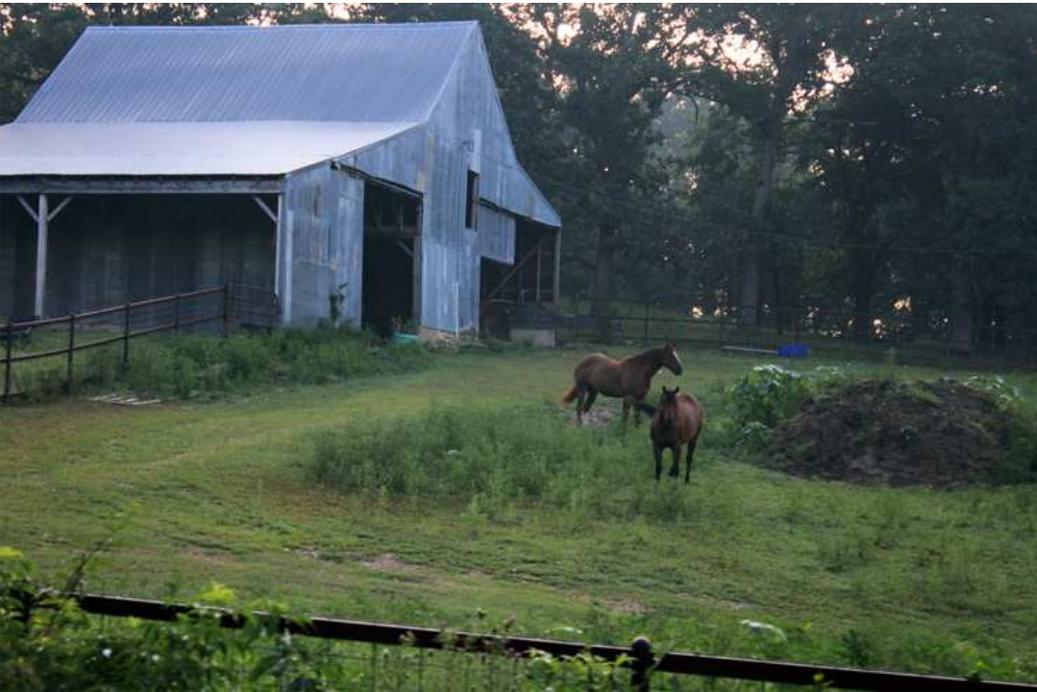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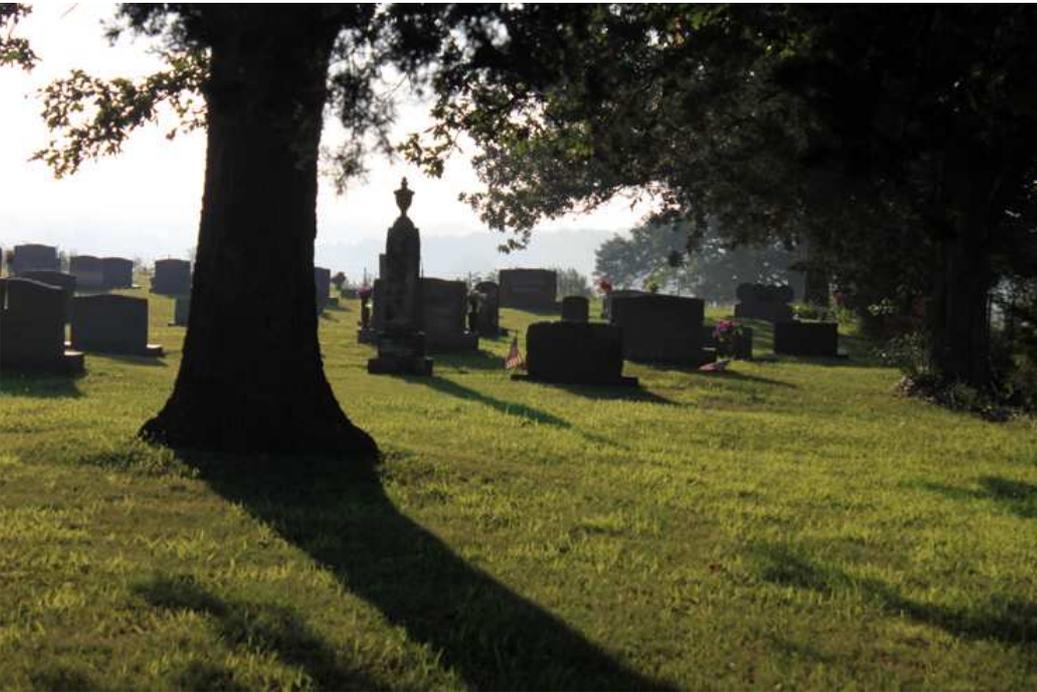














세계여행, 미국여행, 미주리, Canon\_EOS\_500D

덧글 48 **11** 역인글 공감 18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4   보내기   인쇄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 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11번가 EOS**

EOS, 디지털 액세서리, 케이스, 보호필름, 24일까지, 롯데카드 7%추가할인.

미국여행 현지여행사 드림투어

미국, 캐나다 여행, 항공권, 호텔 전문. 뉴욕, 워싱턴, 올랜도, 밴쿠버 관광.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1 2 3 4 5 6 7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 베니의 미국횡단 Fire Staion

글과 사진 / 춤추는베니  
www.dancingbeny.com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미디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제 머릿속에서 '소방서라는 곳'은 긴장감이 팽팽히 감도는 장소, 무지무지 멋진 소방관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로 만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만 ^^

미국여행 중에 소방서에서 잠을 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잠자리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여행은 제가 잠자리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70일 동안의 잠자리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

## "지붕 있는 집에서 자는 것만 해도 어디야?"

불평이 있을 법도 하지만, 미국횡단 레이스라는 특수한 상황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하죠 ㅎㅎ 몸이 고단한 여행을 하다보면 이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 씨익

소방관들이 없는 텅 빈 소방서의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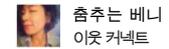


이른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내부가 어둡죠 @@



조리개를 좀 더 개방~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1 / 1317

즐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생활의 즐거움을 주는 예쁜그릇  
DONNA LIVING

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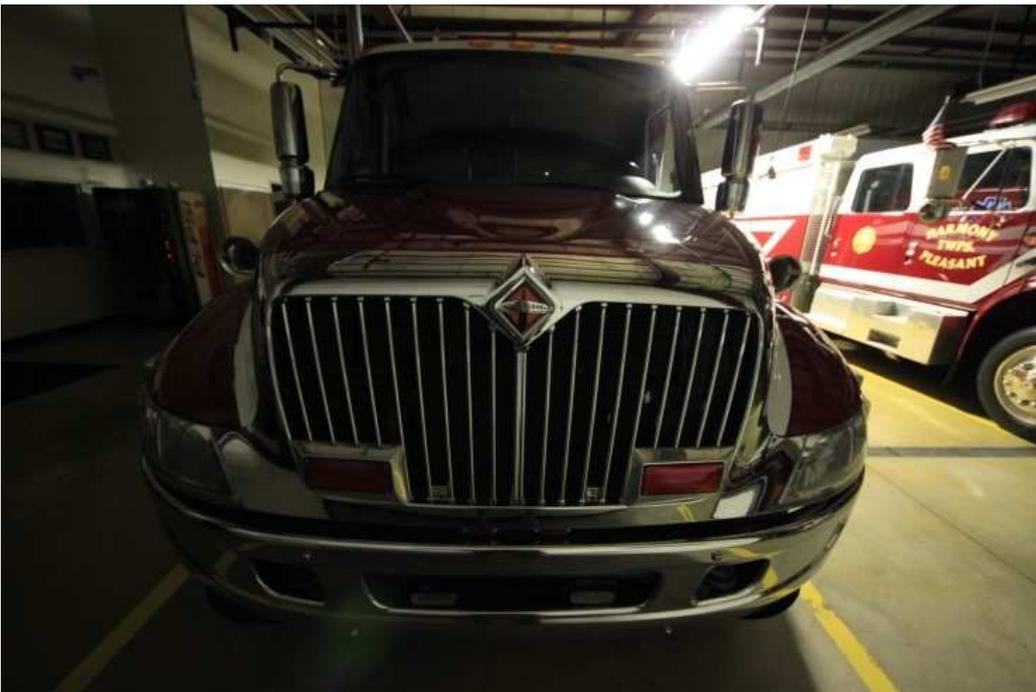
1,353,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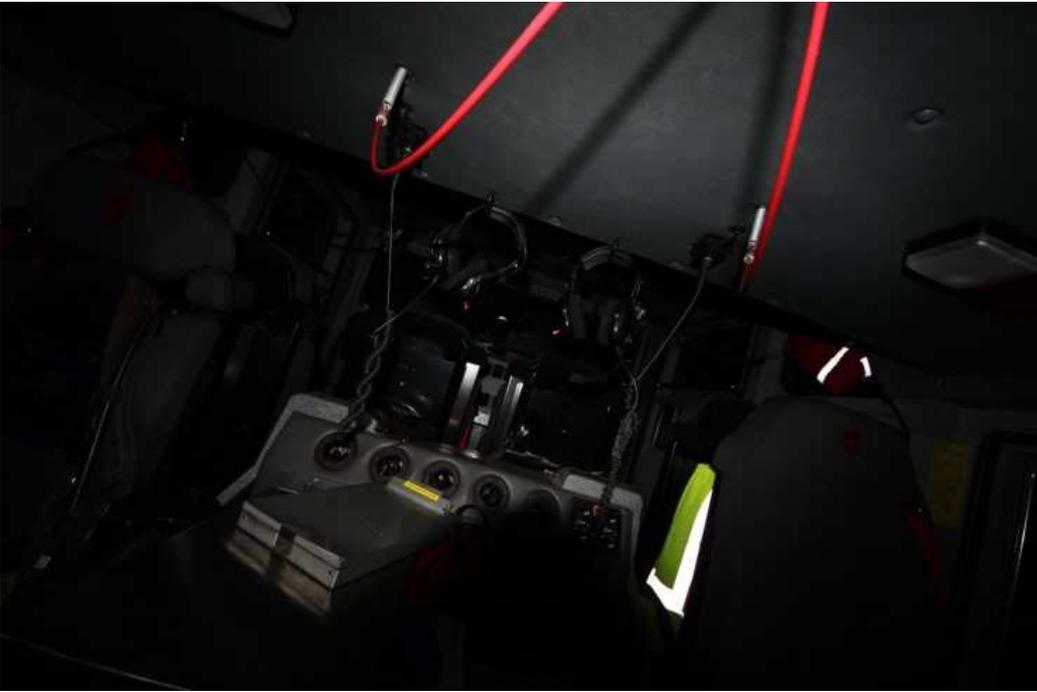
반질반질 윤이나게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  
차들이 새것같아요.



총 3대의 불자동차~들찍해 보이네요



앞모습이 좀 틀린 소방차. 우아.  
웬만한 자동차 뺨치는 디자인이네요! 저도 갖고싶어요+\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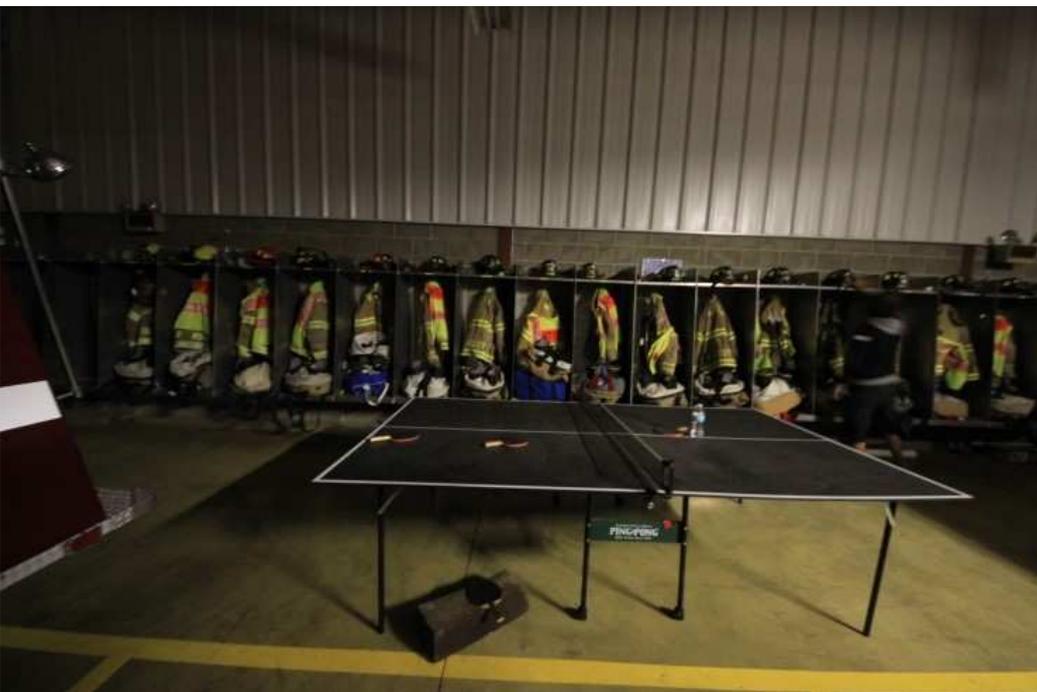
내부가 궁금해서 찰칵찰칵





서둘러 찍고 문을 닫으려다 보니까 흔들렸네요 ㅎㅎㅎ

^^;



이 소방서에는 몇 명의 소방관이 있을까요?



탁구를 하며 자유시간을 갖는가 봐요 ^^



사물함에 유니폼들이 가지런히 걸려있어요.  
그런데... 유니폼 구경하다가 막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ㅋㅋㅋ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 놓은 것 처럼 바지를 벗어서 올려 놓았네요.  
여기 있는 모든 유니폼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처럼 게을러서 바지를 저리 벗어 둔게 아니라,  
출동할 때 옷입는 시간을 1초라도 단축하기 위한 노하우 인것 같더라고요 ^^

장화까지 한 뭉으로 벗어 두셨더라고요 @@



아침에 여유가 있는 마우로, 시모네는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네요



전... 이걸 뭐 -\_-;;;

워하려는 거냐면...



그냥 한 번 써보고 싶었어요 @@



성공 ㅎㅎㅎ

땀냄새가 진동했지만, 헬멧을 써보니 심장이 쿵쿵거리더라구요 ^^

잠시나마 다른 분의 목숨을 지켜주는 안전모를 착용해보는 것으로 소방서탐험을 마쳤지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해요 -  
봄이 오기 전까지는 감기조심하세요 :)

Canon\_EOS\_500D, 세계여행

덧글 29 역인글 공감 5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보내기   인쇄

소방서사진 오픈애즈

정액제, 사진, 일러스트, 템플릿 등 14개 분야 무제한다운로드, 매일신규업로드.

모두투어온라인 세계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세계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 특가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소방서의 추억 (29)**

[미국횡단] 안개를 만드는 마을 Owensville (48)

[미국횡단] 태양과 예술의 도시 산타페를 아시나요? (27)

[미국횡단] 끝없이 펼쳐지는 일리노이의 옥수수행성 (31)

베니의 카드북 Cross America 오픈! (38)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ent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1 2 3 4 5 6 7

5줄 보기



쑤쑤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베니의 미국횡단>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여러분 신나는 소식이 있어요!

태블릿PC용 잡지에 제 기사가 들어갔어요 ~우헤헤 언제 올라오나 기다렸는데, 드도 심사가 끝나고 올라왔네요 :)

제가 심평원 웹진 <건강나래>에 채식요리, 호주자동차 여행을 연재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달 부터 <미국횡단>여행기를 실고 있었는데, 10월호부터는 매거진으로 탄생했네요 ^^

저는 아이패드 없지만, 다행히 아이폰은 있네요!

다른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아이패드랑 아이폰은 확실히 됩니다 :)

아이패드, 아이폰을 꺼내서 <더매거진> 다운받으세요~

더매거진 The Magazine이란 이름의 어플검색해보세요~

중요한것은!! 이 잡지는 무료입니다.

아이폰으로 보는 화면 캡쳐해 봤어요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category

- 전체보기 (570)
- 베니의 채식스타일
- 채식요리 (93)
- 채식간식 (28)
- 채식베이킹 (6)
- 채식맛집, 카페 (52)
- 채식여행 (1)
- 현미미디어트 (7)
- 채식/건강 생활 (57)
- 베니의 여행스타일
- New York (9)
- Cross America (34)
- Cross Europe (11)
- Drive Australia (27)
- Sahara Desert (25)
- City of Europe (9)
- Australia life (25)



더매거진 어플리케이션 다운!

- ajirim Africa (6)
- 베니의 일상 (1)
- Live in Korea (100)
- Travel Korea (32)
- 아이폰 라이프 (11)
- 베니의 리뷰 (18)
- 휴식, 커피/디저트 (13)

 **즐추는 베니**  
이웃 카레트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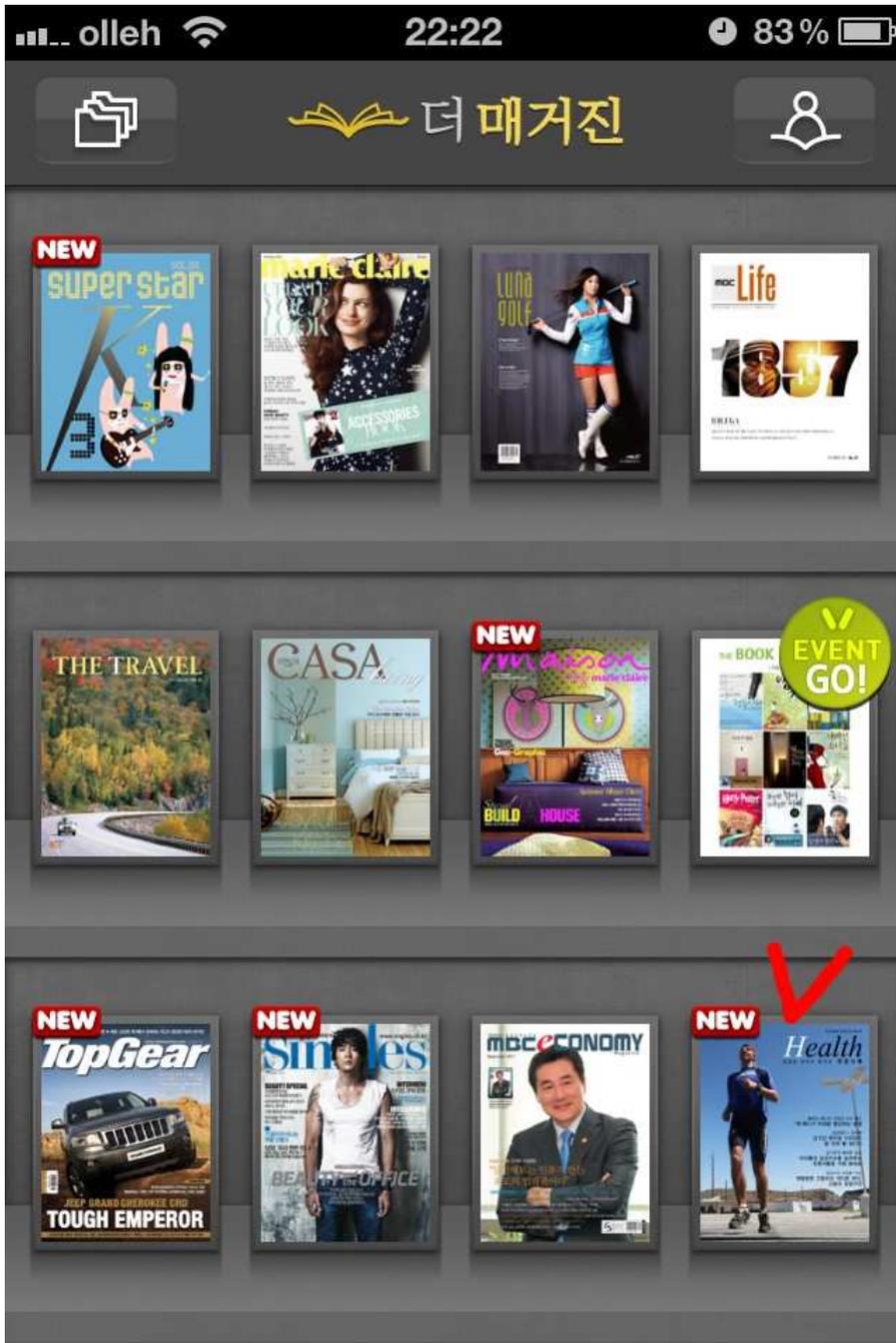


1 / 1318

[즐추는 ..님 이웃의새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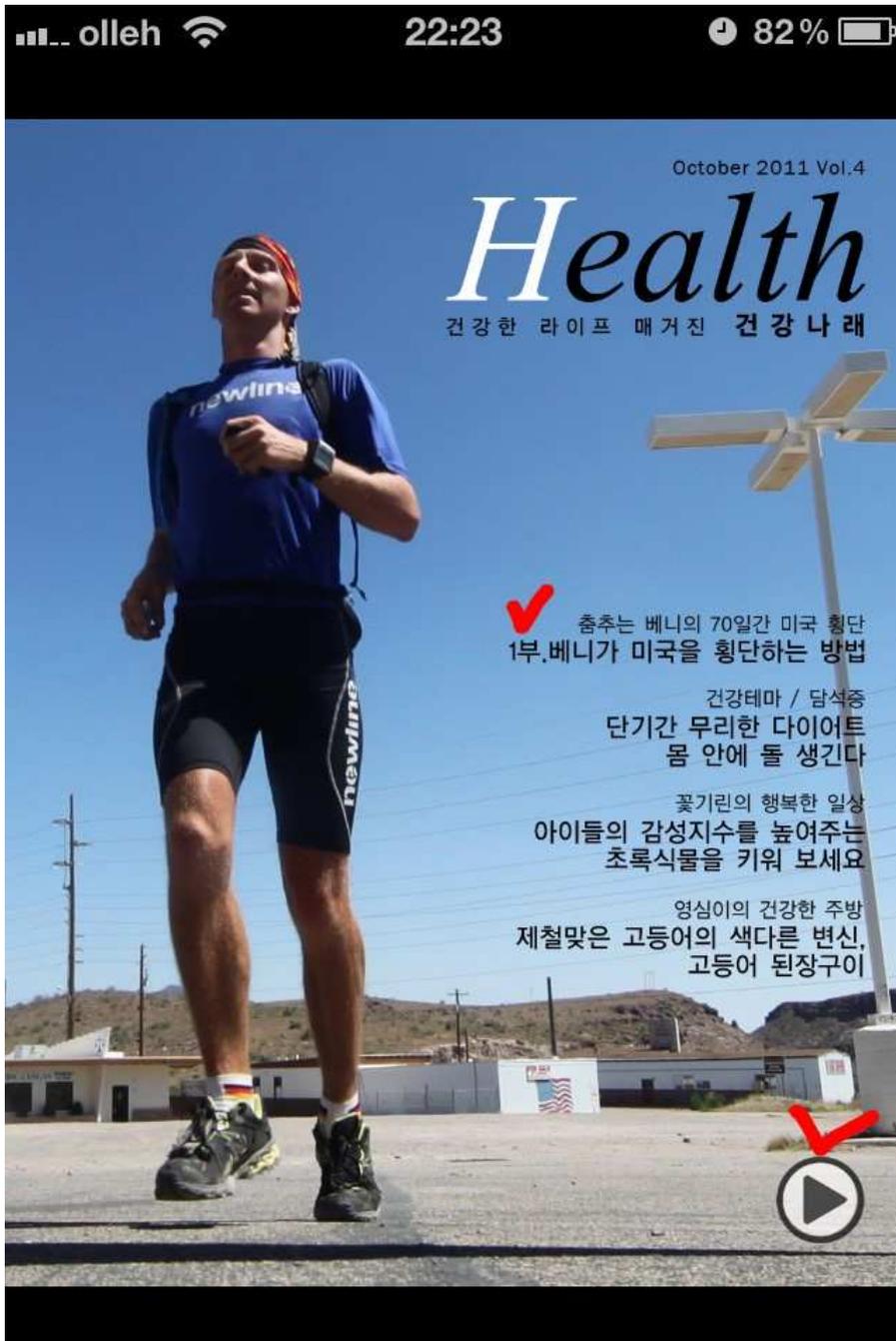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이 안에 있는 잡지들은 모두 공짜로 받아볼 수 있어요 ^^

자 하단에 있는 Health란 단어 보이시죠?  
그리고 익숙한 얼굴- 라이너



라이너.. 출세했네 @@  
워낙 유명인사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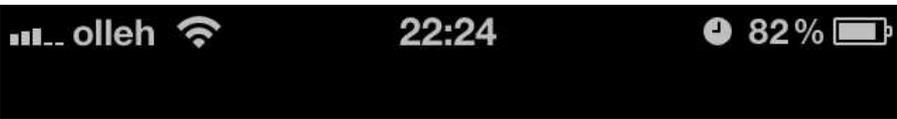
"한국에서 매거진 커버에 등장하는 일은 처음이지?"

커버스토리가 바로- 베니의 미국횡단 이야기예요 ^^  
영광입니당 ㅎㅎㅎ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요런 동영상~



그렇게 일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2011년 6월 19일 새벽 5시 30분,  
미국 LA 어두운 헌팅턴 비치 입구에 40여개의 헤드라이트가 초조하게 반짝거립니다.

낯선 얼굴, 익숙하지 않은 기상시간, 긴장이 덜 풀린 다리근육들  
뉴욕을 향해 달리는 70일간의 5,200km의 대 여정이 시작되기를



**LA-NY Footrace 2011**  
June 19th - August 27th  
3200 miles in 70 stages

Information of LA-NY Footrace 201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 뉴욕시 타임스퀘어까지 70일간 5,200km의 거리를 달리는 미국횡단 레이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 대회에서는 7개국 16명이 도전, 10명이 완주 할

최고령자인 피터 바턴(70세, 독일)과 대의 우승자이자 최연소자인 라이너 코흐(30세, 독일)는 모두 다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공식홈페이지  
<http://www.lanyfootrace.com>

**Race schedule**  
April 19th 2011 - Schedule subject to change

### 검은 새벽바다를 가르는 한 마디

Runners get ready! On your mark~

Go!!!

### 자, 이제 시작이구나

28개의 런닝화가 아스팔트를 치고 나가는 경쾌한 리듬과 내가 만들어내는 심장박동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오늘은 음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

모두들 즐거운 런닝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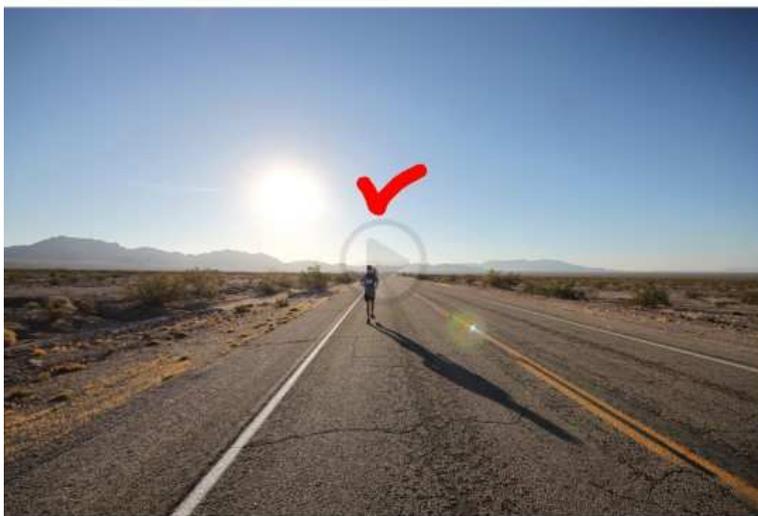


미국횡단 이동경로





피터(70세, 독일)는 페달이 없는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 중



모하비사막을 가로지르는 라이너(30세,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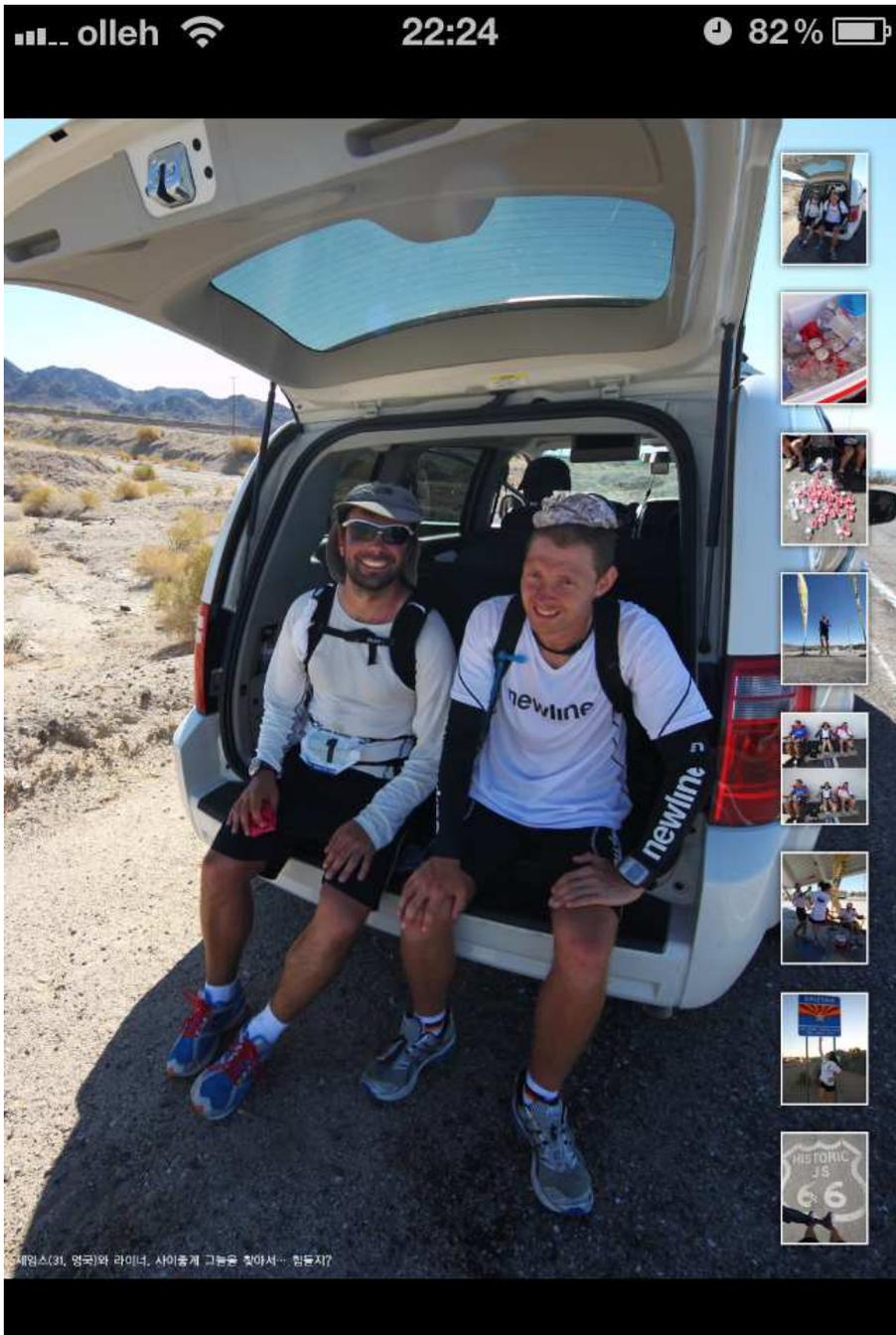


총 4가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보이면 무조건 클릭!

애들은 채택 안된 동영상들인데요-  
100메가 넘는 건 안올라가 지네요 @@

아이패드나 아이폰 없는 분들도 많으실테니, 짧은 동영상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



여러 사진을 한페이지에서 @@

e-magazine의 장점이지! 동영상과 페이지내에서 여러사진 돌려보기!



### Route 66 바그다드 카페

전 잘 몰랐는데, Route66이 미국횡단 여행루트로 유명한가봐요.

Historic Route란 명칭도 있고 Mother of the road란 닉네임으로도 불리곤 해요.

이 길을 따라 유명한 명소들을 종종 지나쳤는데,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는 바로 <영화 바그다드카페>에 무대있던 Bagdad Cafe였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요.

1950년대에 생긴 바그다드카페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1988년에 영화'바그다드카페'의 장소가 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1995년에 카페 이름을 아예 바그다드카페로 바꾸고 명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겨울연가가 인기가 많아져서 남이섬이 더 유명해진 것처럼 말이죠. ^^

이 영화 좋아하는 분들 꽤 있던데, 전 못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꼭 봐야겠어요.

#### 춤추는 베니(류준)씨는...

사유로운 지구 여행은 끝나는 걸없는 여행중독자이자 완공한 개척업이다. 현재 그들인 적은 다양한 경험으로 해외여행과 여행회를 집안 중이며 개인블로그(www.dancingbeny.com)와 온라인 채식카페(cafe.naver.com/benycafe)를 운영 중이다. 일타 전 70일간의 미국횡단여행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참가해서 시르티안 특인 선수플 당당히 우승시키고 돌아왔다. 2008 사막라야라톤데사할 한국팀 포모그래피 / 2009 호주 빈바퀴 자동차여행 / 2009 4,500km 유럽횡단레이스(TransEurope FootRace) 한국선수 개인시포터 / 2011 5,200km 미국횡단레이스(LANY Footrace) 독일팀 시포터 (우승)



# Contents

October 2011 Vol.4

## TRAVEL

004 **출추는 베니의 70일간 미국횡단** 1부, 베니가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 HEALTH

- 014 건강테마 / **당석증** 단기간 무리한 다이어트 몸 안에 돌 생긴다
- 018 건강테마 / **당석증** 소식(小食), 디도 알고 덜도 알고 이렇게 하라!
- 021 다이어트와 건강 다이어트 하는 당신의 선택은 우유 vs 두유
- 025 **햇 플릭** 사랑하는 사람 못 믿으면, 심장병 위험 50% 높다!
- 026 **푸드 스토리** 시력개선 효과 탁월한 슈퍼푸드 블루베리
- 028 **약과 음식의 궁합** 티라민 함유음식과 약은 함께 먹으면 안돼요!
- 030 **실천합시다!** 먹고 남은 약, 약국에 버려야하는 이유

## LIFE STYLE

034 **꽃기린의 행복한 일상** 아이들의 감성치수를 높여주는 초록식물을 키워 보세요

## COOKING

- 042 **출추는 베니의 채식 라이프** 어린이용 한입 고구마 피자
- 044 **영심이의 건강한 주방** 제철맞은 고등어의 색다른 변신, 고등어 된장구이

## PHOTO ESSAY

046 **제주농부이야기** 사진 [sea:sun]



 **[2011년 10월호 표지]**  
 제목 LA-NY Footrace 2011 우승자 라이더 코흐(30세, 독일)  
 포토그래퍼 류준(출추는베니) juneoneart@gmail.com 

발행인 김윤구 편집인 김정석 편집책임 이준수 편집장수 주종석 기획총괄 김미정 김무성 UkeBani@hramail.net  
 기획 박준원 junhyon@hramail.net 디자이너·에디터 임정호 unnstyle@hramail.net 이문정 hani9@hramail.net 교열 박선경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 문맥전학 02-705-6249

본지의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웰스건강나래는 태블릿 전용으로 발행되는 건강만 라이프 매거진입니다.





아~다시 봐도 먹고 싶은 @@ 한입피자!!!

거기다 더 좋은 소식!

11월호는 <채식>특집호예요 ㅎㅎㅎ

베니의 채식카페 멤버들 인터뷰와  
몇일 전 소개했던 '퍼블리크'를 비롯 '베이커스필드', '오월의 종' 기사가 나갑니다 :)

11월호 표지 촬영. 제가 합니다~>\_<

베니가 멋진 포토그래퍼로 성장하도록 많이 응원부탁합니다당 :)

세계여행, 미국여행, 더매거진, 포토그래퍼베니, 미국횡단

덧글 16 역인글 공감 5

구독하기

북마크

미투 1

보내기

인쇄

[미국자녀동반유학전문 비자닷컴](#)

부모님 미국유학, 자녀분 F2동반비자발급, 미국공립학교입학, 안정적인 미국조기유학

[미국여행 에스플러스트래블](#)

미국신혼여행전문여행사, 미국여행초특가, 실속있고 알찬 미국여행, 내게 꼭 맞는 상품

[미국여행 현지여행사 드림투어](#)

미국, 캐나다 여행, 항공권, 호텔 전문. 뉴욕, 워싱턴, 올랜도, 밴쿠버 관광.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랐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 \(16\)](#)

[\[미국횡단\] 레이스 위기 \(16\)](#)

· 이전 다음 ·

▲ top

prologue blog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채식맛집, 카페 베니의 여행스타일

memo tags guest

tag comment 최근 | 인기

Cross America (34)

스크랩 역인글 목록달기

[미국횡단] 경비행기 주유는 셀프인가요? (28)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틈,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타블렛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1 2 3 4 5 6 7



춤추는 베니 (ajirim)

드디어 첫 책이 나왔습니다. "베니의 채식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 원고청탁 ajirim@naver.com

5줄 보기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Cross America / 베니의 여행스타일

복사

POWERBLOG By NAVER

세상을 여행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패키지여행?

배낭여행?

무전여행?

저동차여행

기차여행

자전거여행

도보여행

캠핑여행

.  
. .



하루한끼 채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Blank text box

category

전체보기 (570)

베니의 채식스타일

채식요리 (93)

채식간식 (28)

채식베이킹 (6)

채식맛집, 카페 (52)

채식여행 (1)

현미다이어트 (7)

채식/건강 생활 (57)

베니의 여행스타일

New York (9)

Cross America (34)

Cross Europe (11)

Drive Australia (27)

Sahara Desert (25)

City of Europe (9)

Australia life (25)

세상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 만큼 수 만 수 천가지의 여행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여행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여행이에요.

제가 미국을 여행했던 방법은,  
이전에도 8번이나 행해졌던 미국횡단 레이스였지만 저에겐 딱 한 번뿐인 미국횡단이었죠 ^^

나에게 온 기회도 한 번, 미국을 가기 위해 고른 비행기 티켓도 단 한장.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하고 유일한 여행방법은 시작됩니다.

어제 누군가 탔던 비행기였고, 작년에 누군가 자동차를 달렸던 똑같은 길을 따라 가더라도 말이지-

그리고

머지 않아, 또 다른 특별한 미국횡단 여행을 시작하는 두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두 대의 자전거만으로 뉴욕에서 LA까지 머나먼 여행을 준비해 온 두 사람을 만났답니다.

벌써 한 달 전 이야기네요.



2011 자전거 미국횡단 준비를 마친 대학생 김현수(왼쪽)와 이동진(오른쪽)

###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영원하게 이어질 대륙횡단의 꿈

어린 시절 부터 자신이 속한 공간을 뛰어 넘어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싶은 열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미국을 횡단하는 동안, 이 블로그를 통해 미국횡단의 꿈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시고, 대리만족을 느낀 분들도 계시겠죠

미국에 있는 동안 쪽지도 여러 개 받았답니다.  
주로 미국에 대한 정보와 확실한 자신의 마음에 시동을 걸어 줄 "단 한마디"를 기다리던 사람들.

"제가 그 분들에게 무얼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이 온 두 친구를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호기심도 생기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도 산더미고...

하지만, 강남역 7번출구에서 절 기다리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안도가 되더군요.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단련해 왔는지, 나를 기다리는 순간까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모두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은 준비가 되었구나"

군대도 다녀왔고, 매일 매일 트레이닝을 게을리 하지 않고,

ajirim Africa (6)

베니의 일상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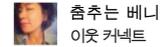
Live in Korea (100)

Travel Korea (32)

아이폰 라이프 (11)

베니의 리뷰 (18)

휴식, 커피/디저트 (13)



춤추는 베니  
이웃 케릭터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건국 쏫3333 라지엘리

1/ 1318

춤추는 '님 이웃의 새글보기'

세계여행, 여자의식탁, 일 상·생각, 요리·레시피, 맛집, 채식, 나의레시피, Canon\_EOS\_500D, 호주 여행, 미국여행, 채식맛집, 호주자동차여행, 미국횡단, 사막여행, 채식요리

모두보기

채식초보 가이드  
페이지6 참여자자 1

베니의 채식카페

June Ryu  
facebook



Name:  
June Ryu

Create your badge

베니의 채식카페

facebook



Name:  
Beny Cafe  
Fans:  
116

자전거며 비행기 티켓이며... 협찬도 받을 줄 알고, 마케팅 방식도 잘 이해한 두 탐험가.

당장이라도 동해를 헤엄쳐 미국으로 갈 기세랄까?

"젊음"이라는 뜨거움

그 나이에만 누릴 수 있었던 열병

딱히 해 줘야 할 충고 같은 건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기꺼이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고...

하지만, 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한국에 돌아온 뒤에 너희는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 의미를 두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1,278

1,353,538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미국 혹은 다른 대륙 횡단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두 사람의 여행기를 통해 미래의 꿈을 준비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9월의 그 날. 저와 만난 두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 참 재미있네요- 아래에 첨부합니다.

- [http://blog.naver.com/poison\\_kiss/10121602696](http://blog.naver.com/poison_kiss/10121602696)
- <http://blog.naver.com/heartbeatego/50121486849>

이동진군은 지난 주 정글마라톤을 완주했네요 ^^

미국을 횡단하는 방법, 세계여행

덧글 22 | 역인글 공감 7

구독하기 | 북마크 | 미투 | 보내기 | 인쇄

**모두투어온라인 세계여행**

여름휴가조기예약 파격특가, MD강력추천 세계여행반값부터 VVIP여행까지 맞춤 특가

**우리닷컴 해외여행**

세계여행 추천, 성수기할인, 허니문, 하나 투어 특가, 할인항공, 단체전문

**세계여행 온라인투어**

고객만족NO.1 패키지해외세계여행, 여름 성수기 조기예약추가할인, 100%전원경품.

Ads by 가입신청

'Cross Americ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 포스트 보기

[미국횡단] 뉴멕시코 쿠바에서 먹은 멕시칸요리 (42)

밤의 톨, 캘리포니아 (9)

미국을 횡단하는 유일한 방법 (22)

<베니의 미국횡단>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구독하세요 ^^ (16)

[미국횡단] 허리케인 아이레네와 함께 올렸던 마지막 날 The Final Stage o.. (16)

· 이전 다음 ·

▲ top

